

한국사회 이해

(인문사회 영역)

하 나 원

책을 펴내면서

50년이 넘는 긴 분단의 세월로 인하여 남과 북의 주민은 같은 말과 글을 쓰고 있으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이 다르고 언어의 이질화도 심화되는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경제난 등으로 탈북한 북한주민중 상당수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오고 있으나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되풀이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원은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하루 빨리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과 소양교육은 물론, 일반 서민의 일상생활 체험, 산업체 시찰, 생활요리 및 운전, 직업안내 및 기능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원에서는 그동안의 사회적응교육 실시경험 및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토대로 교육생에게 유익하고 교육생의 수준에 맞으며 교육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편집한 하나원 교육생의 우리사회 이해를 위한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내용은 남북언어비교·외래어·한자 등 언어적응 및 이해를 위한 언어 영역,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역사 등 각 분야별 이해를 돕기 위한 인문사회 영역, 실생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생활영역 등 3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우리사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교육생을 위해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들을 많이 담으려고 시도하였습시다만 빠진 내용도 많고 좀더 알차게 꾸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계속 시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니 부디 많은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낯선 사회에서 새롭게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원고집필과 교정 편집 등 책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 12. 31

하나원장 김 중 태

목 차

제 1 장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1. 달라진 남과 북 7
- 2. 남과 북, 무엇이 다른가? 8

제 2 장 한국정치의 이해

- 1. 한국정치 이해의 필요성 20
- 2. 대한민국의 정체와 이념 21
- 3. 한국정치의 구조와 과정 22
-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27
- 5. 맺음말 31

제 3 장 한국경제의 이해

- 1. 시장경제체제 원리의 이해 33
- 2. 시장의 이해 35
- 3. 국민경제의 이해 37
- 4. 한국경제발전의 성과와 과제 42
- 5. 금융기관의 구조와 역할 44
- 6. 조세 48
- 7. 금융실명제 56
- 8. 어음과 수표 56

제 4 장 한국사회의 이해

1. 머리말	59
2. 한국사회의 특징	60
3. 사회생활의 이모저모	63
4.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갈등	70
5. 맺음말	73

제 5 장 한국문화의 이해

1. 새 사회,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75
2. 한국 문화의 기원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80
3. 왜 빨리빨리인가	83
4. 끈질긴 놀이문화 : 고스톱 문화의 정체	86
5. 품앗이 문화의 정수 : 우리의 부조 문화	88
6. 장례문화에 녹아 있는 우리 의식	90
7. 우리의 의식문화	93
8.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99
9. 우리 민족의 놀이문화	106
10.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	109

제 6 장 한국교육의 이해

1. 남북한 교육목표 이해	116
2. 우리나라 교육사	116
3. 고려의 교육제도	119
4. 조선의 교육	120
5. 조선의 근대교육	122
6. 현재의 우리나라 학제	123

제 7 장 한국역사의 이해

1. 선사문화와 국가형성	128
2. 국가형성	130
3. 고조선의 건국	132
4. 부족국가의 성립	133
5. 고대사회의 발전	135
6. 삼국발전과 항쟁기	137
7.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 삼국통일	139
8. 고려시대	141
9. 조선왕조의 건국	143
10. 민족의 수난과 독립운동	146
11. 대한민국의 수립과 한국전쟁	150
12. 민주국가의 발전	158

제 8 장 정보화 사회의 이해

1. 정보화 사회와 우리와의 관계	164
2. 정보기기와 컴퓨터	169
3. 하드웨어	174
4. 소프트웨어	178

제 1 장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1. 달라진 남과 북

1) 남과 북은 원래 하나였다.

- 한반도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국토도 하나였고, 5천년 역사를 이어 받은 단일민족 국가이었음.
- 그러나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38도선을 중심으로 1945년 미·소가 분할 점령함으로써 국토가 분단되고 남북 간에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세력의 다툼으로 통일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와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정치적 분단을 자초하고 말았음.
-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6.25 한국전쟁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재산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민족이 서로 적이 되어 싸움으로써 남북 간에 적대의식과 대결의식이 팽배, 민족이질화를 촉진시켰음.

2) 남과 북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 남과 북 사이에 사상과 이념이 다르므로 해서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점이 많은데 이것을 '민족이질화'(民族異質化)라고 함.
- 체제(제도)가 다른 두 정부 아래서 법과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
- 사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 사회, 문화, 교육, 풍습, 생활양식 등에서 달라진 것이 많음.
- 법과 제도 등은 나라가 통일된 다음에나 하나로 단일화될 수 있음. 북한

에서는 이것을 두고 '제도통일(制度統一)'이라는 말을 쓰고 있음.

- 그러나 사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사회·문화적으로는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면 가까워질 수 있음. 이것을 '민족의 동질성회복(同質性回復)'이라 함.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음.

2. 남과 북, 무엇이 다른가?

1) 정치면

- 남한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임.
-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으로 노동당 1당독재,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임.
- 남한은 흔히 자본주의체제라고 하기도 하나 이것은 주로 경제적 의미임.
- 북한은 당규약이나 헌법에서 맑스·레닌주의라는 말을 없애고 주체사상을 표방하고 있으며 지금은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말로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뿌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인 것임.
- 정치이념에서 중요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본가치를 남한에서는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개인을 부정한 집단주의 원칙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중요시하고 있음.
 - 국가의 목표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복지국가 건설에 두고 있으며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남북한 정치체제도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남한은 경쟁적인 여러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있으나 북한은 노동당 외에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당은 1948년 이후 계속 정권을 장악하고 있음. 북한에도 형식상 '사회민주당'과 '천도교 청우당' 같은 것이 있으나 이름만 이용하고 있을 뿐 실제로 당이 존재하지 않음. 이런 정당을 '우당(友黨)' 또는 '전위대'라고 함.

- 남한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이 뽑은 여러 정당과 무소속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법부인 대법원은 독자적으로 재판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수령의 지배체제이며 수령은 당에서 추대하고 있으나 수령은 당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로 공산 국가의 수령은 거의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음.
- 남한은 3권 분립(三權分立) 제도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사법권은 대법원에 주어지고 있으며 서로간에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북한도 3권 분립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모든 기반은 헌법 제11조에서와 같이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활동' 하게 되어 있어 정부는 당의 시녀(侍女) 기관으로 불려지고 있음.
- 남북한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다른 점도 적지 않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신(人身)의 자유'에 대해 남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간단히 규정하고 있음.
 - 남한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나 북한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거주이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음.
 - 남한은 사생활 비밀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북한은 규정되지 않음.
 - 남한은 '양심의 자유'가 규정되고 있으나 북한은 규정되지 않음.
 - 남북한 다같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 남한은 검열과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당의 방침과 어긋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당의 검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이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남북한 다같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이를 통제, 검열 등을 할 수 없음. 따라서 법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일 때는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임.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역시 당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남한에서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규정이 없음.
 - 남한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에 보장되고 있어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 국민의 피해가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이 있음. 그러나 북한 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음.
 - 남한에서는 근로 3권 즉 단결권(노동조합),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으나 북한에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남북한 다같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
 - 국민의 의무로 남한은 교육의무(6년), 국방의무,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의무교육(11년), 국방의무(조국보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의무는 없음. 1973년 3월21일 세금은 폐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간접 공제, 국가수입을 충당하고 있음.
- 남북한은 다같이 입법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남한은 국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있음.
- 국회의원 임기는 남한에서는 4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제9기는 8년 3개월 동안 계속되었음.
 - 남한에서 국회의원 후보는 정당의 공천과 개인(무소속)이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에서 지명한 1인만이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선거에 있어서 남한은 1선거구에 여러 사람이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선택하여 투표함. 그러나 북한에서는 1선거구 1명에 대해 찬반투표로 대의원을 결정함.

○ 행정부는 남한에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국무총리가 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 밑에 장관이 각부를 관장하고 있음. 북한에서는 형식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수반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은 내각이 주관하고 있으며 그 밑에 위원장과 상이 각 위원회, 성을 관장하고 있음.

- 지방행정기관은 남한에서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의 광역시가 있으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도가 있음. 북한은 평양특별시와 남포, 개성의 2개 직할시, 평남, 평북, 자강, 량강, 황북, 황남, 함북, 함남, 강원도 등 9개 도가 있음.

- 강원도는 남북한에 있으며 황해도를 남북으로, 그리고 자강, 양강도를 늘려 둔 것은 남과 북 총선거시 남과 북을 1대 1로 하자라는 주장을 유리하게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연방제 실시의 경우 남북 1대 1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봄.

- 남한에서는 지방행정조직이 특별(광역)시·도 밑에 시·군·구가 있으며 그 밑에 읍·면·동이 있음. 그러나 북한은 도(특별시·직할시) 밑에 시·군(구역)을, 그 밑에 읍·리(동·노동지구)의 3단계로 하고 군을 늘리면서 '면'을 없앴.

- 남한에서 군·구 이상의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있으나 북한은 해당 인민위원장을 인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있음.

- 남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의회'가 있으며 북한은 '인민회의'가 있음.

-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사법부라 하며 남한에서는 최고재판기관으로 대법원이 있고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지원)의 3급 3심제로 되어 있음. 북한에는 최고재판기관이 중앙재판소이며 그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 시·군의 인민재판소로 조직되어 있음.
- 남한에서는 검찰기관도 법원조직에 준해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을 두고 있으며 북한도 법원 조직에 준하여 3단계로 조직되어 있음.

2) 경제면

- 남한의 경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며 북한도 계획경제원리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라 할 수 있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본질적 차이는 생산관계에서 찾을 수 있음.
-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남한과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은 '소유제도'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 남한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을 개인적 소유로 하고 있음.
 - 다만 남한에서 소유는 '개인소유', '법인소유'와 기타 공공단체와 국가도 소유할 수 있음. 개인의 투자가 어렵고 공공의 복지를 위하거나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철도, 전력, 우편 사업 등을 공공단체나 국가가 소유할 수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을 점차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개인적 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국유화)로 전환시킨다고 하고 있어 사회주의국가의 개인 소유 확대 경향과는 역행하고 있음.
 - 경제 운영면에서 남한은 경제운영 주체가 개인, 법인, 공공단체, 국가기관을 망라함. 따라서 경제는 국가가 통제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

이 아니고 시장기능에 맡겨지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있으며(통제경제) 인위적으로 조종해 나감으로써 경제운영의 자율성이 없음.

- 남한은 대외적으로 개방경제체제이나 북한은 폐쇄경제체제임. 북한의 이러한 폐쇄경제체제는 과거 공산권 무역에 의존했던 시절에는 그런 대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세계화시대에는 국제경쟁력의 취약으로 살아남기 어려움.
- 경제정책의 기초에서도 차이가 큼.
 - 남한은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특히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대외개방에서 아주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현대는 세계화시대로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전근대적 경제노선임.
 - 남한은 경제발전 전략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발전단계를 거쳐왔으며 경공업발전에서 얻은 기술과 외화를 중화학공업에 투입하여 현재는 세계 10대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하였음. 그러나 북한은 자원, 기술, 자본이 빈약한 조건에서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진, 경공업과 농업을 등한시함으로써 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오늘날 '3대 제일주의', 즉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운 것도 무모한 중공업우선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
 - 남한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 경제정책을 펴왔으나 북한은 50년대부터 군사, 경제병진정책으로 경제가 군사력 증강에 동원됨으로써 경제가 희생될 수밖에 없었음. 북한이 경제력이 취약함에도 군사강국을 지향한다는 것은 경제적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남북한 경제력 격차도 날로 크게 벌어지고 있음.

2000년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 분	단 위	북 한(A)	남한(B)	대비(B/A)
인 구	천명	22,175	47,275	2.1
명목 GNI	10억원	18,977.9	514,635	27.1
1인당 GNI	만원	85.6	1,088.6	12.7
경제성장률	%	1.3	8.8	-
무 역				
-무역총액	억달러	19.7	3,327.5	168.9
(수출)	"	5.6	1,722.7	307.6
(수입)	"	14.1	1,604.8	113.8
-무역액/명목GNI	%	11.7	73.1	-
-대미환율	원/달러	2.19	1,130.61	-
-외채	억달러	124.6	1,363.1	11.1
예산규모	억달러	95.7	784.9	8.2
에너지산업				
-발전용량	만Kw	75.5	4,845	6.4
-발전량	억Kwh	194	2,664	13.7
-원유도입량	만ton	39	12,081	309.8
농수산물생산량				
-곡물	만ton	358.8	591.1	1.6
(쌀)	"	142.4	529.1	3.7
-수산물	"	69.8	254.5	3.6
공산품생산량				
-자동차	만대	0.66	311.4	471.8
-강철	만ton	108.6	4,310.7	39.7
-시멘트	"	460.0	5,125.5	11.1
-비료	"	53.9	373.0	6.9
-화학섬유	"	2.9	264.6	91.2
사회간접자본				
-철도총연장	Km	5,214	3,123	0.6
-도로총연장	"	23,633	88,775	3.8
-항만하역능력	만ton	3,530	43,044	12.2
-선박보유	"	81.0	615.3	7.6

3) 사회면

- 남북한 사회체제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남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개인 중심의 사회임. 북한은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헌법과 같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사회임.
 - 남한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사회가 바탕이 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헌법에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정하고 있음. 집단주의는 '전체주의'이며 이는 바로 독재체제임.
 - 남한은 대내외적으로 완전 개방사회이나 북한은 대내적으로도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정보도 차단되고 있음. 특히 대외적으로 폐쇄되어 해외여행의 자유는 생각할 수 없음. 북한이 폐쇄사회를 유지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체제유지 때문임.
- 사회계층의 구조에서 남한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의 계층, 즉 부유층과 빈곤층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배층과 피지배층,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농민계급간의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 남한에서는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스럽고, 제한이 없으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계층도 상승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은 계층에 대한 구분이 제도적으로나 정치적 통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계급사회'라고 비판되고 있음. 북한은 핵심군중인 핵심계층과 기본군중인 동요계층, 복잡한 군중인 적대계층으로 구분하여 주민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원이 아니면 핵심계층이 될 수 없음. 남한은 계층 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의 활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사회가 아님.

-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옛날부터 해마다 관례로서 행해지는 전승적 행사로서 집단적 내지 공통적으로 집집마다, 촌락마다 또는 민족적으로 관행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음. 전통적인 세시풍속으로는 정월에는 설날과 보름, 2월 입춘, 3월 삼짇날, 4월 한식,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추석, 9월 중앙절, 10월 상달, 11월 동지, 12월 선달 등이 있으며 일부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나 가장 큰 명절은 역시 설과 추석이고 기타 세시풍속은 지역에 따라 지켜지고 있는 실정임. 북한에서 본래 유교적 관습 또는 미신적 요소가 들어 있다 하여 부정적 입장이었음.
- 남한에서 명절이라 하면 민족고유의 명절을 말하나 북한은 국경일 등을 명절로 하고 있음. 남한에서는 국가기념일을 국경일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개인의 생일을 민족의 명절 등으로 하는 나라는 오직 북한뿐임.

4) 문화면

문화란 자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형성, 개발하고 혹은 순화하는 것이며 또한 그 성과를 말함. 사적유물론에서 문화란 인간의 노동과정에 의하여 사회적,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체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기초 구조에 있어서 물질적 소득이 물질문화, 상부구조에 있어서의 정신문화이며 양자는 서로 관련하나 근본적으로는 물질적 문화가 기초적인 것이라고 주장.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남한은 민족문화의 토대 위에 서양문화가 유입되고 있으며 북한은 민족문화의 토대 위에 소련식 사회주의 문화의 유입으로 남북한은 크게 이질화되고 있음.

남한은 헌법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헌법은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은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고 함으로써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일부 말살하고, 사회주의 성향에 맞는 생활양식만 유

지시키고 있음. 또한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고 함으로써 지배층의 문화는 말살하고 노동자, 농민들의 문화만 유지·발전시키고 있음.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고 함으로써 자본주의 문화(서구문화)와 남한의 문화를 거부하고 있음.

○ 문예정책의 특성을 보면

- 남한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으나 북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하고 있음.
- 남한은 문예활동에서 그 어떤 사상이나 추세를 따라 활동하더라도 제한이 없으며 그것이 미풍양속이나 국민 정서에 크게 어긋날 때는 법에서 판단하나 북한은 철저히 당성의 원칙에 따라 통제를 받고 있음.
- 남한에서는 어느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묘사하는 것도 자유이나 북한은 계급성의 원칙, 인민성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제한 받고 있음.
- 남한에서는 문예정책에 대해 국민의 표현의 의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북한은 이른바 주체문예이론, 종자론 등을 내세워 특정인의 교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문예작품은 규격화되어 있음.

○ 남한에서는 문예분야에서 창작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며 창작가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 문예인은 국민의 인기도에 따라 수입도 다름.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의 결정과 사회주의적 문예 창작 노선에 복종해야 하며 대체로 국가나 단체에 소속된 임금노동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언론분야에 있어서 남한은 언론을 주로 법인이 운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그 기능은 정보의 전달, 정부에 대한 비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북한은 언론을 국가나 단체가 독점, 당의 노선을 관철하는데 동원되는 선전·선동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북한의 방송은 모두 국영방송 체제이며 신문은 당·정권의 기관지로 되어 있으며 기타 신문·잡지도 당의 전위단체의 기관지화하고 있음.
- 종교에 있어서 남한은 헌법에서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음. 한국에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들어와 있음. 그러나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한·통제되고 있으며 신앙을 가진 경우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김일성은 초기 종교를 탄압하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미신이라고 비판함.
- 그러나 북한은 80년대 들어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고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 평양의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짓고, 묘향산의 보현사를 개방하였음. 그리고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을 기리기 위해 칠골교회(반석교회)를 복원한 바 있음.
- 언어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이질화는 심화되었음.
 - 남북한은 본래 서울의 중산층이 즐겨 쓰는 말인 '표준말'만을 사용하여 왔으나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어정책에 따라 우리말을 변질시켜 왔으며, 지금은 '문화어'라 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말을 노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언어라고 하고 있음.
 - 언어 이질화의 몇 가지 실태를 보면
 - ① 남한은 자음·모음 합하여 24자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복모음과 쌍자음을 합쳐 40자로 하고 있음.
 - ② 자음의 발음도 다른 것이 있는바 남한에서 "ㄱ"(기역)을 북한에서는 (기읍)으로 "ㄸ"(디귤→디읍), "ㅅ"(시옷→시읏)으로 발음하고 있음. 복자음(예, "ㄱ": 쌍기역) 등을 "쌍"으로 표기하나 북한은 "된"으로 표기하고 있음.
 - ③ 띄어쓰기도 다름. 특히 북한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모를 소리마다 단위로 묶어 쓰는 특성을 고려해 어휘

제 2 장 한국정치의 이해

1. 한국정치 이해의 필요성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존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정치가 존재하며,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신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 이면서도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에는 반드시 갈등이 발생한다. 사회에서 발생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간 세상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정치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또한 정치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의 질서유지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치는 권력을 사용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공동의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는 사회체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각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내용과 수준이 다르며,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와 제도가 다르며, 갈등 해결을 위한 권력의 사용범위와 수준이 다르다. 정치의 주체와 권력을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에 따라 민주정치, 독재정치, 공산정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정치체제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희망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

한국정치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줄 수 있으며, 정부 조직과 기능, 선거제도,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이념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정치의 구조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정치 일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2. 대한민국의 정체와 이념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최고의 효력을 가진 법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¹⁾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주권이 한반도와 부속된 섬 지역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은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 공화국이다²⁾. 공화국은 주권이 왕과 귀족, 지도자가 아닌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므로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이다. 특히 민주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한국은 민주 공화국이기 때문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국민 주권의 원리라 한다. 한국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참정권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의회제도와 선거제도, 그리고 복수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와 국가권력이 국민전체에게서 나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이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1) 헌법 제3조

2) 헌법 제1조 1항

을 위한 기본적 인권보장, 권력분립, 법에 의한 지배, 사법권 독립, 복수 정당제, 언론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는 일반적으로 법치주의라 한다.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또는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법에 의한 지배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정치 지도자 개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3. 한국정치의 구조와 과정

1) 전개과정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적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성장과정을 살펴볼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 역시 다양한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과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장기간 계속된 군사정부하에서 민주주의의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하여 보통선거를 실시해 왔지만 민주주의 정치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거 양상은 혼란스러웠으며, 때로는 국정이 마비되는 경험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민주화의 열기는 1990년대 이후 정치 제도적, 문화적으로 큰 진전을 가져왔으며, 문민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 정치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유지, 지방정치의 활성화, 국민들의 참여 수준 증대, 남북한 관계의 점진적 개선, 국제적 위상 향

상 등을 통해 선진정치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2) 정치제도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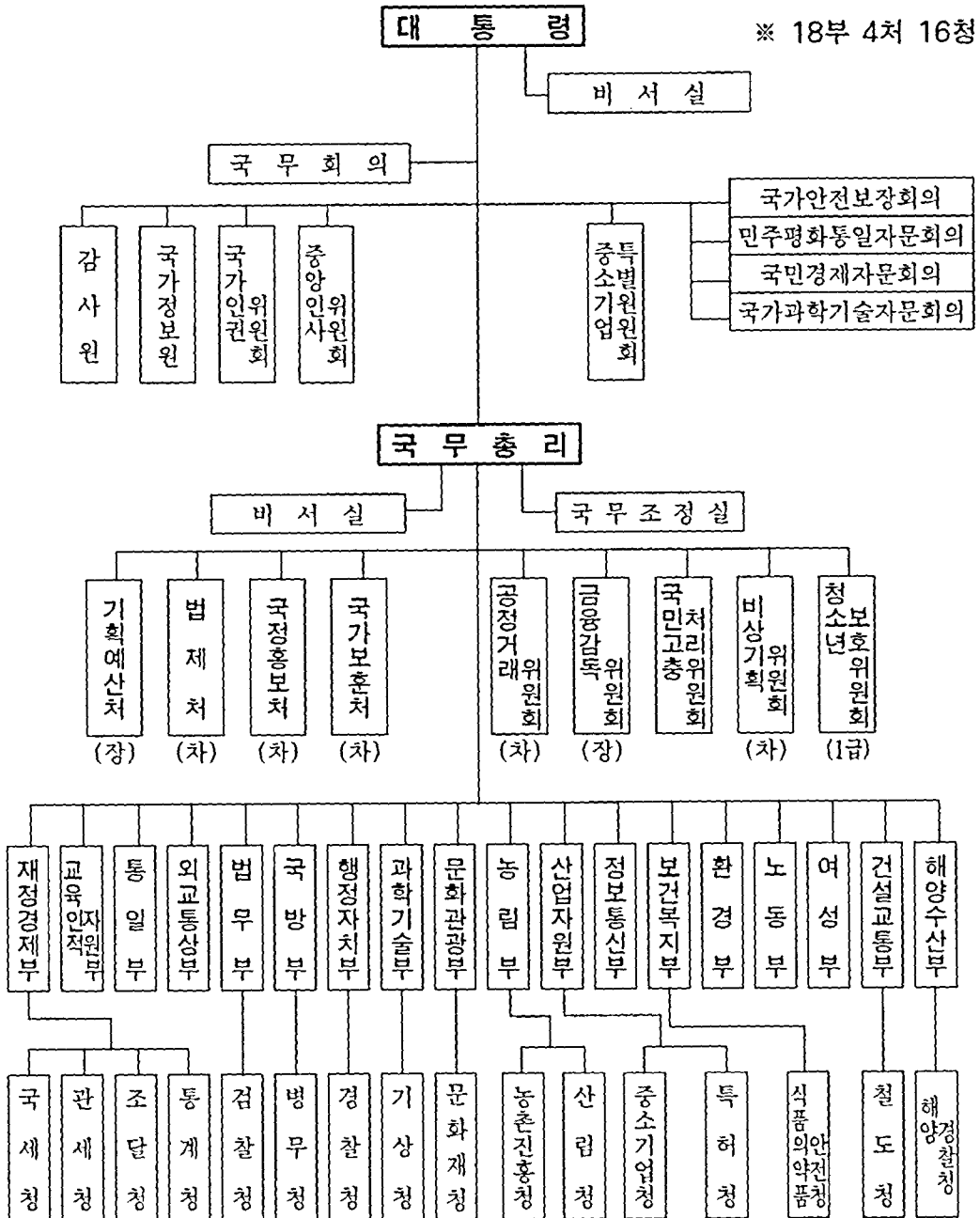
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와 조직은 각국의 정치적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제도는 공통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학에서 정치권력은 물과 같다고 한다. 물은 인간이 일부러 막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큰 강과 호수를 이루게 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권력도 국민이 통제하고 견제하지 않는다면 지배자의 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결국 절대적인 독재권력이 될 것이다. 또한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듯이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게 집중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제도와 운영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참여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제도와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통치기구(통치기구)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권력분립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도 권력의 견제와 주민의 참여 보장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한국의 통치기구(통치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우위의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동시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부의 수반이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중앙행정부처, 그리고 국무위원들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포함되어 있다.

(표 1) 정부조직 기구도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며 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곳이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사법권의 독립은 보장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재판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에 설립이 규정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국가와 법률에 정해진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요 임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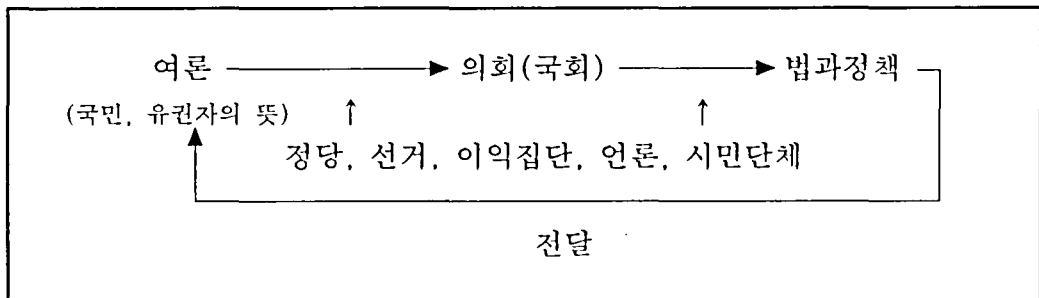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력의 분산과 주민의 참여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도 1994년 이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직접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3) 정치과정과 운영

현대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다. 여론이란 사회의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 특히 정부의 어떤 정책결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집약되어 나타나는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민주정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주정치는 여론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해

설과 책임 있는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론의 형성과 전달을 위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여론의 정책이나 법률로의 전환에는 선거,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기관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표 2〉 정치과정



한국의 정치 역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정치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는 선거, 정당, 언론기관,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운영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는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결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는 민주 정치의 생명이다. 현재 한국은 선거의 4원칙이라고 하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지켜지고 있다.

정당은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조성하고 이것을 모아서 국회와 국민,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당은 정부와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정치교육을 담당하며 선거에서 입후보자를 추천하며, 선거를 통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복수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으로 직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사회단체와 조직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정당과 달리 그 단체의 특수이익에 대한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익집단, 또는 압력단체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종친회, 향우회, 종교단체 등이며 주로 정치적 조직인 정당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NGO)들이 발생하여 한국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소비자 문제, 교육 문제, 정부 감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의 발생과 활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정치는 선거, 정당, 이익집단,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한국의 민주정치는 여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론의 정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성숙한 토론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권리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국민이 갖는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인간은 출생과 함께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 인권 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 국

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³⁾ 그러므로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⁴⁾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념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둘째, 평등권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며,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

셋째,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보장이다. 이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는 신체의 자유이다.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죄형 법정주의⁵⁾, 영장제도⁶⁾, 변호인의 조력⁷⁾, 구속 적부 심사제⁸⁾, 형벌 불소급의 원

3) 이것을 입헌주의라 한다.

4) 헌법 제10조

5)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차별과 보안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칙9), 일사 부재리의 원칙10), 연좌제의 금지11), 형사 피의자의 자백 증거능력 제한과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12)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넷째,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이며,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과 선거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그리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 등을 의미한다.

다섯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나 물질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단체 교섭·단체 행동권, 환경권, 혼인 및 보전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여섯째, 위에서 제기한 권리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것은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이 해당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
- 6) 경찰이나 수사관이 체포·구금·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범이거나 큰 범죄의 경우, 그리고 도망이나 증거를 없애버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 7) 누구든지 체포나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체포된 사람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이것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부른다)을 붙여준다.
 - 8) 누구든지 체포나 구금을 당한 때에는 자신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 정당한 것인가를 법원에 제기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9)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을 뿐이다. 즉 과거에 잘못을 했더라도 당시에는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다면 새롭게 만든 법률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10)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11)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12)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고문, 협박, 폭행 또는 장기간의 구금 때문에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을 경우 법원은 이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비록 잘못을 저질러 구속되었더라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할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이다.

2) 국민의 의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기본적 권리와 함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갖고 있다. 기본적 의무는 국민이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고,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 국민의 의무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 근로, 재산권, 환경보전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다. 즉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3) 권리 구제 수단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국가권력이나 타인으로부터 침해받거나 국민의 의무가 지나치게 높게 주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수단들을 갖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삼권분립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대정치에서는 행정부의 상대적 우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받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침해는 대부분 권력 기관과 행정부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거나 지나친 의무가 주어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나 기관들은 매우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기관으로는 사법부(법원), 입법부(의회), 헌법재판소, 소청심사위원회,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며, 우리 사회내 약자 계층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가권력의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2001년 11월 업무를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위에서 소개한 다른 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언론기관, 정당 그리고 수 많은 시민단체(NGO)들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지나친 의무 부과로 인한 피해를 도와주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집단 또는 개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부내 각 기관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으나 이제 성숙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본다. 이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와 각종 시민단체의 출현,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욕구 증가와 건전한 토론 문화의 필요성 증가는 한국의 정치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의 기존 주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도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한국은 사회적 약자층의 기본권 보호와 침해 방지를 위하여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과 대결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높은 참여의식을 갖고 있을 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한국경제의 이해

1. 시장경제체제 원리의 이해

한국경제 체제는 소유권 절대의 원리와 계약 자유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원리에 입각해 작동하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사상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재물과 용역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스스로가 확보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경제원리는 생산 수단의 공유와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은 맡겨진 일을 하면 되고 분배는 조직 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으면 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한국의 현 경제체제는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는 아니며, 공공성을 앞세우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체제이다. 시민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며 개인의 경제활동도 환경보전,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라는 공공기준에 의해 제약받는다. 그러나 기본정신과 원리는 어디까지나 개인자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경제생활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1) 사유재산 존중의 원리

자기가 생산, 소비에 활용하는 재화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남의 것을 빌려써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소유권은 법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사실과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면 죄가 되고 처벌 받

는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2) 경제활동의 자기책임 원칙

원칙적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은 자기가 노동하여 '벌어야'한다는 원리를 생활화해야 한다. 잘 살고 싶으면 더 노력해야 하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일할 수 없는 특수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개인이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3) 자유계약의 원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구성원은 모두 자유롭게 서로 계약을 하고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의 매매도 자유이며 고용계약도 자유이다.

4) 경쟁의 원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장 터득하기 어려워하는 원리가 경쟁의 원리이다. 하나의 유기체의 부분간에는 경쟁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조직이 요구하는 일을 내가 충실하게 해냈는가 하는 것만이 업무수행의 객관적 평가기준이자 자기만족의 척도인데 반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떤 일이든 경쟁자가 있고 정해진 준칙에 따라 선의의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

남보다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자만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부를 창조할 수 있으며, 상사나 동료 또는 조직 구성원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원하는 직을 가질 수 있으며, 남보다 나은 작품이라고 사회에서 평가받은 예술인만이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경쟁에서 진 사람은 좌절을 맛보게 된다. 부, 명예, 권력, 기회 등 모든 것이 경쟁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이 비정한 삶의 양식은 이런 경쟁에 익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준다.

한편, 이 경쟁의 원리는 자기책임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사회, 자유주의사회에서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모두 자기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전제가 이 두 원리 밑에 공통으로 깔려 있다. 그리고 이 원리들은 인간의 도전의욕, 모험심, 자기실현의 욕망, 잘 살아 보려는 투지 등을 자극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추동력을 창출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발전지향의 사회운영 체제를 선호하는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조장하게 된다. 조직에 대한 순종의 대가로 조직에 의한 삶의 보장을 약속받는 사회주의체제의 구성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양식이다.

5) 유상의 원리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은 유상이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용역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의 질이 높아질수록 보상액도 커지도록 되어 있다. 이 원리도 사회주의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노동자의 생산물로부터 떼어 내어 조직이 관리하면서 개인이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원할 때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물건은 사야 하고, 모든 용역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원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교육받고 생활해 왔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

2. 시장의 이해

1) 시장의 종류

시장경제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국가나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

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생산, 소비, 분배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시장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시장과 넓은 의미의 무형시장이 있다. 좁은 의미의 시장이란 상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 거래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시장의 개념을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국내시장, 해외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곡물시장, 어물시장, 청과물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넓은 의미의 시장이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추상적인 시장, 즉 무형의 시장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상품시장, 노동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기술시장, 부동산시장 등과 같이 고정된 거래장소를 가지지 않고 광고, 중개업자 그리고 그 밖의 거래형식을 통해 상품의 공급원과 고객을 찾아내어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의 의사를 소통시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시장에는 언제나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힘이 작용한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고자 하는 사람들로 부터 보다 좋은 조건의 주문을 받아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로 경쟁적이다. 또한 사는 사람들 역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파는 사람들로 부터 최선의 조건을 얻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파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면 그 집단은 사는 사람들의 집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조화나 협력보다는 경쟁이나 이해상충이 오히려 정상적인 현상이다.

2) 수요와 공급

시장은 크게 수요와 공급으로 나뉘는데, 상품을 사는 쪽을 수요자(구매자)라고 지칭한다. 가게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는 수요자가 될 수 있는데, 수요자가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사고자 하는 계획을 수요라 하며, 각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양을 수요량이라 한다. 수요자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가격

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상품을 파는 사람을 공급자(판매자)라고 부르며, 기업과 가게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는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공급자가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팔고자 하는 계획을 공급이라고 하며, 각 가격 수준에서 팔고자 하는 양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례 관계에 있는데, 가격이 인상되면 생산자는 그 상품의 공급을 증대하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을 줄이려 한다.

3. 국민경제의 이해

1) 국민소득

시장경제 하에서 각 개인 또는 가게는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한다.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상품(재화)과 용역(서비스)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생긴 수입을 기초로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가게)과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공공재를 공급한다. 이와 같이 가게, 기업, 정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하나의 국민 경제를 형성하게 된다.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한 기간 중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 및 경제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기본적인 척도이다.

한편, 국민 총생산(GNP)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에는 국민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것도 포함한다. 반면에 국내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생산한 것을 합산한 것을 국내

총생산(GDP)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데는 1인당 국민소득을 사용한다. 이것은 국민 총생산을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누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흔히 미국의 달러화로 표시한다.

노동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고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이를 가지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는데,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 하고, 충분히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상태이지만 보수가 낮다든지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스스로 그 일자리를 택하지 않는 것을 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3) 물가

상품의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고 그 정도는 상품의 종류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이 물가이다.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가 물가지수인데,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 상품으로부터 계산된 가격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단순 종합지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각 상품으로부터 계산된 가격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 평균으로 가중 종합지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물가지수의 종류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등이 있다.

4) 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대단히 높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 나라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여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둘째, 생산비의 상승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특히 노동운동 등에 의한 임금인상과 이에 따른 생산비의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경우 이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셋째,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여 시장의 수요나 공급과는 관계없이 평균 비용에 일정한 이윤율을 더하여 높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관리가격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은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선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 사람들과 같이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고, 부동산과 같이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여 사람들은 저축을 하기보다는 많은 물건을 사두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더욱 오르게 된다.

그리고 고정된 봉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업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효과들이 결합하여 부와 소득의 분배가 갈수록 더 불공평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게 된다.

그밖에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기업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 등 투기활동에 몰두하게 되며, 국산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되고 수출은 위축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는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를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5)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주화, 수표 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를 지닌 현금 외에,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같이 필요한 경우 찾아 쓸 수 있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화폐의 개념에 포함된다.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 예금을 합하여 통화라고 하며, 전자를 현금통화, 후자를 예금통화라고 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현금이나 수표가 점차 필요없게 되고 있는데, 봉급이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되지 않고 컴퓨터로 은행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계좌를 증명하는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각 상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물품대금이 자동적으로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컴퓨터의 사용을 통한 정보처리 능력의 발전은 향후 화폐의 기능을 갈수록 무력하게 하고 그것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금융

금융이란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현상, 즉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자금의 흐름은 개인사이, 기업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그것의 큰 흐름은 개인과 기업 부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은 항상 저축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며, 개인은 투자보다 저축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금이 부족하고 개인은 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 두 부문 사이에서 국민경제의 자금순환이 이루어진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며 이런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상품 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되듯이, 금융 시장에선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 되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저축, 즉 자금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며, 반대로 이자율이 내리면 자금의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존재 하는데, 금융기관에는 통화를 창출하는 통화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비통화 금융기관이 있다. 통화 금융기관으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이 있으며, 비통화 금융기관으로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다.

경제사회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은 물가, 생산, 고용 등 국민경제에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량이 증대하면 이자율이 내려 투자가 활기를 띠고 생산활동이 증대되며 고용이 확대되나, 물가는 오르게 된다. 반대로 통

화량이 감소하면 물가는 내리지만 이자율이 올라 투자가 줄고 생산활동이 위축되며 고용이 줄어든다.

또한 수요에 비해 통화량의 공급이 과다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과소하면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화의 양을 적당히 조절하는 정책을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집행한다.

대표적인 금융정책으로서 금융긴축과 금융완화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금융긴축이라 한다.

금융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단이 동원될 수 있는데, 첫째가 재할인율 정책이다.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하고 이를 다시 중앙은행이 받아서 할인해 주는 것을 재할인이라 하는데, 이 때의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올리면 은행이자율이 인상되어 기업 등에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공개시장 조작정책이 있는데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국채 및 공채를 팔아 시중의 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셋째는 지급 준비율 정책이다. 은행은 예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지급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 지급 준비율을 높임으로써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량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불경기가 초래되면,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시중에 자금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를 금융완화 내지 금융확장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낮추어 시중금리를 인하하고, 공개 시장에서 국채 및 공채를 사들여 자금을 풀거나, 지급 준비율을 낮추어 은행의 대출 여유 자금을 증대시켜 준다.

7) 재정과 예산

정부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 분야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살림과 관련되는 정부의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비롯하여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재정수입(세입)이라고 하고, 지출을 재정지출(세출)이라고 한다.

재정은 그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방대하므로 정부는 일정한 기간의 재정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에 근거하여 집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예산이라고 한다. 예산은 통상 1년 단위로 세워지고 집행되는데, 이를 회계연도라고 한다.

정부가 완전고용, 물가안정, 경제발전, 공평한 소득분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재정정책은 크게 조세와 정부지출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정부가 조세를 늘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계의 소득(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가계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또 기업에 대한 조세를 늘리면 세금으로 인해 투자수익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의욕이 둔화되어, 결국 소비와 투자가 감소됨에 따라 국민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반면에 정부가 조세를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국민경제활동이 확대된다.

둘째,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정부에 대해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람들의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고 이들이 증가한 소득을 소비에 충당함으로써 국민경제활동은 확대된다. 반대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소비가 줄고 경제활동은 위축된다.

4. 한국경제발전의 성과와 과제

1) 경제발전의 성과

한국경제는 그동안 외형적인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국민경제의 규모

와 국민의 경제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첫째, 풍부한 인적자원이 주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배양된 풍부한 인적자원은 수출산업 경쟁력의 주요기반이 되었다. 둘째,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욕에 부응하여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욕구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국제적인 경제호황과 저렴한 국제원자재 가격 등 주변 경제여건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2) 향후 과제

우리 나라 경제는 규모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외형적 성장이 경제개발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발과정에서 초래된 성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고도성장과정에서 구조적 불균형 현상이 누적되어 왔다. 공업화 전략은 상대적으로 농업의 낙후를 초래하였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전략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조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발전의 격차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수출주도형 전략은 국민경제의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이로서 국제경제의 여건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화되게 되었다.

셋째, 성장위주의 전략은 소득분배를 상대적으로 경시하였고 분배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였다. 값싼 노동력의 공급으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기에 임금인상은 억제되었고 농산품에 대해서도 저곡가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에 반해 고도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기업가들에게는 투자재원의 조달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되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넷째, 경제개발의 결과는 국민생활의 양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반면에 질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했다.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업화 과정에서 산출된 산업폐기물, 매연, 폐수 등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였고, 이는 생업으로서의 터전을 파괴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저해하여 노동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공해문제는 개별기업의 환경보호 노력 외에, 정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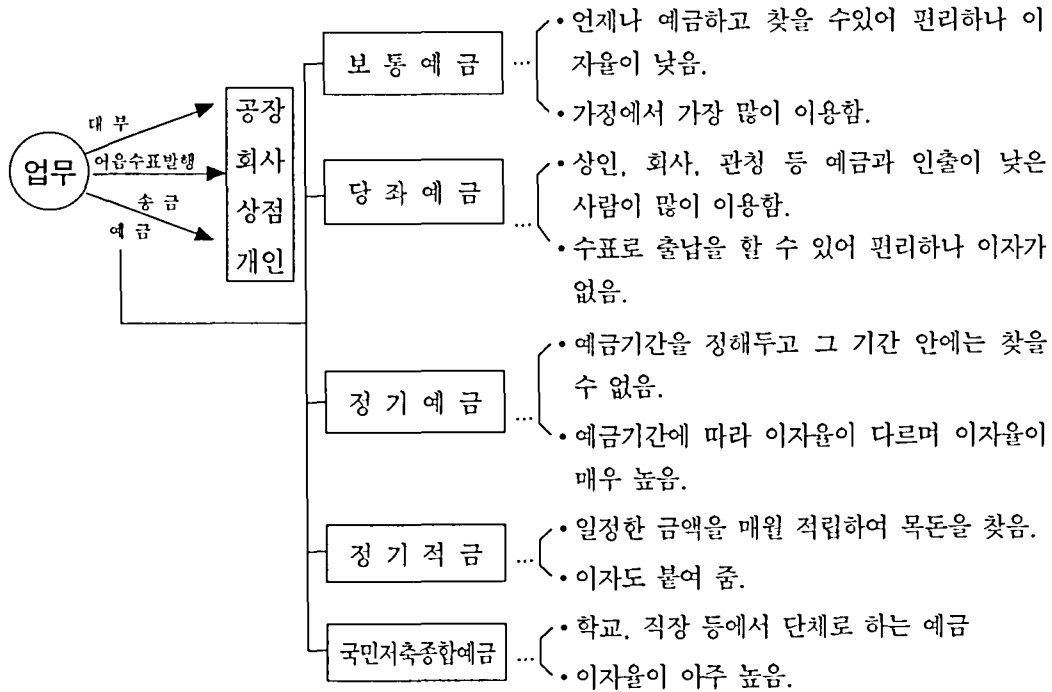
그 밖에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로 나타난,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범죄, 청소년 비행, 산업재해 등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 금융기관의 구조와 역할

1) 은행의 종류와 기능

특수은행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 한국은행권 발행	· 큰 규모 시설의 산업 자금 장기 대부	· 중소기업의 사업 자금 대부	· 적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매달 예금을 하게 하여 적은 액수를 대부해 줌.	· 외국과의 돈 거래	· 주택자금 대부
	· 은행의 은행 구실(중앙은행)	· 산업 채권 발행	· 중소기업 보호로 산업발전 도모	· 외국 돈과의 교환, 송금	· 외국 채권 발행	
	· 정부의 은행			· 외화 보관		
	· 화폐의 양과 물가조절					

- | | | |
|------|--------------------|--|
| 일반은행 | —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 ... |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등 |
| | — 지방에 본점을 둔 은행 ... |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



현행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등 은행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독점적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영업구역이 원칙적으로 소재지 도나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는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개별은행이 본점 이외에 다수의 점포를 설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지점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반은행은 요구불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기한부예금을 수입

하여 장기대출로 운용하는 장기금융업무도 취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탁업무와 신용카드업무 등을 별도의 인가를 받아 겸영하고 있다.

특수은행은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특수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재원조달의 상당부분을 재정자금 및 채권발행 등에 의존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기관인 국민은행 그리고 농·수·축산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해외투자에 필요한 중장기자금 공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으로는 외화자금 및 중장기자금의 공급과 아울러 단기금융업 등 종합적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 서민과의 금융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호신용금고, 조합원 상호간의 자금유통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등을 비롯하여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신탁계정,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 리스회사, 벤처캐피털회사 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시장으로는 단기과부족자금의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는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재정증권시장 등 단기금융시장과 주식 및 채권이 발행 유통되는 자본시장이 있다.

2) 금융민원 안내

(1) 금융관련 민원처리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우편번호 100-794)
- 전화 : 분쟁조정실 759-5532~8

(2) 금융민원 처리내용

- 금융분쟁조정신청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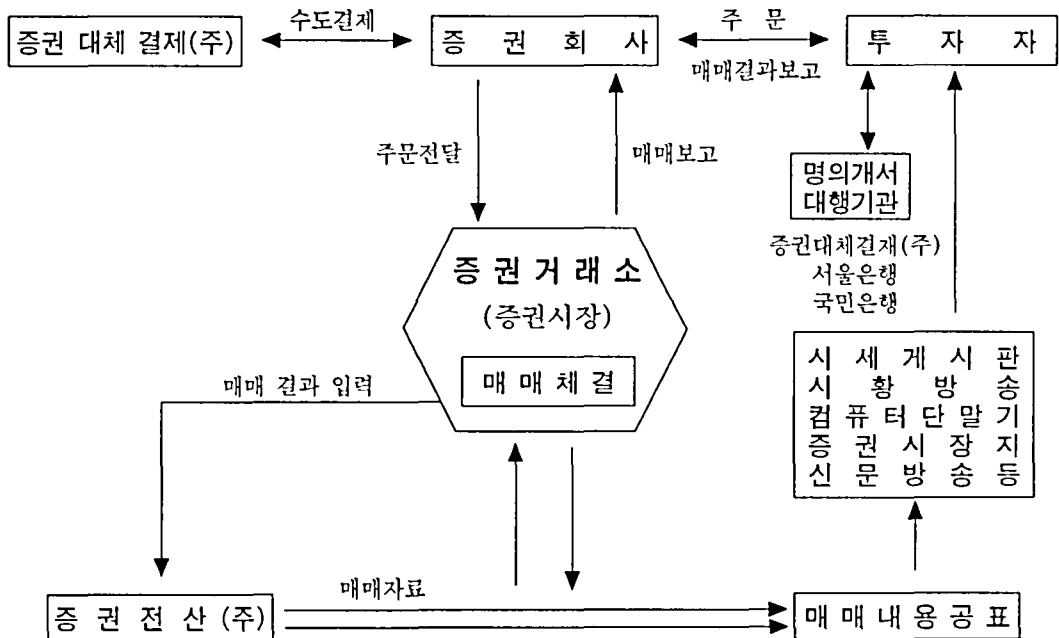
금융기관 이용자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정신청한 피해보상

분쟁의 조정, 합의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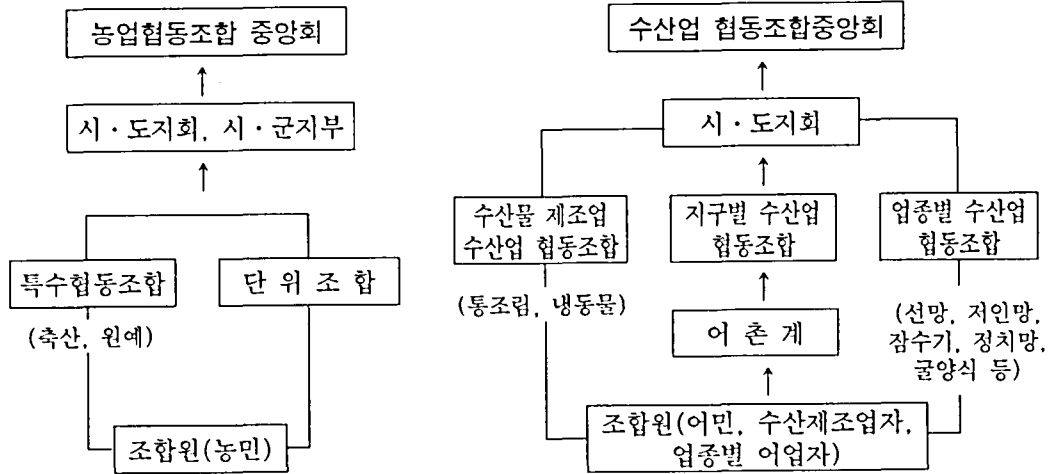
- 일반민원의 처리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이용자가 제기하는 질의, 건의협의,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기타사항의 접수처리

3) 증권시장의 조직과 증권매매 과정



4) 협동조합 기구표



<하는 일>

- 신용사업...저축, 농자금 대부, 송금
- 판매사업...농산물 판매
- 구매사업...생활 필수품, 농기구 구입
- 이용사업...기계, 시설 공동 이용

<하는 일>

- 신용사업...자금 대부, 저축
- 판매사업...수산물 판매
- 구매사업...어구, 생활 필수품 구입
- 이용사업...제빙, 냉동, 냉장, 가공, 기계 공동 이용
- 공제사업...정부 후원, 어민의 공제금으로 어업상의 재난 구제

※원양어업은 한국원양어업협회에서 관장.

6. 조세

1) 조세의 의미

세금 또는 조세는, 국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돈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경제생활을 직·간접으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

가 학용품을 사거나 음료수를 사먹을 때, 그 값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 봉급 생활자는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집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된다. 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국방, 치안, 교육, 경제, 사회 개발 등과 같은 공공을 위한 사업에 쓰여진다. 국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세우며, 국민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시설을 갖추어 운영한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 각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늘날의 모든 국가는 납세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말하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듯이, 재정수입(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도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거두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중요한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국민 스스로가 부담한다는 것과 국민의 동의없이 정부 혼자서 생각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조세의 종류

세금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시·도·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 정부가 지역 살림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다. 모든 사람은 나라의 국민인 동시에 지방정부의 주민이 되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내국세와 관세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며, 관세는 나라 밖으로 오가는 물품 등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3)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직접세라 하고,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사업 등으로 소득을 얻은 사람이 그 소득에서 직접 세금을 내므로 직접세에 속한다.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은 물건 값에 세금이 일정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이다.

간접세의 경우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서 사용·소비하는 사람이고, 물건 값에 포함된 그 세금을 모아서 정부에 납부하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업자이다. 이러한 간접세는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식을 비교적 약하게 갖기 때문에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금부담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세금을 물리는 관계로 세금부담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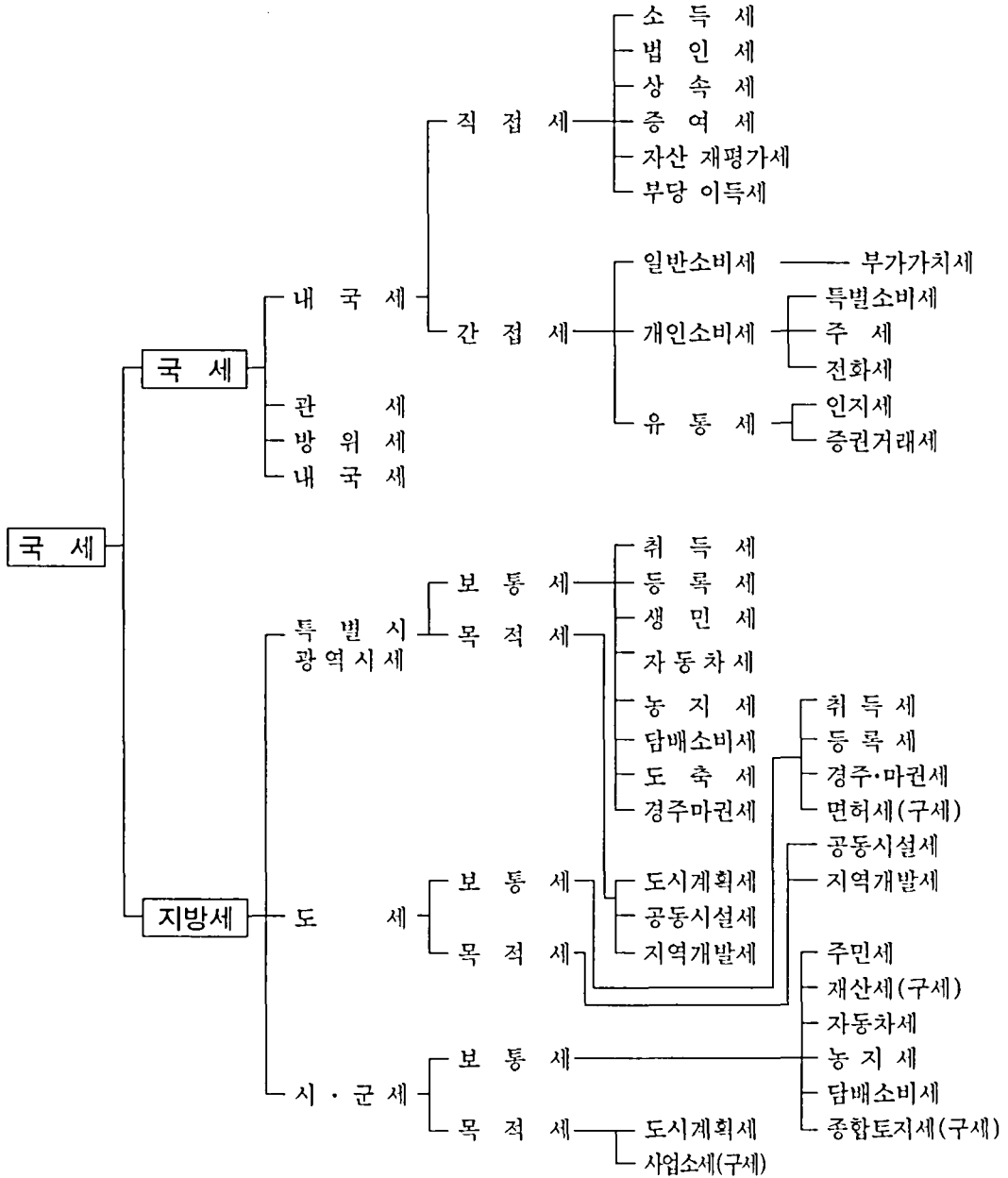
간접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다. 이러한 영수증은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영수증 주고 받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거 과세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낸 세금도 정부에 납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하여 우리가 낸 세금이 빠짐없이 정부에 납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을 거두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 일반적인 국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서 거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보통세이
나, 국세 중의 교육세와 지방세 중의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은 목적세이다.

조세의 종류



3) 조세제도

조세와 관련한 제도는 크게 나누어 첫째 납세의 의무를 확정짓는 방법(부과제도), 둘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징수제도), 셋째 세법에 위배된 행위를 제재하는 방법(처벌제도) 넷째 억울한 세금의 구제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구제제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과제도와 징수제도는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과도 관계되어 있다.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올바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납세자가 중심이 되어 '자기부과·자진납부(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납세의식 수준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정부부과·징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고납부 제도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제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고납부 제도

신고납부 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고 징수하는 부과징수 제도와 대비되는 제도이다.

신고납부 제도는 납세자 본인의 세무신고 및 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또 종결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방법 중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납부 제도는 자기 세금을 자기가 계산해야 하므로 거래 사실을 밝히는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증빙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장부는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납세자 본인에게도 영업실적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므로 이를 성실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제도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끝나게 되지만,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때에는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이를 바로 잡게 된다. 세무서의 이러한 활동을 '세무조사'라고 한다.

(2)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 제도는 세금의 부과징수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경제활동과 조세제도가 복잡하여지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도 따라서 번잡해진다. 또 봉급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일일이 월급 때마다 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것은 불편할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월급을 줄 때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내고 있다. 이렇게 떼어낸 세금은 회사가 봉급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는 그 간편성과 편리함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3) 가산세 제도

세금의 신고납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하도록 세법에 의하여 대부분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라는 일종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일부러 세법규정을 어길 때는 '벌금' 등의 보다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체납처분 제도

정부가 고지한 세금을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납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체납세금'이라고 한다.

체납이 되면 먼저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의 납부를 재촉하고, 독촉장의 납부 기한까지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

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또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가산금은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와는 달리, 고지된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은 데에 따른 이자 성격의 추가부담금이다.

(5) 억울한 세금의 구제

세금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세금이 잘못 부과되거나 세법규정의 해석 차이로 인해 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시정받을 수 있다.

국세에 관한 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당초 세금을 과세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에게 하여야 하나 세금이 국세청장의 조사로 결정된 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에게 곧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의 결과에 불복하는 때는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때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다. 심판청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때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때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를 해결하게 된다.

세금에 관한 분쟁의 첫 번째 해결기관이 세무관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세금을 매긴 해당 관청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이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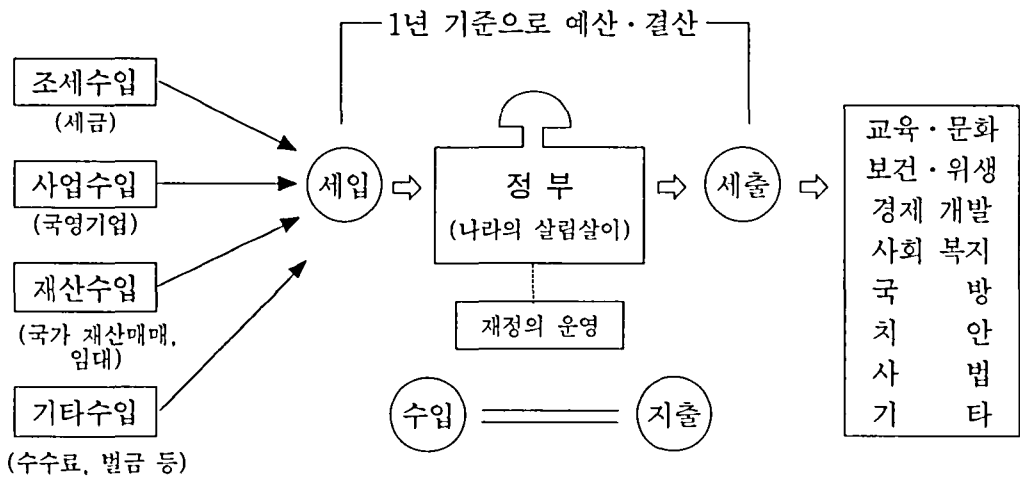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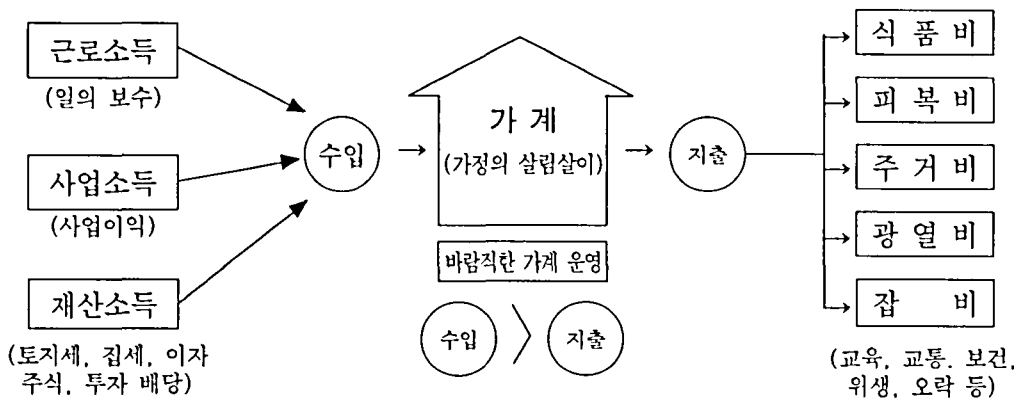
불복청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권리구제의 신청기간(60일)을 지키는 일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잘못된 세금이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한다.

세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서는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국세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방세에 관한 사무는 지방행정관서인 시·도·군청에서 담당하

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 중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밑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전국에 걸쳐두고 있다. 관세청은 국세 중 관세에 관한 사무를 보며, 그 밑에 항만·공항 등을 중심으로 '세관'을 두고 있다.

4) 가계와 재정



7.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란 한마디로 말하여 모든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제명의(실명)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가명 또는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가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것을 시정하고 실명거래를 의무화하는 장치가 바로 금융실명거래제도이다.

또한 실명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견지에서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것이므로 금융실명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포함한다.

결국 금융실명제는 경제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이 모든 금융거래를 자기 자신의 실제명으로 개설·거래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얻어 공평한 조세부담을 시켜 건전한 국민경제를 창출키 위한 제도이다.

8. 어음과 수표

1) 어음과 수표의 개념

어음이란 어음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인 약속어음과 어음발행자가 제3자에게 일정액의 지급을 위탁한 증서인 환어음으로 구별된다.

수표란 발행인이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에게 수표상의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한 증서이다. 가계수표는 은행과 가계당좌예금 거래약정을 맺고 구좌를 개설한 후 개인이나 기업이 발행한 수표를 말하며, 은행이 자기자신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자기앞수표라고 한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지급보증한 보증수표와 다름이 없는 수표라는 뜻으로 보증수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기앞수표는 발행할 때 일정한 금액을 확보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날 염려가 없고, 보관·휴대·계산에 편리하여 현금 대신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여행자수표란 해외여행자들로 하여금 현금의 소지에 따른 위험을 피하게 하여 여행지에서 그곳에 화폐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행자수표는 국내의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음은 물론, 호텔·음식점·상점 등에서 현금대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2) 어음·수표 취급시 주의사항

부도의 최대 원인은 지급인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기 때문이지만, 어음요건 기재의 불비로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어음을 받을 때는

-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가?
- 금액이 체크라이터로 찍혀 있는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가?
- 수취인이 틀림이 없는가?
-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금액을 정정하면 어음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므로 금액을 정정한 어음은 새로운 어음용지에 다시 작성해서 받아야 한다.
- 정정한 곳에 발행인의 수정인이 찍혀 있는가?
- 배서는 연속되어 있는가?
- 배서금지와 무답보 등의 제한은 없는가?
- 배서양도가 많은 어음은 위험하다.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발행인과 배서인이 되면 은행에서는 간단히 어음할인을 해준다. 그러나 발행인과 배서인을 신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돌려 버린다. 이와 같이 배서인이 많은 어음은 은행에서 신용하지 않는 불량어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 발행일과 수취인이 공란인 백지수표·어음을 받을 때는 빨리 공란을 기입하여야 한다.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해야 한다. 만약 지급제

시 기간이 지난 후에 수표를 받는 경우 보통 수표이든 자기앞수표이든 수표상의 권리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득상환청구권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발행일로부터 10일 후에 수표를 취득할 때는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제 4 장 한국사회의 이해

1. 머리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문제는 당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장래 남북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좋은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에 온 탈북자들 가운데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59%나 되는 등 사회정착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

이들이 사회생활에 정착한다는 것은 첫째로 직업을 마련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사회적 이질감이 해소되어야 하며 셋째로는 가정의 화목과 주변의 인간관계가 돈독하여 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사회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가와 사회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직 탈북자 자신이 한국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과목의 내용을 한국 사회의 특징과 생활 실상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한국사회의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생활자세와 인간관계가 중요함을 부각시키며 이에 기초한 가정과 노동(직업)생활 분야의 실상과 갈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탈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한 용어와 구어식 문체로 내용을 정리하려 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1)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2001.12, pp.37-47.

2. 한국사회의 특징

1) 고유한 민족사회

우리민족은 기원전(BC) 2333년에 단군왕검이 최초의 한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이래 4334년간 이 땅에서 하나의 민족사회를 형성하여 살아온 것이다.²⁾

장구한 민족사를 통하여 고유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독특한 의·식·주 생활의 습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의 변화과정 즉, 뉘, 결혼, 회갑 등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며 인간의 존재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³⁾ 인간의 행위규범으로서 '효도'정신을 비롯, 5가지의 윤리(「5륜행실」)⁴⁾를 지키도록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사회는 이 같은 전통적 민족문화가 현대화 과정에서 상당부분 변질된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정신문화가 60-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서구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변질되는 수난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적어도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전통 문화가 새로운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적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 내면의 본질적인 가치 개념의 변화는 아니라 하겠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과 김일성주의에 입각한 북한식 사회(「우리식 사회주의」)를 구축하고 이른바 '주체' 연호(김일성 생일 기준)를 새로이 만들어 사용하면서 민족문화를 변질시키려는 정책으로서 '형식은 민족적으로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려 하는 등 이질화를 조장하는 것이 남한과 다르다 하겠다.

2) 단군정신선양회, 「國祖檀君」(제2집), 1984.11, pp.37-60.

3) 우리민족은 교육사상에서 "인간이 만물 중에 제일 귀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4) 5륜(倫)이라 함은 인간의 기본적 윤리의 덕목으로서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함 .

2) 자유민주주의의 사회

한국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개념을 표방하는 사회로서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가지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창의와 노력을 하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누구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치생활을 하며 정당한 주장을 펼 수 있고 단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는 주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사회 질서가 형성되기까지는 4.19혁명 등 많은 정치 사회적 시련을 거쳐야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씩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보다 많은 개선과 발전이 요구되는 등 문제점도 없지 않다 하겠다.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전근대적 잔재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개인의 욕심과 입장을 지나치게 고집하여 민주적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지연이나 학연 등 배타적인 이기주의가 사회발전의 장애로 되는 일도 없지 않다 하겠다.

3) 자본주의의 경제생활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온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성장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이다.

〈표-1〉에서 보면 국민 1인당 평균소득(GNP)은 북한(761달러)의 12.7배인 9,675달러('00년 기준)이며 발달된 교통, 첨단과학의 정보 통신 그리고 다양한 시장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하는 사회이다.

누구나 자기의 재산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이는 법으로 보장된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는 물론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재산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만약 이 같은 침해가 있을 시는 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경제거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표-1〉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변화현상 비교

구 분	1975년		2000년		남한/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인구(백만명)	35.3	16.1	46.1	22.2	
GNP(억\$)	208	94	4,571	196	
1인GNP(\$)	573	579	9,675	761	

※ 자료 : 통일부 자료 참조

이 같은 경제생활의 원리가 북한식 집단주의 군중노선의 경제생활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소유는 소비를 위해 지급된 일정한 현금과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 개인의 경제활동은 국가의 경제계획과 당의 방침에 따라 집단의 일원으로서 생산과 건설을 위한 노동현장에 참여하는 것이다.⁵⁾

자본주의 사회에도 경제생활의 문제가 없지는 않다. 재산이 많거나 기술적 능력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상대적 빈곤과 위화감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 정책이 실시되며 각종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4) 남북분단의 사회적 부담

남북 분단의 영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바, 분단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만 희생자들의 유가족이나 혈육간에 서로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한은 사회저변에 커다란 응어리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일

5)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장 경제 (1980.10) 참조.

부를 제약해야만 하는 인권적 부담이 있고 막대한 국방비와 외교통일정책에 소모되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민족의 힘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분단이 가로막고 있으며 국제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양을 넘어야만 하는 등 한국사회는 마치 고립된 외로운 섬과 같다 하겠다.

이처럼 남북분단은 한국의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정신적 물질적 장애물이라 할 수 있겠다.

3. 사회생활의 이모저모

1) 행정구역 및 인구분포

한국의 영토는 헌법 규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22만 2천km²)라 하나 남과 북으로 분단(남:9만9천km², 북:12만2천km²)된 현실에서는 정부의 행정권이 미칠 수 있는 군사분계선(1953. 7.27 정전협정) 이남으로 제한된 상태라 하겠다.

현재 한국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 9도, 6광역시로 되어 있어 북한의 1특별시, 9도, 2직할시와 비교된다.

한국사회는 위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4천6백만명('01년도 추계)⁶⁾의 인구가 좁은 공간에서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989만명, 부산 366만4천명, 대구 248만명, 인천 247만5천명, 광주 135만2천명, 대전 136만8천명, 울산 1백만명으로 총인구의 절반이 대도시에 밀집된 상태이다.

이처럼 도시사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인력의 이동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6)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2001.9 및 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표-2〉 시·도별 면적, 행정단위 및 인구

구 분	면적(km)	인구(천명)	행 정 단 위			
			계	시	군	구
전 국	99,460.74	46,136,101	234	74	91	69
서 울	605.50	9,895,117	25			25
부 산	759.87	3,662,884	16		1	15
대 구	885.61	2,480,578	8		1	7
인 천	964.53	2,475,139	10		2	8
광 주	501.44	1,352,797	5			5
대 전	539.83	1,368,207	5			5
울 산	1,056.29	1,014,428	5		1	4
경 기도	10,135.21	8,944,134	31	25	6	
강 원 도	16,571.83	1,487,011	18	7	11	
충청북도	7,431.69	1,466,567	12	3	9	2
충청남도	8,586.44	1,996,456	16	6	10	
전라북도	8,050.07	1,890,669	14	6	8	2
전라남도	11,986.97	1,996,456	22	5	17	
경상북도	19,023.69	2,724,931	23	10	13	2
경상남도	10,515.49	2,978,502	20	10	10	
제주도	1,846.29	513,260	4	2	2	

※ 자료 : 통계청 발표 자료

2) 가정과 친족사회

(1) 가정

가정은 남녀간의 혼인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의 구성원은 부부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라 하겠다. 가족의 상호관계는 전통적으로 보아 어른과 가장을 축으로 하는 종적 유대관계를 이루고 부모 봉양과 부부간의 사랑을 일생동안 무조건적으로 수행한다는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대 가정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며 애정이라는 전제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의 불화가 발생되고 이것이 가정파탄이라는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혼인은 제도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본적지(읍, 면, 동사무소)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에 혼인 사실을 등재(기록)하여 합법적인 부부로 되며 혼인한 부부가 거주지의 행정기관(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하면 독립 세대의 가정이 탄생된다. 따라서 호적의 호주와 가정의 세대주는 다를 수 있다.

호주제도는 남성위주의 혈통계승이라는 전통적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의 계승 역시 장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경우는 다르다. 남편이 없는 부인이나 혼자 살아가는 독신 여성이 세대주로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한국사회의 가정은 전통적으로 3-4대(조부모, 부모, 부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 사회였으나 현대의 가정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가정을 마련, 1-2대(부부, 자녀)만이 생활하는 이른바 핵가족화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추세는 직업의 다양성과 환경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세대간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에 따른 갈등 역시 핵가족화의 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혼인(결혼)식의 풍속은 전통적인 관행과 서구식 방법이 원칙 없이 혼합되고 있는바,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사주 궁합을 맞추어 보거나 사주단자를 보내기도 하며 결혼식 후 어른과 친지들에게 인사하는 폐백의식을 드리는 등 구식을 모방하지만 결혼식은 서구식으로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예식장이나 정원에서 치르거나 또 임의대로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등 일정한 형식도 내용도 없다. 이뿐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과시하듯 초호화판으로 결혼식을 벌이는 등 허례와 허식, 사치와 낭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빈축을 사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결혼풍습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제각기 행하는 것이며

일정한 형식도 내용도 없다 하겠다.

(2) 친족관계

한국사회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혈연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문중(종파)이라는 족벌사회를 형성해 온 것이다. 전체 구성원을 기록하는 족보(동성동본의 명부: 「대동보」, 파계별 명부: 「파보」)를 소중히 여기며,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덕망을 전 문중의 자랑으로 과시하는 등 공동운명체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 같은 족벌관념은 현대화의 사회변화 속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희박해졌지만 아직도 혈연관계의 근본사상만은 유지되고 있다 하겠다.

특히 결혼문제에서는 사회 통념상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기시하지만 사회일각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관념을 파괴하려는 주장을 적극 전개하는 가운데 기존관념이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민법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범위(근친)를 친가의 8촌이내, 외가의 6촌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전통적인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을 벗어나는 길을 합법화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친간 금혼의 영역을 둔 점에서 보면 전통적 관습의 근본정신이라도 유지하려는 일면도 없지 않다 하겠다.

한국사회에는 친족간의 관계를 엄격히 규정하는바, 인척(10촌이내) 간에는 「촌수」를 규정하고 호칭 방식도 촌수와 대수에 따라 차별화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유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관계를 모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인격적인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족간의 호칭과 촌수는 나를 중심으로 설정되는데 형제를 2촌, 부모의 형제를 숙부 또는 백숙부(3촌), 백숙부의 자녀를 종형제(4촌)라 하며 조부의 형제를 종조부, 종조부의 자녀를 종숙부(5촌), 종숙부의 자녀를 재종형제(6촌)라고 호칭한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는 돌림자를 맞추는 관행이 있는데, 대를 달리 할 때 마다 5행 즉 화(火), 토(土), 금(金), 수(水), 목(木)이 들어가는 글자를 돌림자에 넣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일각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순수한 한글 표

현 방식인 이른바 「두리」, 「하나」 등으로 하는 등 항렬과 돌림자를 배제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처럼 현대 한국사회의 가정과 친족관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당부분 변질되고 있다 하나 사회 저변의 기본바탕은 여전히 전통적 민족사회의 정신 문화와 행동양식이 자리잡고 있는바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 하겠다.

3) 직업과 노동관계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자유로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한된 일자리에 수많은 노동인력이 자유롭게 취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아이엠에프(IMF)라는 혹독한 경제적 수난을 겪고 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편이며 이로 인해 취업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말은 차라리 실업선택의 자유라는 의미와 혼돈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경제규모상 방대하고 다양하다. 전체인구의 약 5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안정된 일자리(약 1만 8천여개)에는 623만여명이 종사하고 5인 이하를 고용하는 조그만 일자리(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에 비하여 5배 이상 된다.⁷⁾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영세한 규모인바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가족들이거나 시간제 고용 등 임시 고용된 노동자들이라 하겠다.

(1) 노동자의 고용 직종

한국사회의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표-3>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7) 김영모,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3, p.275.

〈표-3〉 고용관계별 직종

구 분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	사무직	서비스직	농어민직	기능직	기계직	생산직	기타	합계
고용주	33.1	4.9	6.8	1.5	34.0	2.1	13.2	3.3	1.1		100
자영업자	0.9	1.3	3.7	0.5	34.1	40.1	9.1	7.3	3.0		100
노동자	2.8	8.3	16.1	18.1	11.6	0.6	17.1	15.1	9.6	0.7	100
가사종사자	0.2	0.5	1.3	3.7	26.8	60.2	4.1	1.2	2.0		100
합 계	4.2	5.7	11.2	11.6	19.7	19.7	13.8	11.2	6.8	0.4	100

※ 자료 : 「인구 주택 총조사보고서」, 1995

즉 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분포된 직종은 기능직(17.1%), 기계직(15.1%), 생산직(9.6%) 그리고 서비스분야(11.6%) 등 육체노동 직종이며 전문직(16.1%), 사무직(18.1%)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고용자 가운데 상용 고용(정상적 취업)이 68.4% 정도이며 그 나머지는 임시적 고용(7.5%)이거나 아니면 무임금 고용(1.5%)⁸⁾이라 하겠다.

〈표-4〉 고용형태

구 분	상용	임시.일용	무급자	자영.가사	합계
고용비율	68.4	7.5	1.5	22.5	99.9

※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7

(2) 취업 및 임금

오늘 날 한국사회에서는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나머지 실업자가 늘어나 취업의 문은 그만큼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표-5〉를 통해서 보면 이른바 공개

8) 위의 책, p.278.

경쟁 방식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전체의 44.7%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지연, 학연, 청탁 등 이른바 인맥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도 44.3%나 되고 그 이외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서도 일부 채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산업별 취업경로

	공개채용	직업소개	학교소개	인맥소개	합계
전체산업	44.7	4.8	6.1	44.3	99.9
제조업	43.4	5.5	6.2	44.9	100.0
건설업	39.5	1.8	11.6	47.0	99.9
도·소매업	50.4	3.2	3.0	43.4	100.0
교육·서비스	55.3	0.9	17.8	26.0	100.0
부동산서비스	35.8	8.8	4.5	50.8	99.9

※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7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의 기술적 육체적 난이도(어려운 정도)와 노동생산의 부가가치, 그리고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라 하나 일률적으로 평준화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에는 임금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직의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하여 1.5배나 많으며 단순노동자의 임금은 이의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무려 63% 수준인바 남녀간의 임금 격차 현상이 상존함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학력간의 차이도 두드러지는바 대학을 나온 자는 고등학교를 나온 자보다 1.5배의 임금을 더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중학교를 나온 자보다 0.9배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⁹⁾

그러나 첨단 정보 산업분야나 기업경영 또는 금융관계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는 연봉제(연간 임금산정) 방식으로 많은 보수를 받는 등 말하자면

9) 위의 책, p.281.

소자본가의 수입을 증가하는 높은 임금의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서 학력보다는 기술과 노력이라는 능력이 바로 개인의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된다는 것이다.

4.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갈등

1) 사회구조 변화

지난 50-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 중심으로 사회계층이 형성되었는 바 토지가 많은 사람이 상위 계층이었으나 70-80년대 경제개발의 영향으로 무역과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의 상류 계층이 지주계층에서 자본가 계층으로 바뀌어진 것 등 사회의 계층구조가 변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의 인구구조도 변하였는데 지방의 젊은층이 도시로 집중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축소되고 도시인구가 팽창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1955년의 도시인구가 전국 인구의 24.5%였으나 1995년에는 전국 인구의 78.5%로 늘어난 것 등 지역간의 인구 이동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¹⁰⁾

한편 기업의 비대화 현상 속에 거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고 이에 맞서 대규모 노동자 집단(노동조합)이 형성된 것이며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마찰이 야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보다 더 많은 사회적 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 신소재 개발이나 초고속 정보 통신망 개발 또는 초정밀 기술의 발달 등 사회생활의 환경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고소득의 전문 기술인력이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계층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함께 소위 중산층을 두껍게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10) 위의 책, p.135.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계층간의 이동과 변화 현상이 수시로 일어나는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2) 사회 갈등

어느 사회라도 인간 사회라면 인간적 결함 때문에 갈등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사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겠다. 작게는 가정의 갈등 문제가 있고 크게는 노사 갈등, 세대간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가정의 갈등으로는 부부간의 불화를 지적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이른바 고부(며느리와 시어머니)간의 갈등, 노부모 부양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부부간, 형제간의 갈등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심지어 자녀 교육문제와 세대간의 갈등도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부부간의 불화는 자칫 이혼과 가정 파괴라는 위험한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부부관계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보면 서로 상대방의 존재 가치와 영역이 다름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가운데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일생을 함께 한다는 숙명적 관계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일각에서는 서구식 이기주의적이고 애정지상주의의 가치 관념에서 부부가 서로 이해 타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갈등 현상을 초래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하겠다.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역시 전통적 가치관으로 보면 무조건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무한한 자비심으로 대하는 사이라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 일각에서는 서로 자기를 위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바,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에서 경제적 조건, 정신적 육체적 조건, 나아가 가치관의 차이 등을 앞세우는 데에서 갈등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사갈등은 현대 한국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

다. 이른바 노사갈등이라면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에 맞서서 강력히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노동자들은 노동 3권(노동조합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의거하여 이른바 파업, 시위 등 집단적인 노동운동을 전개, 요구조건을 관철하려 한다. 이 같은 노사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는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까지 만 해도 임금 인상이나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경우(55.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당한 노동 행위(14.3%)와 해고(7.5%)와 관련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사간의 갈등 형태는 1990년이후부터 주로 노동단체의 활동형식으로 나타난다.

<표-6> 노사갈등 원인

	'75	'80	'85	'90	'95	비고
임금체불	24.0	70.5	23.0	3.1		
임금인상	31.6	20.4	31.7	51.9	37.5	
휴·폐업	5.3	2.7	4.5	1.9		
해 고	7.5	1.2	8.3	5.6	1.1	
부당노동	14.3		4.5			
근로조건	3.0	3.4	17.7	0.6		
단체협약				15.2	55.7	
기 타	14.3	12.4	10.3	21.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노동부, 「노동백서」

이외에도 직장내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탈북자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사회의 직장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사회의 직장은 자본주의 사회로서 국가나 정당 등 외부의 지시나 간

섭을 받지 않으며 직장내에 정치적 조직이나 감시 감독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바, 법에 의하지 않고는 고용주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종업원들은 조직의 위계질서에 순응하는 길 이외에 별 다른 대안이 없으며 만약 개인적으로 부당한 문제가 발생되면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행정 및 사법기관이나 노조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해소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탈북자들 가운데 이 같은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사소한 문제로 자칫 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화된 생활 환경과 물질적 풍요가 모든 이를 편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생활자세,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러한 여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탈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북한에서 전체주의 집단주의 생활에 익숙하다가 갑자기 전혀 생활방식이 다른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하나의 민족사회라는 특성에 따라 언어와 의, 식, 주 생활면에서 동질성이 있고 또 국가와 사회 분위기 또한 탈북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것을 바라고 적극 지원하려한다. 분단 극복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애국충정에서 탈북동포들이 한국사회에 순조롭게 동화되고 적응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당장에는 외롭고 살아나가는 일이 두려운 문제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굳은 의지와 인내심 그리고 근면 성실한 생활자세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행운이 따르리라 믿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고 개척해 나간다는 자주의

식이 중요하며 어느 누구의 도움이라도 이는 일시적인 도움이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친절이나 호의 속에 자립하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계심과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른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다. 생활 주변의 모든 이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가까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치가 인정되고 삶의 보람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소박한 진리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며 적어도 2-3년간은 세상을 관찰하고 인생 설계와 생활의 능력을 향상하는 일이 바람직하며 사회일각의 물지각한 생활자세 즉 일확천금을 꿈꾸는 허황한 생각이나 사치와 낭비, 허례 허식 같은 나쁜 생활풍습을 경계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성실한 생활 자세로 끈기 있게 살아나간다면 성공의 길은 그 만큼 넓고 밝아 질 것으로 믿는다.

제 5 장 한국문화의 이해

1. 새 사회,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현재 2,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는 북한인구를 대략 2천만 명으로 추산할 때, 약 0.01%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2001년 한 해 동안 6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입국함으로써 최근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들어오는 숫자의 증가와 함께 두드러진 현상은 가족 동반입국 현상이다. 최근 들어서는 먼저 입국한 가족들의 주선으로 제3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단독 입국한 후 국내에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약 5천만 명의 거대한 집단인 '남한인' 사회 속에서, 북한전체 인구의 0.01%에 달하는 2천명 정도의 '탈북동포'들은 어떻게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이 겪는 적응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적응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새롭고 낯선 문화 속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정착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가족동반 입국이든 단독입국이든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족동반의 경우 외로움과 죄책감으로부터 받는 충격이 적고 서로 조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 적응과정상의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첫째,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예비지식과 정보가 없어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주로 적응초기에 겪는 어려움인데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버스 노선도 모르고,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르고, 상식적인 물건값도 모르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사회의 초년생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가족동반 입국의 경우라도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라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족간의 가치관과 해석 차이로 논쟁이 벌어지면서 세대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둘째, 언어문제로 겪는 곤란이다. 언어 곤란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영어 및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남한에서 상용하고 있는 전문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 한자를 해독 못하는 것, 이북말씨로 인해 오해받거나 웃음감이 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이다. 언어문제만 해결되면 적응하기가 쉽겠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적에서 이 문제가 안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이는 주로 북한의 집단주의 사회와 남한의 개인주의 사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북한에서 교육받고 살면서 몸에 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남한사회의 그것과 다름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외로움, 그리움,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느끼게 되어 미적응 및 부적응 양상들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가치관 및 도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달라 받게 되는 혼란, 돈에 대한 가치인식의 미정립으로 인한 혼란, 탈출로 인한 죄책감,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차별의식에 대한 지나친 반응, 국가 또는 기관의존적인 소극성 등이 그 대표적인 양상이다.

다섯째, 경제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바뀔으로써 정착금이 줄어든 시기에 입국한 사람들은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실제로 심리적 불만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답답함,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한사회 부적응 양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경제적인 불만은 자신과 남한사람들과의 비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주로 자신과 다른 북한이탈주민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쪽 사람들의 무관심, 냉정함, 경멸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다. 이 현상은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문제가 체제경쟁의 이념적 차원을 벗어나면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개의 남쪽 사람들은 남한사회의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생활을 척도로 삼아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우호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를 남쪽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다.

일곱째,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지적 열등감, 사회적 지위가 북한에 있을 때보다 하락했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목표를 미리 사전에 고정관념화 시키고 거기에 맞추려는 심리 때문에 더욱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즉,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능력, 북한에서의 경력, 제3국에서 세웠던 기대치 등을 토대로 남한에서 성취하려는 목표를 실제보다 높게 잡기 때문에 적응초기단계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적응력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종교자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종교 자체를

신앙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과 동요를 나타내고 있다. 탈출 단계에서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교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도와 준 은인이 믿는 신을 의리로 믿는다는 심정을 갖곤 한다. 또한 착한 신, 좋은 신을 하나만 믿는 것보다는 여러 개 믿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무엇일까? 또한 북한이탈주민들간에도 세대간 갈등, 노인들의 적응 문제, 부부간의 갈등, 여성으로서의 갈등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유형과 특징을 갖고 있을까? 결혼과 관련한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육아나 자녀교육에서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가족동반 입국 이후 나타나는 특별한 양상은 무엇인지? 그밖에 겪는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세대간의 긴장 및 갈등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잃는 문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동반 입국 이후 일정 기간 적응교육을 거치고 나서 독립된 사회생활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초·중·고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 및 대학 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비교적 새로운 사회에 '과동화'(over-acculturation)되는 반면, 나이가 든 부모들은 주변적(marginal) 또는 표피적 동화만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중 나이가 많은 노인층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양상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 세대간의 긴장이나 갈등이 노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즉, 북한에서와 달리 새로운 정착지에서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계유지의 걸림돌이 되면서 노인들을 점점 더 위축시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익숙한 노인들은 서구식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진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식구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통제하려 함으로써 가족간 갈등을 종종 빚고 있다.

또한 주거형태가 대가족을 위한 규모가 아니라 주로 소규모 임대주택으로

분가하는 양상을 띠므로써, 기존의 가족유대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집안 어른의 감독과 통제를 벗어나 상대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의 부부간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아내가 남편보다 새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와 형편이 나을 경우 부부간 갈등이 어김없이 초래되고 있다. 정착 초기에는 청소, 식당 허드렛일 등의 일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이 새로운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정착 초기에 가족 내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가부장적인 의식이 강한 북한 남편들은 오히려 아내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아내로 인해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부간 사이가 이미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가장의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인식이 남편의 가정폭력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심각한 가정불화로 이어져 이혼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 사회에서 폭넓게 용인되던 남편 폭력이 남한사회에서의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여성 탈북자들의 '의식화'로 인해 가족의 역학관계가 바뀌거나 가정의 긴장이나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가부장적이고 유교적 전통이 강한 북한사회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점차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깨닫게 됨에 따라, 고부간의 관계, 시누이와 올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 변화가 초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 활동이나 문화센터 여성강좌 참가 등 사회활동을 경험한 이후, 북한출신 여성들의 의식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북남·북녀'의 결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북남·북녀' 결혼의 경우 심리적 안정과 부부간의 결속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른바 혈연·지연·학연이라는 '3연'이 없이 남한사회에 정착한다는 것이 얼

마나 큰 또다른 '고난의 행군'인가를 '북남·북녀'가 결혼한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육아 문제, 자녀 교육문제에 부딪힐 때, '북남·북녀'의 경우 갈등을 많이 겪고 매우 힘들어함을 보게 된다.

2. 한국 문화의 기원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나 신화가 있기 마련인데 이 신화라는 것이 때로는 정확한 검증이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화들은 고정 관념으로 자리를 잡은 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한국사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단일민족'의 논리일 것이다. 우리 민족의 원류가 북방계와 남방계로 이뤄져 있다는 것은 학계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일민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아마도 현대사의 비극을 겪으면서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정치인이나 역사학자들이 이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웠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민족은 북방계와 남방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밖의 소수 민족으로서는 내침족(來侵族·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온 종족)과 귀화인의 네 종족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유전자를 따져 보면 적어도 35개 이상의 혈통으로 이뤄져 있다. 태초에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태어난 이후 그들은 동이 트는 곳을 향해 한없이 이주를 하다가 몽골 대륙에 정착했으며, 그들의 일부는 다시 동진을 하다가 외딴 남쪽으로 흘러 들어와 지금의 한민족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곧 북방계 한민족이다.

한민족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들 북방계를 살펴보면 확연히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생기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지만, 그밖에도 북방계는 눈에 쌍꺼풀이 지지 않고 눈두덩이가 두꺼우며 뺨새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로 인구가 이동하던 2만 5000년 전에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눈동자의 동상을 막기 위해 실낱같이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코는 평퍼짐하고 광대뼈가 다소 튀어 나왔으며 모발은 굵고 뺨뺨하다. 북방계가 남하한 루트는 육로로 내려온 경우와 산둥반도 일대에서 출발해 서해를 건너 인천과 아산만을 통해 상륙한 경우, 동해안을 따라 해로로 남하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북부 해안 지방은 남쪽 지방에 속하면서도 북방계가 자리 잡았으며 그후 남방계의 북상과 함께 혼혈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곳은 남방계인지 북방계인지 구분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북방계의 남진 루트는 기이하게도 한국전쟁 당시의 피난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동쪽으로 계속 이주한 무리들은 얼음이 덮인 베링해협을 거쳐 미주 대륙으로 건너가 지금의 아메리칸 인디언이 되었고, 더 남쪽으로 내려간 종족들은 지금의 남미 인디오족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체형이나 얼굴 모습은 물론 북방계의 생활 습속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를테면 음식을 먹기 전에 고수레를 한다거나 세수할 때 푸드득거리며 뒷목까지 씻는 버릇이 그에 해당된다. 이러한 버릇은 몽골리안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남방계는 이와 달리 눈에 쌍꺼풀이 지고 코가 오뚝하며 북방계에 비해 피부는 다소 검고 꺼칠하다. 우리는 길을 가다 일본인을 만나면 그들이 일본인임을 육감적으로 알아본다. 그러면서도 어떤 점이 일본인의 특징이냐고 물으면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선 남방계는 얼굴의 모습이 북방계에 비해 좁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가름해 보인다. 턱의 모습을 보면 북방계는 다소 넓고 모가 진 반면에 남

방계는 하관이 빠르다. 이것은 육식을 주로 하던 북방 유목민족과 채식을 주로 하던 남방계의 진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머리칼은 북방계에 비해 더 가늘거나 보드랍고 곱슬머리인 경우도 있다.

남방계와 북방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체형이다. 북방계는 다리가 긴 반면에 상체가 다소 왜소해 보이고 손이 짧다. 기골이 장대한 듯하면서도 가슴이 좁은 체형은 북방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남방계는 손이 길고 상체가 발달해 어깨가 벌어졌으며 다리가 짧아 약간 안짱다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거의 같이 발달한 오늘날의 신세대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앓은키는 일본인이 더 컸고 선 키는 북방계 한국인이 더 컸다. 초원을 달리던 북방계의 다리가 더 길고, 밀림에서 생활하던 남방계의 팔이 더 긴 것은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남방계와 북방계를 구분하기 위해 더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단적으로 말해서 정주영씨와 박태준씨가 각기 북방계와 남방계를 대표하는 모습이다. 우리야 그들이 모두 한국인이거나 생각하지만 제3국인이 이 두 인물을 보고 같은 종족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본의 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다케시타 노보루가 동족이 아니듯이 정주영씨와 박태준씨는 전혀 다른 혈통의 한국인들이다.

북방계와 남방계의 이입은 전쟁에 의해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소위 내침족은 기왕에 터잡고 살던 사람들의 이주를 유발했다는 점에서도 인종의 혼혈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패잔병이나 잔류 병사들도 혼혈에 적지 않은 몫을 차지했다. 고대사에서의 전쟁은 접어두고라도 중근세 이후만 하더라도 거란의 침략, 몽골족의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35년, 군정기와 한국전쟁 등을 통해서 수많은 혼혈이 이뤄졌다. 전쟁은 '원치 않은 임신'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혼혈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혼혈의 특이한 현상으로는 옛날에도 귀화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귀화는 의도적으로 내한한 무리와, 바다를 표류하다 정착한 무리로 다시 나뉘어진다.

김해(金海) 김(金)씨의 시조인 수로왕(首露王)의 부인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인도계의 허(許)씨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며, 김해 수로왕릉의 문무상이 곱슬머리를 한 아랍계의 모습인 것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덕수(德水) 장(張)씨는 아랍계 상인이 이 땅에 정착한 사례로서 그들의 체형은 한국의 토종과는 달리 기골이 장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얼굴이 희멀겁고 달덩어리 같은 얼굴은 서방계이다. 화산(花山) 이(李)씨는 베트남의 왕족으로서 본국의 난을 피하여 떠돌다가 한국에 정착한 보트 피플의 후손들이며, 우록(友鹿) 김씨는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에 쳐들어왔던 일본인 장수 사야가 조선이 좋아 귀순해 사성(賜姓)을 받은 경우이다.

귀화인의 대중을 이루는 것은 역시 중국에서 들어온 성씨들이다. 예컨대 조선조의 명문 거족이었던 연안(延安) 이씨는 당나라의 군대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함께 온 장수 이무(李茂)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땅이 좋아 머물러 앉은 경우이며, 청해(淸海) 이씨는 여진족이고, 경주(慶州) 설(髙)씨는 위구르계의 귀화인이다.

이런 역사적 연유로 현대 민족주의에서 이미 혈통은 대체로 부인되고 있다. 요컨대, 역사적 운명의 공유와 일체감, 그리고 언어의 동질성을 민족의 본질로 삼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 점에서 본다면, 오직 혈통의 같음과 다름만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운운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3. 왜 빨리빨리인가

공기단축. 한때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짧은 시일 내에 완공을 하면 표창을 받았다.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그 공기단축에 있기도 했다. 하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표창하지 않는 게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공기단축엔 '부실'이 숨어 있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가 엇그제 일인데,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만든 청소년 수련원에 불이 나 무수한 어린 생명이 갔다. '빨리빨리병'의 혹독한 보복이었다.

비단 공사에 국한된 게 아니다. 네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고 단 1초라도 지체 하면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번쩍거린다. 거품도 아랑곳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맞은 IMF 사태로 '빨리빨리' 병치레를 톡톡히 한 우리. 하지만 아직도 음식점에 가면 "제일 빨리 되는 게 뭐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

왜 우리는 이리도 바빠까?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접하면 십여 년 전 읽은 주한 프랑스 특파원의 글이 떠오른다. 그 특파원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의 걷는 속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재미 삼아 서유럽 사람들과 비교해 봤더니 한국사람들이 1.5배는 더 빠르더라고 했다. 이런 지적을 보면서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우리들의 '빠름'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봉건적 잔재들이 일소되지 않은 채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압축하는 경험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덧 무조건 빨라야 한다는 '빨리빨리주의'가 우리 삶의 자연스런 모습으로, 절대 선이요 신화로까지 되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우는 말이 육두문자를 빼면 '빨리빨리'라고 한다. 대단한 '빨리빨리주의' 문화이다. 그 결과로 한국사람들의 스트레스 강도는 세계에게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아주 먼 옛날에도 우리민족이 그랬을까? '빨리빨리'가 우리 민족의 원래 기질인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유심히 사람들을 살펴보면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더더욱 신호가 바뀌기 전에 들어오는 노란 경보등에 이미 횡단보도를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모습도 흔히 목격한다. 지하철 매표구 앞이나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생각보다 진행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고개를 내밀고 기웃기웃 확인하는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고 고속버스나 열차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목적지에 다 도착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벨트를 풀고 짐을 챙기고 일어서는 사람

들 역시 우리백성들이다.

왜일까? 그리고 그러한 조급증적인 현상이 꼭 부정적인 것만일까? 오랜 세월 우리는 농경문화에 익숙하게 젖어 있었다. 기록이나 어릴 때의 기억에 의한다면 이러한 조급한 문화현상은 최근 40-50년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농경문화의 여러 특징 중의 하나는 정주형 즉 이사를 거의 가지 않는 형태의 주거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의 이사문화는 통계로 증명되듯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산업화를 들 수 있겠다. 농촌에서의 급격한 도시로의 이주는 삶의 형태를 농경사회에서의 유유자적한 행동양태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속도를 요구했을 것이다. 산업화에 충실히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 모든 것이 전보다 속도가 빨라야 했고 자연스레 의식도 행동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다. 의식은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회학적인 명제가 있듯이 말이다.

우마가 다니던 길을 자전거로 달리게 되었고 이어 조금 더 빠른 오토바이와 자동차, 거기에 빛의 속도로 주고받는 정보의 전달속도에 이르기까지 눈이 핑핑 돌 정도의 속도가 일상을 에두르고 있는 실정이니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빨라지는 것은 불문가지 현상이다. 따라서 이렇게 빠르다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닌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이 '빨리빨리' 증후군을 나쁘다고만 생각할까?

사실 따지고 보면 빠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과를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일 수 있다. 문제는 빨리빨리한다는 것이 대충 엉터리로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잘못 해석되어 부실과 부패의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에의 충실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엉터리들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재앙 때문이다. 건축 시방서의 규격대로 자재와 비용을 원칙대로 사용하여 시공하였다면 왜 성수대교가 생겨나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며 이런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하겠는가?

급속한 산업화가 가져온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원형질 '빨리빨리' 그 자

체는 어찌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과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면 그 '빨리빨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 민족의 문화 원형질이 되어 오히려 우리의 우수성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요즘처럼 실시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문화적 기질이 될 수도 있다. 빠르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4. 끈질긴 놀이문화 : 고스톱 문화의 정체

어느 시대이건 시대정신을 담은 문화적 행위가 있다. 그 행위는 통상 놀이 문화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시대적 상황이 권위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그 문화행태는 열병 비슷하게 창궐하게 된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변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화투놀이인 '고스톱'은 그 맹위를 떨쳐 새로운 세기인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니 당분간 문화행태계를 장기집권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 무엇 때문에 고스톱 열풍이 계속 부는 걸까? 그리고 고스톱은 뭘까?

해방 이후 도시나 농촌 불문하고 장소와 남녀를 불문하고 모였다 하면 하는 놀이가 고스톱이다. 언론에서 망국병이라 질타도 하고 풍속위반으로 벌을 줘도 없어지지 않고 끈끈하게 이어오는 한국인들의 유일무이한 친목도모 놀이란다. 지난 권위시절의 산물인지, 고스톱에도 형용사가 붙었다. 전두환 고스톱, 이주일 고스톱, 이런 식으로 000고스톱이라 명명되어 그 놀이의 근본을 변형시켜 지속적으로 즐기고 있다. 상가집에 문상을 가면 으레 상주는 화투 한 목을 주는 것이 예의가 되어 버릴 정도에 이르렀다.

우리의 인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일상화 되어 버린 고스톱 문화는 건전한 놀이문화인가 아니면 도박인가?

고스톱을 치는 많은 사람들은 고스톱은 건전한 놀이문화의 한 종류라고 혼

히 말하는데 그 기준은 애매한 것 같다. 고스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기도 했다. 다 놀고 나서 본전 생각이 나면 그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도박이고, 그저 잘 놀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락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고스톱을 치는 당사자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이 또한 애매하다. 결국 재미로 치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판돈 즉 금전의 문제 같은데 돈 없이는 재미가 없다는 사람이 많으니 이것도 문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이 땅 도처에서 벌어지는 고스톱 판을 어떻게 문화적인 행위로 파악하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떤 문화학자는 민화투에서 육백·나이롱뽕을 거쳐 고스톱으로 발전한 화투놀이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과정에 대입하여 분석을 한다. 특히 민화투에서 아무 쓸모 없는 '피'가 고스톱에 오면 가장 위력적인 존재로 변한 과정을, 우리 사회에서 민중들이 서서히 세력을 넓혀 가는 과정과 일치시킨다는 해석은 독특하며 일응 탁월하다.

그러나 뭐든지 한번 했다 하면 물불 안가리고 화끈(?)하게 해치우는 것이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돈내기가 목적인 도박에 '미치는 증상'만은 아무래도 병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 싶다. 중국인도 한국사람 못지 않게 도박을 좋아하지만 '잃는 한도'와 '따는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나 애틀랜틱시티 등 유명한 도박도시의 카지노에서는 화장실에서 걸레질을 하며 손님의 팁으로 연명하는 늙수그레한 한국사람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이 한 것은 고스톱 정도가 아닌 카지노 도박이다. 그러나 고스톱이 도박이나 아니냐를 떠나 도박의 덫에 걸려 재산과 가정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박이다. 작은 액수의 놀이든 큰 돈 먹는 카지노든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된다. 고스톱을 놀이로 받아들이는 더 깊은 안목이 필요하다.

5. 품앗이 문화의 정수 : 우리의 부조 문화

일생의 매듭 즉 돌, 결혼, 환갑, 장례 때 잔치를 베풀어 주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운다. 그 때마다 사람들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러 참석한다. 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당할 것 같아 기필코 간다. 이런 우리의 상부상조 문화에 대해 청나라 사상가 캉유웨이(康有爲)는 “조선인이 갖고 있는 뜨거운 마음의 표시”라 했다. 또 근대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인의 서로 주고받는 인심은 곧 그들의 친선과 국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어느 민족에게든 상부상조의 문화가 없지 않겠지만 특히 우리 민족의 서로 돕는 문화는 외국인의 눈에도 남다르게 비친다. 주위 사람의 애경사를 함께 거드는 부조는 한국인의 삶의 리듬이다. 지연, 혈연, 문화전통의 공유에서 우리나라의 정이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부조야말로 우리 민족 공동체 삶의 불문율이며 한 핏줄의 뜨거운 정이 엉켜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인 마음의 뿌리를 연구해오고 있는 한 교수는 우리의 부조 문화를 한민족 문화전통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법보다 더한 삶의 불문율로 보았다.

단군 너머 아득한 고대 북방 유목 시절부터 우리 민족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제도화해 냈다. 그 전통이 삼한시대로 내려와 한반도에 남긴 유적이 ‘소도’다. 부족마다 소도라는 성역이 있어 고대 유목민들은 그곳에서 음식 등 필요한 것을 얻었다. 자식과 부모를 잃고 먹을 것 없는 노인과 아이들도 그곳에서 지냈다.

이런 상부상조의 전통은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으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한국인의 정을 제도화해 내고 있다. 한 마을의 모든 일을 함께 하는 두레가 있다. ‘마을 사람 모여라, 논물 대고 범씨 뿌리고 벼베기며 타작 같이 하자’는 게 두레다. 농사의 시작과 끝에 우리는 그렇게 모여 막걸리 마시며 같이 힘을 나누며 살아왔다. 이 두레 마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쌀도 많이 수확하고 나무도 많이 해 같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함께 살아 일생의 매듭을 함께 넘으며 재미있게 살자는 것이 상부상조의 마음이다.

두레에서 이어진 전통 중 오늘도 흔히 말하는 품앗이란 게 있다.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은 반드시 되갚겠다는 것이다. 논의 모심기를 도와준 그 사람의 눈에 가서 그 일을 해주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며칠 밤을 새며 슬픔을 함께 하고 험한 산길에서 상여를 메주었으면 나도 반드시 그 일을 해주는 품, 일 나누기가 품앗이다.

이런 전통이 고을마다의 약속이 된 게 향약이고 그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 계다. 돌, 결혼, 환갑, 장례 등 대소사를 치르기 위해 서로 일정 부금을 모으는 것이 계다. 산업화 시대 지금은 금융기관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친목계, 향우회계 등이 끈끈한 우리의 정과 의리로 남아 있다.

“반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에 2-3만원 남짓, 혹은 그보다 더 크고 작은 돈 봉투들이 모여 식당 사용료, 잔치비, 폐백비를 다 치를 수 있었을 때 참 고마웠습니다.” 친척의 결혼식 때 축의금을 접수한 사람의 말이다. “내가 진정으로 고마웠고 축하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마음으로 부조금을 냅니다.” 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 한 사람의 말이다. 이처럼 초상이 나면 온 동네 아낙들이 쌀이며 달걀이며 식품들을 가지고 모여들어 전을 부치고 찌개를 끓인다. 남정네들은 천막치고 불피우며 고인의 덕담으로 밤을 새우다가 상여를 메고 나간다. 그런 정성이 현대 도시 생활에서 부조금이란 봉투에 담기는 것이다.

돌, 결혼, 회갑, 장례 등에 부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헤아리기 힘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 해 결혼 축의금만 2조원. 결혼 축의금보다 더 많은 장례부의금과 돌잔치에 건네는 금반지 한돈, 환갑·칠순 잔치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어렵하기조차 힘들다. 거기에 바쁜 시간을 쪼개 잔칫집에 가서 거들고 장지에 따라가는 것까지 돈으로 환산한다면 가위 천문학적이다. 그래서 수시로 날아드는 청첩장과 부고받기가 솔직히 겁난다는 아우성도 나온다. 때문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정의례준칙도 있으며 공무원·정치인은 부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령도 나온다.

한편, “정승의 개가 죽으면 조문을 해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는 불순한 주고받음이 우리 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에 끼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민족의 끈끈한 정과 베풀고 갚지 않으면 못 배기는 염치와 의리의 불문율, 이 사이를 ‘현대인의 알뜰한 이기심’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6. 장례문화에 녹아 있는 우리 의식

풀어헤친 머리에 굴건을 쓰고 누런 삼베옷을 걸치고 짚신을 신었다. 이마와 허리에는 동아줄을 매고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한다. 아이고- 아이고-. 부모를 잃은 죄인(상주)은 나흘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죽을 먹을 수 있다. 밤낮으로 조문객을 받아 절을 하고 곡을 한다. 마을 곳곳에 모셔뒀던 상여를 상두꾼 20여 명이 메고 장지로 향할 때는 상엿소리가 구슬프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나는 간다.”

망자를 묻고 집으로 돌아와 신주와 혼백을 안치한다. 곡을 끝내는 것은 삼우제를 지낸 이틀 후다. 돈을 받고 곡을 해주는 곡부(哭婦)까지 동원됐다. 1-3년씩 상복을 입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곡을 하고 제사를 지낸 뒤에야 탈상을 한다. 임종부터 탈상까지는 30여 단계의 의례를 치러야 한다. 7일장, 9일장이 보통이고 달을 넘기는 유월장(踰月葬)도 드물지 않은 것이 전통 장례 예절의 절차다.

까마득한 옛날 풍속 같지만 실은 1970년대 중반까지도 지방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다. 집에 불이 나자 조상을 모신 위패부터 들고 나 온다던 시절이었다. 오죽하면 ‘신주 모시듯 한다’는 표현이 있었을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요즘의 장례예절은 ‘짧게, 간략하게’로 치닫고 있다. 집에서 임종을 맞아도 ‘당연히’ 영안실로 모시고 간다. 전국장의업연합회 사무국장은 “국민의 80%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른다”고 말한다.

2000년 현재 전국에 병원 장례식장이 365곳, 일반 장의업소가 1천여 곳

이 있으며 전문 장례식장도 벌써 11곳이 생겨나 성업 중이다. 장의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호상소 설치에서 상복을 비롯한 장례물품과 접대음식, 고인에 식사를 올리는 상식에서 발인제, 봉분제에 이르기까지 장의사가 도맡아 처리해 준다. 상가의 역할은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접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유지되는 관습은 부의금 접수와 밤샘 조문객 접대다. 그러나 조문객은 망자에 대한 추억을 나누기보다 그들끼리 안부를 묻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 예전 상민들이 투전판을 벌였다면 지금은 고스톱을 치는 조문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기간은 대부분 3일장이다. 탈상도 1백일에서 49일, 1개월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삼우제만 마치면 바로 탈상을 하는 사람들도 30-40%에 이르는 것으로 장의업연합회측은 추산하고 있다.

화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화장하는 비율은 1998년 25%에서 2000년 2월 현재 55%로 급증했다. 국토의 묘지화를 방지하는 바람직한 추세지만 배경은 그렇지 못하다. 불교신자나 애국심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묘지난과 성묘 등 부담을 피하려는 편의주의가 겹쳐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요즘의 장례풍습은 전통과는 완전히 단절돼 있다. 절차 속에 숨어 있던 효도와 조상숭배의 정신은 찾을 길이 없다. 장례업자의 상업적이고 획일화된 절차에 유족들은 끼어들 공간이 없다”고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교수는 지적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느리게 변하는 것이 장례의식인데 한국은 너무나 급속하게 변했다는 데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공동체 사회에서 실리와 편의를 우선하는 개인주의 사회로 그만큼 빠르게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산업화·서구화·핵가족화·아파트 문화가 그 배경이다.

상여를 모셔두는 곳집, 장례를 위한 계조직, 호상을 서고 전범을 지도할 집안어른 등으로 상징되는 농촌 공동체 사회와 유교문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는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장례는 조문객과 친족집단 사이에서 상주가 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한다는 점을 인정받는 통과 의례의 의미가 컸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친족집단이나 공동체 내의 지위승계가 무의미해져 버린 데 전통단절의 주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예를 내세운 의례진행은 대부분 직장에서 생활하는 개인으로서는 배우기도 감당하기도 어렵게 됐다. 전통의례의 절차와 의미를 배울 기회도 없다. 이에 따라 전문 장례업자가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체 의식·효도 정신 등을 배울 기회도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국내학자들의 비관적인 견해와는 다른 해석도 있다. 12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외국인 교수는 “미국에는 없는 좋은 풍습”이라고 말한다. 삼일장에 걸린 조문과 접대, 음식과 술자리는 가족과 친지들이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과 여유를 준다는 것이다. 수많은 장례식에 문상을 갔다는 그는 “조문객들이 오랜만에 만난 기회에 인사와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살아 생전에 미리 수의를 만들어두는 풍습은 서양과 달리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장례식은 우리보다 더욱 간소하다. 전문 장례식장을 예약해 친지들에게 ‘6월 10일 18시’라고 통지해서 1-2시간 동안 ‘법요의식’을 치르는 게 전부다. 스님의 독경 속에서 한 사람씩 차례로 국화꽃을 놓고 묵념을 한 뒤 상주와 인사를 한다. 조문객은 부의금을 내고 다과를 대접받거나 차잔, 우산 등의 답례품을 받고 돌아간다. 영구차의 99%는 화장장으로 직행한다. 슬픔을 함께 할 공간은 거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빠져버린 형식적인 전통’이라도 외국보다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7. 우리의 의식문화

1) 숫자 3을 좋아하는 이유

3은 우리 민족이 특별한 애착을 갖는 숫자이다. 우리 민속신앙의 하나로 하늘과 땅의 매개자로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어주는 이 숫대 위에서도 세마리의 오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천, 지, 인의 삼재(三才)를 기본으로 음양의 조화가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숫자는 오랜 옛날부터 길수(吉數), 또는 신성수(神聖數)라 하여 우리 민족의 생활과 철학에 깊숙히 배어 있다. 유별나게 3을 선호한 우리 민족은 신화시대로부터 역사시대, 오늘의 과학문명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민족의 가슴에서 숨쉬고 있다.

단군신화에서의 환인, 환웅, 단군의 삼위일체적 존재는 곧 완성된 하나를 상징한다. 불교에서도 불(佛), 법(法), 승(僧), 이 셋이 모일 때 불교가 성립되며, 민속에서는 출산 후 금줄을 칠 때 아들의 경우 고추와 숫을 각각 세 개씩 매달았다. 사람이 죽으면 삼 년 동안 집안에 머물다가 승천한다는 믿음에서 3년 상을 치루었는데, 이처럼 3은 관혼상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과 속담, 격언 등에서 친근하게 사용돼 왔다.

우리의 전통춤에서도 그 기본이 어르고 맺고 푸는 삼박자로 되어 있고, 간장·고추장·된장의 3장은 기본적인 우리의 민족음식이다. 신을 모셔도 삼신을 모시며, 내기를 해도 삼세번을 한다. 한복에 착용하여 우아함과 화려함을 더해주는 장식용 노리개도 대부분이 삼작이다.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환웅은 천부인 3개를 받아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인간의 일 360가지를 다스렸다.” “삼신할매 덕에 나서 삼줄 끊고 삼칠일 금기, 만세도 삼창, 내기도 삼세판이니 ‘3’은 복이렸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유달리 숫자 3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군신화가 생성된 시대로부터 반만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신화를 잃

어 버렸다. 그러나 신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민족의 신화는 우리들 안방을 차고 들어와 삼신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산부인과가 드물었던 시대에는 아기를 받을 때, 누구나 삼신할매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삼신할매를 모르는 이는 없다.

삼신이 안방을 짐거하게 된 경로는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민족을 탄생시킨 삼신원형이 그대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탄생으로 이어져서 아기 낳는 안방의 신이 되었다고 본다. 삼신할매가 '빨리 나가라'면서 아기 엉덩이를 차서 생긴 몽고반점을 우리들 대부분은 가지고 태어났다. 몽고반점이야말로 북아시아 종족들 사이에서 서로간의 공통점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아닌가.

예전에는 아기 낳으러 안방에 들어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벗어놓았다고 한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산모는 모두 죽었을 운명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삼신은 바로 이런 여인들의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다. 아기의 건강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아기 낳아 반타작'이란 말이 있었다. 아이를 열 명 낳아서 다섯 명 정도가 살아남으면 괜찮은 '수확'으로 보았다.

전염병 등으로 어린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많았던 당시에, 의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머니들은 삼신에게 기원하여 해결하려고 했다. 아기가 커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도 삼신의 배려는 절대적이었다. 아기의 포태, 출산뿐 아니라 15세 정도까지는 양육을 도맡아준다고 믿었다. 삼신은 삼신할매, 삼신바가지, 삼신할머니, 산신(産神)이라고도 부른다. 대개 태(胎)를 보호하는 신을 삼신이라 하였다. 제주도의 <명진국 생불할망 본풀이>에서는 삼신할머니의 탄생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삼신할머니의 나이가 일곱 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인시에 옥황상제님이 불러서 '너는 인간세계에 가서 아기를 낳게 하는 삼신할머니 되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삼신할머니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아기를 낳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 아기를 낳게 해 주었다. 삼신할머니는 은가위로 그 아이의 탯줄

을 끓고 석자실로 잡아맨 다음, 더운물로 목욕시키고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는 한편, 미역국을 끓여 산모에게 먹였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산모에게 썩물로 목욕케 하고 태를 사르고 아기에게 배내 옷을 입혔다... 민간에서 삼신을 모시는 과정도 위와 같다. '삼줄(땃줄)'을 끓고 나와 생명 탄생이 이루어지면, 밥과 국 '세 그릇'을 바치며 '삼칠일'간의 금기를 행한다.

신체(神體)는 안방의 아랫목 시렁위에 모시며 '삼신바가지'와 '삼신단지'로 상징된다. 바가지에는 햇곡을 담아 한지로 봉하여 안방 아랫목 윗벽에 모셔두며, 단지의 경우에도 알곡을 담아 구석에 모신다. 지방에 따라서는 삼신자루라 하여 백지로 자루를 지어서 그 안에 백미 '3되 3홉'을 넣어 안방 아랫목 구석 높직이 매달아놓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역동적인 삼두일족응(三頭一足鷹) 부적을 만들어 부착했다.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가렴주구로 시달리던 민중들에게 세 개의 대가리를 가진 매는 강력한 힘에의 열망 자체다. 세 개의 대가리가 먹이를 쪼아보는 매서운 눈매를 통해 민중은 자신의 힘을 보이고자 했다. 민중의 항거를 담은 황해도 장산곶의 장수매설화도 그 같은 염원을 담은 것이다.

3은 저 홀로 쓰여지는 것만도 아니다. 3이 3번 반복되어 9를 이루면서 강한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을굿에서는 서말, 서되, 서홉으로 쌀을 준비하여 신성의 의미가 한결 강해진다. 아홉수라고 하여 29살에 결혼을 피하는 관념 속에는 이미 '삼재'라고 하는 액이 3번 반복된 마지막 해라는 계산법이 숨겨져 있다.

아기를 낳고 금줄을 치면서 몸조리를 하게 되는 삼칠일(21일간)에도 7이 3번 반복된 의미가 담겨 있다. 삼현각, 삼정승, 육판서처럼 3과 3의 배수인 6이 결합하여 강조되기도 한다.

무언가 잘못을 하고서 부지런히 도망을 칠 때, 우리는 '삼십육계' 줄행랑을 친다고 말한다. 3이 열두 번이나 반복되었으니 대단한 속도감을 뜻한다. 여기서 열두 번은 대단히 많다는 속뜻을 지니고 있다. 반복은 좋은 것을 더욱 좋

게 만든다. 우리는 늘 홀수가 두 번 겹친 것을 선호했다. 1월 1일의 설날은 말할 것도 없고, 3월 3일의 삼짇날, 5월 5일의 단오, 7월 7일의 칠석, 9월 9일의 중구절을 중시했다. 어느 누가 2월 2일, 4월 4일, 6월 6일, 8월 8일, 10월 10일을 중시하는가.

3은 양수(陽數)이고 길한 숫자인 탓으로 양수가 겹쳐진 삼월 삼짇날 따위를 길일로 친 것도 반복의 원리이다. 삼월 삼짇날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며 냇가의 버들강아지도 눈을 트고 모처럼 기지개를 펴게 되는 길일이다. 중국사람들 최대 명절인 9·9절도 바로 3·3이 반복된 결과다. 이 날은 양기가 그득하여 천지만물이 힘을 얻게 된다고 믿어왔다.

2) 태극에 담긴 의미

태극기는 흰 바탕에 태극문양과 건(乾)·곤(坤)·감(坎)·리(離) 네 개의 괘로 이루어져 있다. 흰 바탕은 고대부터 백색을 숭상한 우리 민족의 순수한 동질성을 상징하며, 가운데 태극의 '양'은 상천(上天)을 의미하는 붉은 색이고 '음'은 하천(下天)을 의미하는 푸른 색이다. 태극은 세계의 중심이 되며, 변화 속에 내재된 변하지 않는 궁극적 실체를 상징한다. 이와 함께 태극기의 태극문양 전체는 인간을 상징하여 인간중시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태극을 둘러싼 괘 중에서 '건'은 하늘·봄·동쪽·인(仁)·천도(天道)로서 지선(至善)과 지공(至公)을, '곤'은 땅·여름·서쪽·의(義)·지도(地道)로서 후덕함과 풍요를, '감'은 해·가을·남쪽·예(禮)·수성(水性)으로 지혜와 활력을, '이'는 달·겨울·북쪽·지(智)·화성(火性)으로 광명과 정열을 상징한다. 또한 양의 머리를 건, 음의 머리를 곤, 소양(少陽) 감과 소음(少陰) 이(離)를 중간에 배치해서 무궁한 순환·발전을 상징하고 있다.

3) 사상의학과 음양오행

사상의학은 1894년 조선의 한의학자 이제마(李濟馬)에 의해 제창된 것으

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며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체질의학이다. 사상(四象)은 『주역』의 음양의 원리를 따른 것으로, 음과 양의 양의(兩儀)를 한 단계 발전, 분리하여 태양(太陽), 태음(太陰), 소양(少陽), 소음(少陰)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분류된 체질은 각각의 성격, 심리상태, 내장기의 기능, 생리, 병리, 약리, 섭취하는 음식성분 등이 다르고 질병의 치료방식도 다르다. 사상의학은 음양의 무궁한 변화의 논리를 사람에게 적용한 의학으로, 단순히 밖으로 나타난 질병의 치료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있다.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양인(太陽人)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둥글며 목덜미와 뒷머리가 발달되고 하관이 빠르며, 눈은 작으나 청각은 예민하다. 몸이 야위고 허리가 가늘며 하체가 약해서 오래 걷지 못한다. 식성은 찬 음식과 담백한 맛을 즐긴다. 적합한 음식은 새우, 조개, 굴 등의 해산물과 포도, 감, 모과, 앵두 등의 과일, 그리고 메밀과 야채 등이다. 부적합한 음식은 쇠고기, 설탕, 무, 조기 등이다.

(2) 태음인(太陰人)

태음인은 대개 체격이 크고 골격과 근육이 발달되었고 허리가 굽다. 하체가 상체보다 더 발달하였고 살이 쉽게 찌며 몸이 둔한 편이지만, 이목구비는 크고 후각이 예민하다. 변덕이 심하나 지구력은 강하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다 잘 먹으며 적합한 음식은 미역·김 등의 해산물, 배·호두·은행·복숭아 등의 과일, 도라지·무우·토란 등의 야채, 찹쌀·들깨·콩·밀·율무 등의 곡식, 그리고 두부, 흑설탕, 쇠고기, 생선류 등이다. 부적합한 음식은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그리고 사과, 배추 등이다.

(3) 소양인(少陽人)

소양인은 가슴이 발달하고 하체, 특히 다리가 약하며 골격이 가늘다. 대체로

마른 사람이 많고 턱이 뾰족하며 입술이 얇고 시각이 발달되어 있다.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이며 겨울에도 냉수를 찾는 사람이 많다. 적합한 식품은 돼지고기·오리고기·달걀 등의 육류, 새우·해삼·게·복어 등의 해산물, 포도·참외·수박·배·사과·딸기 등의 과일, 배추·호박 등의 채소, 보리·팥·녹두·메밀·조 등의 곡물이다. 부적합한 음식은 닭고기, 쇠고기, 옛, 꿀, 인삼, 우유 등이다.

(4) 소음인(少陰人)

소음인은 하체보다 상체가 튼튼하나 소양인과는 반대로 가슴이 약하다. 살과 근육이 적고 뼈는 굵으며 하체가 길고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이목구비는 크지 않지만 조화를 잘 이루어 미남미녀가 많다. 세심하고 내성적이며 치밀하고 착실한 반면, 질투가 많고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이나 더운물을 찾으며 찬 것을 싫어한다. 적합한 음식은 닭고기·양고기·개고기·염소고기·꿩고기 등의 육류, 명태·고등어·조기 등의 수산물, 대추·사과·복숭아 등의 과일, 미나리·시금치·파·마늘 등의 채소, 맵쌀·찹쌀·좁쌀 등의 곡물, 그리고 꿀, 옛 등이다. 부적합한 음식은 메밀, 배추, 배, 수박, 참외, 오이, 밤, 녹두, 보리, 우유,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양은 음양오행 사상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는 음(陰)과 양(陽)의 소멸·성장·변화, 그리고 음양에서 파생된 오행(五行) 즉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의 움직임으로 우주와 인간생활의 모든 현상과 생성소멸을 해석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음양오행 사상은 중국의 전국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던 음양설과 오행설이 결합된 것도 바로 이 시기로 여겨진다.

음양오행 사상은 고분의 벽화, 비석의 귀부(龜趺), 오경박사(五經博士), 역박사(易博士), 감은사지의 태극도형, 『삼국유사』의 음양사상이 나타난 설화 등의 존재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 전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음양오행의 조화 즉 우주만물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한 음양오행 사상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일상생활에 오랫동안 내재해 왔다.

4) 민간신앙

무당이 굿을 하면서 신과의 교감상태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바람, 혹은 신명난다고 한다. 신바람과 같은 샤머니즘의 이러한 감성적 심성은 한국문화의 기본적 특성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온 민간신앙을 비롯하여 외래종교인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등 수 없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의 다종교 상황은 한국문화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자, 곧 한국인 삶의 원형이다. 특히 넓은 뿌리와 역사를 가진 민간신앙은 무속, 마을제사, 가정 신앙, 점복, 주술 등으로 폭넓게 전승되었으며,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불교문화, 조선 5백년의 유교, 근대 이후의 기독교 등 외래종교 안에도 그 요소들이 잠복돼 있다.

또 민간신앙은 외래종교의 조직이나 교리 등과 융합하여 동학이나 증산교와 같은 자생종교로 성장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민간신앙 자체는 무속을 비롯한 판소리, 마을제사와 농악들처럼 민속예술과 전통문화 보존의 뿌리를 이루어왔다.

8.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1) 온돌에 담긴 문화

‘등 따습고 배 부르니 ~을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등 따습고 배부른 기초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에게서 ‘등 따스우면 배부르다’는 속담도 있다. 추운 날 찢찢 끓는 방에 누워 있으면 배고픈지조차 모른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 따스함은 먹는 것보다 더 원초적인 욕구다.

신라 선덕여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뽕나무와 양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덕을 쌓아 삼국통일의 초석을 놓았다. 뽕나무는 음식을 끓이고 몸을 데울 뿐 아니

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불을 만든다. 그 땀나무의 불과 돌이 만나 움집의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 아파트 시대까지 우리 민족의 몸과 마음을 따뜻이 감싸 주고 있는 것이 온돌이다.

온돌을 데우는 땀나무는 산업화에 따라 연탄으로, 경유로, 도시가스로 달라졌지만 방바닥을 데우는 온돌의 온기는 여전하다. 40대 이상 세대들은 아궁이와 부뚜막, 아랫목이 까맣게 달아오른 온돌방의 추억을 지금도 따스게 간직하고 있다.

찬 봄비가 주룩주룩 내려 몸과 마음이 녹눅해지면 그때로 돌아가 아궁이에 불도 지피고 아랫목에서 등도 '지지고' 싶다. 이런 민족의 정서가 세계에 유례 없이 아파트에 온돌방, 거실을 설치했는가 하면 온돌 침대를 낳고 도심의 찜질방이 성황을 이루게 했다.

'고구려 사람들은 짚으로 지붕을 잇고, 겨울에 긴 구들을 만들어 따뜻하게 하였다'고 당나라 역사서 『신당서』(新唐書)는 적고 있다. 당나라에는 없는 고구려만의 특색이었던 것이다.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땅을 깊이 파내려간 움집 한가운데에도 불을 지피는 노(爐)가 갖춰져 있다. 고고인류학자들은 난방, 취사, 조명 기능을 했던 이 노가 가옥의 구조 변화와 함께 온돌로 발전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복합 기능을 가진 노가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 난방을 위한 방 가운데의 노와 취사를 위한 구석의 부뚜막으로 나뉘게 되고 다시 노와 부뚜막이 합쳐 아궁이, 구들, 굴뚝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온돌 형태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렇게 삼국이 정립되기 훨씬 이전인 기원전 3세기 경부터 우리는 온돌에 등을 데우며 살아온 것이다.

온돌 구조는 크게 불을 때는 아궁이, 불길과 연기가 지나가는 고래, 고래를 덮는 구들장과 굴뚝으로 나뉜다. 이런 온돌에도 수천 년 동안 궁리하고 발전시켜온 조상들의 지혜가 구석구석 배어 있다. 아궁이와 고래 사이로 불이 넘어가는 부넘기 혹은 불고개라는 턱을 둔 것은 열기와 연기의 역류를 방지하며 고래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하며 다시 고래가 끝나는 곳을 우묵하게 낮춘 개자

리는 열을 마지막까지 활용하면서 굴뚝 등을 타고 들어온 빗물의 역류도 막아낸다. 불길을 많이 받는 아랫목은 두꺼운 구들장, 윗목은 좀더 얇은 구들장을 얹고 그 위에 황토 등의 흙을 바른 것이 온돌방이다.

불을 때어 구들을 데우는 전통 아궁이는 산업화와 함께 도시에서 연탄 아궁이로, 다시 보일러로 바뀌었다. 고래도 이제 불길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나 전기 열선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온돌의 전통을 악착같이 계승해 등을 따습게 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우리의 인사는 등 따습게 잘 주무셨냐는 말입니다. 온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등골이 식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에 누워 따스한 온기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있음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불과 돌과 흙이 어우러져 순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온돌입니다.” 돌 문화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 교수는 나무와 불과 돌과 흙이 순환하며 빚어내는 온기, 태초의 생명이 온돌이고 우리는 거기에 누워 매양 편안하게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곧 불이면서도 어머니 양수 속 같은 재생의 공간이 온돌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비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무스름한 운모류의 판석은 열에 강하고 열전도율도 낮아 오랫동안 열을 머금을 수 있어 구들장으로 많이 쓰인다. 이 판석이 열을 받으면 원적외선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나왔다. 따스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에 바닥난방인 온돌은 스팀난방 등에 비해 아래로부터 위까지 따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난방법이다.

이런 온돌난방을 현대화·세계화하기 위해 1996년에 구들학회가 창립됐다. 건축·열역학·문화 관련 교수와 온돌개량 사업가 등 3백여 명의 회원을 가진 이 학회는 한해 두 차례 세미나 등을 개최, 우리 민족 문화와 생명의 뿌리인 온돌을 탐구하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평생을 온돌 현대화를 위해 힘써온 한 전문가는 “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는 바닥난방이 과학적이며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돼 공업회 등을 결성

하고 있는데 정작 종주국인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다”며 사라져가고 있는 구들명장들을 한시바삐 인간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요망했다.

“온돌은 우리 민족 생명의 그릇이며 문화의 바탕”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따스한 온돌에서 생명의 위안을 얻는다. 그 따스함이 현대의 스트레스를 불끈 땀으로 밀어내며 또다시 삶의 의욕을 불려일으키게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 특유의 축각문화

우리나라 의식주 풍습에서 무엇을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꼽는가. 의생활에서는 백의풍습, 식생활에서는 된장 같은 장(醬)풍습, 주생활에서는 구들을 꼽는다. 흰옷이 차츰 사라져서 원색문화가 대체하고, 된장도 어린아이들은 덜 먹는 분위기인데 반하여 구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구들문화의 중요한 특징은 의식주 생활풍습 가운데서 전통의 현대적 적응력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데 있다. 수천 년 세월을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초현대적 생활에까지 이어져서 21세기로 온전히 넘어가고 있는 풍습이 또 있을까? 땀감용 구들, 연탄구들, 보일러와 전기를 쓰는 개량구들을 거쳐서 온돌침대마저 등장할 정도로 전통의 지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구들은 바로 축각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일 것이다. 그 축각문화란 직접 접촉을 통한 문화를 말함이다. 펄펄 끓는 아랫목에서 산모가 몸을 푸는 곳,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운명을 다할 때 자손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쥐던 곳.

그러므로 구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우리 식의 축각을 키워온 셈이다. 외국여행을 오랫동안 하다가 감기라도 들라치면, “아, 구들방이 그림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몸이 찌뿌드드하면 아랫목에 몸을 지져야 거뜬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락없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겨울의 따듯한 방바닥과 여름의 시원한 방바닥은 직접적 축각문화의 상징이다. 구들은 천천히 데워지고 식는 것도 느리다. 우리 민족의 속성인 은근과 끈기도 바로 구들에서 나왔을 것

만 같다.

일본은 습기를 피하여 다다미를 깔고 살며 방 가운데에 화덕을 둔다. 중국 북부 사람들은 캉(抗:방 일부에만 구들을 까는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우리 구들이 신발을 벗는 좌식 생활임에 반하여 캉은 입식생활이다. 따라서 구들은 우리민족만이 창조해낸 독자적 앗은 문화로 인정된다. 우리의 가구배치, 활동 환경, 방의 쓰임새 등은 모두 앗은 문화에 알맞게 이루어졌다. 침대와 소파가 들어 왔지만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은 앗은 문화를 선호한다.

구들은 앗은 문화와 선 문화의 양대 문화권을 구분하게 만들며, 오늘날의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쓰는 문화로 볼 수 있겠다. 앗은 문화는 바로 축각문화로 번역하여 쓸 수도 있다. 겨울철 뜨거운 방바닥에 등을 지지고, 여름철 시원한 구들장에 배를 지지는 식의 접촉문화가 우리의 구들문화다. 전기밥솥이 탄생하기 전만 해도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를 위하여 주발에 담은 밥을 아랫목에 넣어 구들과의 접촉을 이루게 했다.

그리하여 구들과 똑같은 온도의 밥을 먹게끔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인생의 2/3 이상을 바로 접촉문화의 끈끈한 직접적 정서 속에서 살아온 셈이 아닌가. 앗은 문화, 축각문화, 구들문화는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구들에서는 황토방의 기가 직접적으로 올라온다. 육체적으로 직접적인 체감온도를 기와 함께 전달받는다.

반면에 서양건축은 간접적인 난방에 의존한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의 집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구들방을 가지고 있다. 1930년대 스탈린의 억압정책으로 멀리 원동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쫓겨가면서도 끝내 버리지 않았던 문화가 바로 구들이다. 그네들은 모두 러시아식으로 생활습관이 바뀌었으나 밥상만큼은 앗아서 받는다. 직접적 축각을 즐기는 민족임에 틀림없다.

접촉을 통한 축각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식생활에도 있다. 우리말에 음식 맛은 손맛이란 표현이 있다. 어떻게 음식 맛이 손맛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음식을 잘 만드는 명인들은 고무장갑 따위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 나물을

무칠 때, 손으로 양념을 대충 넣어서 손으로 무친다. 대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정밀도의 결과물이다.

1/2 티스푼, 20g 따위의 계량측정법이 아니라 손의 촉각을 통해서다. 손맵시를 위하여 장갑을 끼거나 손가락 따위로 음식을 버무리면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 손끝을 통하여 감지되는 절묘한 양념의 맛, 그리고 손으로 구석구석 주물러서 양념이 속속들이 배어들게 하는 기술 등이 결합되어 음식 맛을 높인다. 손의 촉각이 음식명인의 비결인 것이다.

식생활의 접촉성은 두레밥상에서도 드러난다. 대개 서양의 식탁은 장방형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각진 교자상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집안 식구가 먹는 상은 둥근 두레밥상이다. 접촉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국물음식의 공유이다.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찌개그릇에 저마다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보고 깜짝 놀란다. 음식점에서는 위생문제를 위하여 대개 작은 그릇을 내놓아 덜어 먹게끔 하지만, 집안에서 가족단위 식사에서는 여전히 손가락을 집어넣어 국물을 공유한다. 냄비에 라면을 끓여놓고 친구들이 둘러앉아 저마다 젓가락을 들고서 매달리는 풍경은 음식에서 접촉성에 관한 너그러운 관습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서양인들은 인사를 할 때 키스나 포옹을 즐긴다. 그런 장면을 보고서 외국인들은 접촉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초면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키스로서 인사하는 방식을 강한 접촉성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육체적 촉각은 어떻게 발동되고 있을까. 여고생이나 여대생이 손에 손목을 잡고 걷는 모습이 매우 흔하다. 좁은 인도에서 서너 명이 한꺼번에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일도 흔하다.

서구에서는 여성들이 레즈비언(동성애자)이 아닌 이상 팔짱을 끼고 다니는 일은 좀처럼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육체적 촉각은 직접적 접촉성을 통하여 강하다고 표현된다. 우리말에 어깨동무란 표현이 있다. 글자 그대로 친구 사이에 어깨동무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다. 친밀감의 표시에서 어깨를

없는다. 술꾼들이 취흥이 일면 자연스레 어깨를 엮는다.

재미교포들이 왕왕 문화적 관습의 차이 때문에 이웃집 소녀가 예쁘다고 안아주다가 성폭행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 남녀가 백주 대낮에 키스하는 일을 기피하는 문화가 강한 것에 비하면,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뽀뽀라는 관행으로 사실상의 키스를 허용하는 이중적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바뀌고는 있지만, 이웃집 아저씨가 유치원 다니는 이웃집 소녀에게 예쁘다고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뽀뽀하는 행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부루스 같은 춤은 당연히 서구문화이다. 꺼안고 추는 춤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손에 손을 맞잡고 원을 지어 추는 강강수월래 같은 접촉성은 널리 관습적으로 행해진다. 모임이 파할 때, 중요한 계기에 공동체의 단합을 꾀할 때, 가령 어떤 모임의 끝에 우리의 소원 같은 통일노래를 부르면서 손에 손을 맞잡는 전통이 강하다.

손에 손을 통하여 전달되는 강한 촉각의 전염을 즐기는 편이다. '접촉감염'이란 학술용어가 있다. 이는 접촉을 통하여 어떤 상징적인 결과물이 탄생된다는 뜻이다. 도깨비문화가 그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도깨비는 변신에 능하다. 옛사람들은 손때 묻은 빗자루나 부지깥이, 절구공이 등이 도깨비로 변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왜 하필이면 손때 묻은 빗자루 따위일까. 사람 손때가 묻었다는 말은 이미 영물이 되었음을 뜻한다. 비록 하찮은 물질이라도 접촉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러한 물건들은 반드시 태워 없애는 습관이 있었다. 골동품상에서도 손때 묻은 물건을 높게 친다. 새 장롱보다는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한 물건을 높게 친다. 손때는 곧바로 접촉의 결과물이다.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고인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쓴다.

이쯤 설명해 놓고 보면 우리의 접촉문화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인들의 키스를 보고서 접촉성이 강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어깨동무를 통하여 전혀 다른 접촉성이 강함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끈끈한 공동체적 상부상조하는 문화도 이 같은 접촉성에서 나왔으니 우리문화 속의 축각에 관한 주제는 그야말로 화수분처럼 꺼지지 않을 것이다.

9. 우리 민족의 놀이문화

놀이란 말은 놀다의 어간 '놀'에 명사형 어미 '이'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노름, 놀음, 노래 등 '놀'자 계열의 다른 파생어들과 마찬가지로 일에서 벗어나 오로지 즐거움을 얻기 위한 자발적 참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땅따먹기,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돌차기, 말타기, 숨바꼭질, 두꺼비 집놀이... 적어도 40대 이상이라면 이름만으로도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 시절의 놀이들이다. 딱히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는, 같이 놀 친구 몇 만 있으면 족히 한나절을 즐길 수 있었던 이들 놀이에는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무언의 규칙과 지난 시절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서너 명의 아이들이 짝을 지어 땅바닥에 적당한 크기의 원이나 네 모를 그리고, 각기 한모퉁이에 자기 집을 정한 다음 손가락으로 돌을 튀겨 세 번 안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땅따먹기에는 농경민족의 토지 확대 열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놀이는 도시화 과정에서 아스팔트가 맨땅을 뒤덮어버린 요즘엔 농촌에서조차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정1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관직도를 그려놓고 주사위를 던져 그 점수만큼 앞으로 나가는 종경도(從卿圖)놀이도 마찬가지다. 양반들의 벼슬에 대한 욕구를 읽을 수 있던 이 놀이는 조선왕조가 망하고 일제통치가 시작되면서 사라져 버렸다. 원활한 식민통치를 수행하기 위해 일제는 조선 땅에서 행해지는 놀이들을 조사했다. 총독부가 1930년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 등을 인용해 만든 일문판 '조선의 연중행사'와 1941년 발행된 '조선의 향토오락'은 바로 그 결과물이다. 특히 1931년부터 5년간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를 통해

조사한 것을 정리한 '조선의 향토오락'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던 놀이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어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이 책에 수록된 놀이 가운데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그네뛰기 등 세시풍속과 관련있는 놀이들과 씨름, 팽이치기, 숨바꼭질 등은 지금도 남북한 모두에서 행해지는 놀이들이다. 서울 인근에서 새로이 유행한 놀이로 짬뽕(짬뽕)도 소개했는데, 손으로 공을 치고 베이스를 달려 득점하는 약식 야구인 이 놀이를 통해 당시 유입된 외래 문물의 융화 정도가 읽힌다.

그러나 식민시대에 행해진 우리 놀이에 대한 일제의 연구조사는 당연히 통제의 수단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 계승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우리 삶의 한 양식이기도 했던 민속놀이의 대부분이 바로 이 즈음 명맥이 끊겼다는 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일제는 햇불싸움, 줄다리기, 동채싸움 등 민중의 힘이 표출되는 대규모 집단놀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고구려 때부터 내려온 대보름 놀이였던 석전(石戰)도 그렇게 해서 사라진 놀이 가운데 하나다.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관에 의해 금지된 이후에도 이 놀이가 계속되자 군대를 파견하고 총을 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단위의 편싸움인 이 놀이가 사상자를 낼만큼 격렬하고 위험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이 놀이에 함축된 공동체의식과 진취적 민족기상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전대미문의 '놀이 탄압시대'는 해방과 함께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 교육의 영향으로 민속문화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 독립이 놀이 복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더욱이 그나마 남아 있던 놀이들마저 급속히 유입된 서양식 레크리에이션과 뒤엉키면서 우리 놀이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은 갈수록 희미해졌다.

미군정이 실시되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새롭게 등장한 놀이로는 계급장머기를 꼽을 수 있다. 종이를 네모로 접어 배를 때리고 나서 뒤집어지면 이기는 딱지치기의 '금속 버전'이라 할 이 놀이는 미군이 버린 깡통이 없었더라면 애

당초 등장하지도 못했을 놀이다. 1960년대 들어 진행된 산업화는 놀이를 상품으로 바꾸어버렸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놀이의 주체는 소비자,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사방천지가 놀이터이며 지천에 깔린 돌과 흙, 나무로 놀이도구를 자급자족하던 시대가 가고 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이 무렵 부쩍 늘어난 만화가게는 도시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만화뿐 아니라 김일 선수가 나오는 박치기 레슬링과 권투, 축구경기를 볼 수 있었다. 만화가게의 인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일반적으로 놀이의 상품화는 창조보다는 모방의 풍토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에게 이같은 흐름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텔레비전이었다. 아이들은 빠빠, 철인 28호, 번개아톰 등 로봇 만화영화 구경에 정신을 빼앗겼고, 덩달아 주인공을 본뜬 장난감을 만드는 완구산업도 호황을 구가했다. 이 사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공장굴뚝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하천은 폐수로 뒤덮였다. 그 결과 놀이터를 빼앗긴 아이들은 '수영 뺨스'를 들고 풀장을 찾아야 했다.

도시가 흉물스런 아파트더미로 뒤덮인 1980년대 이후 골목길을 울리던 아이들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비디오와 컴퓨터가 기다리는 집으로, 또 전자오락실로 숨어들어 기계와의 '고독한 싸움'에 빠져들었다. 게다가 '잠깐을 놀아도 공부에 도움되는 걸 놀라'는 어른들의 성화로 아이들은 블록, 과학상자, 조각그림 맞추기 등 주로 서양에서 들어온 '나홀로 놀이'에 익숙해져야 했다. 아파트 한 귀퉁이에 마련된 놀이터가 아니면 흙이라곤 밟아볼 수 없는 세상, 공동체적 놀이공간의 필요조건인 땅을 잃은 세대에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호모 루덴스』의 저자인 요한 호이징가는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식민시대의 굴곡을 겪고 전통과의 단절을 강요하며 밀려온 서구문화에 휘둘린 지금 우리 사회에 남은 문화란 과연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10.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일상생활에 있어 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민속행사로, 그 민족의 자연환경 및 풍토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 생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반복하는 때와 계절의 산출을 태음력에 의거하였는데,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오랫동안 농사가 생활의 기본이 되었기에 세시풍속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풍토, 농경생활의 노동과 기원, 놀이 등이 어우러진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에 대하여 알아보자.

설날은 새해의 첫날로 원단(元旦) 혹은 세수(歲首)라고도 한다. 설날 그믐 저녁부터 복을 기원하고 잡귀를 막는 의미로 복조리, 갈퀴, 채 등을 벽에 걸고 새해맞이 준비를 한다. 설날 아침에는 '설빔'이라 하여 새 옷을 마련해 입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낸 후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데, 절을 받은 어른들은 덕담(德談)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준다.

차례는 떡국으로 지내는데 떡국을 먹었다는 것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세주(歲酒)라 하여 대우지 않은 찬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을 마시면 질병을 앓지 않는다고 하며 봄을 맞이하는 뜻이 들어 있다. 또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잣치기, 제기차기 등의 놀이를 즐긴다.

음력 정월 15일인 대보름에는 풍요를 기원하며 농사와 관련된 많은 행사들이 벌어진다. 아침 일찍 한해의 안녕과 무병을 기원하며 '부럼'을 까고, '귀밝이술'을 마신다. 또한 쌀, 찹쌀, 팥, 콩, 수수를 넣어 오탁밥을 지어먹으며 여러 가지 나물을 김에 싸 먹는다. 그런가 하면 더위먹지 않고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 친구에게 찾아가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말한다.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거나 줄다리기,

지신(地神)밧기, 차전(車戰)놀이 등을 벌인다. 그런가 하면 한 해의 나쁜 재앙을 멀리 보내는 의미로 하늘에 연을 날려 보내고, 달이 뜰 무렵엔 독에 불을 질러 잡귀와 해충을 쫓거나 쥐불놀이를 하고 달을 보며 1년의 행복을 기원하기도 한다.

이월 초하루는 '머슴날' 또는 '노비일(奴婢日)'이라 하여 흰떡과 콩을 넣은 송편을 만들어 머슴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머슴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이 날부터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래기날'이라고도 하여 노래기를 예방하기 위해 콩, 명주실, 나락, 보리, 수수를 볶거나 콩떡을 만들어 먹고 지붕에 얹어 놓기도 한다.

영남과 호남지방에서는 영등할머니 맞이를 하는데, 영등할머니는 풍신(風神)으로 2월 초하루에 지상에 내려왔다가 2월 보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영등할머니가 오가는 날에는 주부들이 장독대나 부엌에 음식을 꾸밈하게 차려 놓고 소원을 빈다. 저녁에는 쯔생이별(星)의 위치를 보고 그 해의 풍·흉년을 점치기도 한다.

한식에는 과일, 떡, 과자 등의 음식과 국수를 올려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손질한다. 이날에는 찬밥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중국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옛날 개자추가 간신으로 몰려 면산(綿山)에 들어갔는데 진의 문공(文公)이 개자추의 충성심을 알고 그를 찾아왔다. 개자추를 산에서 나오게 하려고 문공은 산에 불을 질렀지만 결국 개자추는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었으니, 사람들이 그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이 날은 불을 때지 않고 찬밥을 먹게 되었다. 이 날 농가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채소 씨를 뿌리며 희망에 부풀게 되니, 새롭게 봄농사가 시작되고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라 하겠다.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로 욕불일(浴佛日)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날은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연등행사나 제등행렬(提燈行列), 혹은 등을 들고 절의 탑 주위를 도는 '탑돌이'를 하게 된다. 이러한 풍속은 고려시대

의 팔관회(八關會)에서 유래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 불교적 진리의 세계로 귀의하고 가정과 나라를 위하는 기원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사람들은 절에 가서 스님들의 좋은 법어(法語)를 들으며 몸과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는다. 즉 초파일에 행해지는 이러한 행사들은 처음에는 불교적인 의식에서 시작되었으나 차차 민속적인 행사로 정착된 것이라 하겠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로 수리(戌衣) 또는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하며, 차례를 지내고 새 옷을 입고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쑥떡을 만들어 먹거나 재액을 쫓기 위해 쑥을 문 옆에 세워두며, 이날 뜯은 쑥과 익모초는 병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결에 윤기가 나고 건강에 좋다고 한다. 여성들은 창포의 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한다. 이 날의 큰 행사들은 주로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남자들은 모여서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며 흥겹게 보내는데, 여러 지방에서 열리는 단오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강릉(江陵) 단오제가 있다.

6월 15일은 유두로 이 날은 맑은 개울을 찾아가 목욕하고 머리를 감는다. 이렇게 하면 상서롭지 않은 것을 쫓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동쪽을 청(淸)이요 양기(陽氣)가 많다고 여겨 동쪽의 냇가를 많이 찾는다. 문사(文士)들은 계곡이나 물가의 정자를 찾아 풍월을 읊으며 하루를 즐긴다. 국수와 떡으로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술과 떡을 마련하여 이웃과 머슴에게 주고 나누어 먹는데 이를 품앗이 대접이라고 한다. 절식으로는 멍쌀과 찹쌀로 구슬만한 떡을 만들어 꿀물에 넣고 얼음에 채웠다 먹는 수단(水團)이 있고, 이와 비슷하나 물에 넣지 않은 건단(乾團)이 있다. 이외에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기름에 튀기거나 깨, 콩 등을 묻혀 꿀을 발라먹는 연병(連餅)이 있다.

7월 7일 칠석은 서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떨어져 있던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일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다. 이 둘이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까마귀와 까치들은 하늘에 올라가 오작교(烏鵲橋)라는 다리를 놓아

준다고 한다. 이날 저녁에 비가 오면 이것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 기쁨의 눈물이고, 이튿날 새벽에 비가 오면 이별의 슬픈 눈물이라고 전한다. 이 날 새로 나온 벼로 칠석차례(七夕茶禮)를 지내고, 부녀자들은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떡을 해서 촛불과 같이 놓고 샘제를 지내거나, 칠성제(七星祭)나 칠석제(七夕祭)를 지내며 집안과 자녀를 위해 빌기도 한다. 이날 젊은이들이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진다.

음력 7월 15일은 백중, 또는 머슴날이라고도 부르며 농가에서는 호미를 씻어둔다고 해서 호미씻기날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머슴들이 7월 보름 경 용(龍)날을 택하여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흥겹게 즐긴 데에서 비롯되었다. 경상남도 밀양지방의 백중놀이가 유명하고, 이와 비슷한 놀이로서 중부 이남 지방에 널리 퍼진 호미씻이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7월 보름 무렵 벼농사 중 가장 힘든 논매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를 자축하며 쉬는 행사라 할 수 있다. 7월 백중을 '머슴생일'이라 불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에는 머슴들끼리 씨름과 들돌 들기로 힘을 겨뤄서 그 해의 최고의 머슴을 가린다. 장원에 뽑힌 사람은 버드나무로 샷갓을 만들어 거꾸로 쓰고 도롱이를 입은 채 소와 작두말을 타고 한바탕 신명나게 논다.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은 추수를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즐거운 명절로, 중추(中秋) 또는 '한가위'라고도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추석빔이라 하여 새 옷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만들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간단히 제수를 준비하여 성묘(省墓)를 간다.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절식으로서는 햅쌀에 햅콩과 햅밤 등을 넣어 만든 송편이 있다. 이외에도 밤, 대추, 감, 배, 사과 등 과일이 풍성하여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때이다. 이날은 마을에서 거북이놀이, 소맥이놀이, 사자놀이, 강강술래, 줄다리기 등을 하고 술과 음식을 들며 하루를 즐긴다.

9월 9일 중구는 9가 겹쳤다는 뜻으로 삼월에 강남에서 왔던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하며 중양(重陽)이라 하기도 한다. 추석에 성묘를 하

지 못했거나 세존단지를 새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이 날 행하기도 한다. 가정에서는 국화꽃을 따서 국화전(菊花煎)을 만들거나 술을 담가 마시며 배, 유자, 석류, 잣 등을 잘게 썰어서 꿀물에 탄 화채(花采)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이런 음식들을 준비하여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 풍월을 읊으며 하루를 즐기니 이를 단풍놀이라 하며, 요즘 가을 소풍을 가는 것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동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양력으로는 12월 22일을 말한다. 이 날 먹는 대표적 음식으로 팔죽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동지를 '아세(亞歲)' 혹은 '작은 설'이라고 하여 동지팔죽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팔죽은 팔을 삶아 으깨 체에 걸러낸 물에 찹쌀로 새알심이라는 단자를 만들어 넣은 죽이다. 팔죽이 쭈어지면 먼저 사당에 두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방·마루·부엌·광 등에 떠놓거나 대문이나 벽에 팔죽을 뿌린 후 먹는다. 이것은 팔의 붉은 색이 액(厄)을 막고 잡귀를 없애준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시풍속은 일상생활에 있어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민속을 말한다. 설날, 상원,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오랜 관습에 의해서 새 옷으로 단장하고 주찬을 장만하여 조상과 제신에게 제사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이러한 행사는 오랜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관습이어서 세시풍속이라 한다. 세시풍속이 생활에 정착된 시기는 일정한 것이 아니겠으나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거나 필요에 의해서거나 또는 당위에 의해서 관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이 같은 자연환경과 같은 역사 속에서 생업을 같이 하고 동일한 언어를 쓰고 살아오는 동안 생활관습의 동질성을 낳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세시풍속은 생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그 자체가 세시풍속이다. 생활에 있어 한 번 또는 몇 번 채택되었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사라진 것은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없다. 세시풍속은 넓

은 지역에 있어 향상문화현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민족국민을 단위로 나타나는 생활 현상이다. 이러한 대단위는 그만큼 공감에 의해서 채택되고 토착화해서 전파되고 전승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한번 토착하면 생활양식이나 의식에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오래 지속되기 마련이다.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생활관습일 때에 그 세시풍속은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세시풍속은 일반성을 띠면서도 이웃과 다를 수도 있다. 즉,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개성을 드러내는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종교 또는 가문이 관련되는 수가 있다. 유훈선은 일찍이 이 땅에 들어와 토착해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생활화하고 있다. 게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외래문화가 도입되어 재래의 관습에 변화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이웃에 살면서 일반성이 아닌 특수한 의식 속에 살게 되고 따라서 전반적이거나 부분적으로 관습을 달리하게 되는 수도 있다. 우리의 세시풍속은 반복하는 시계의 산출을 태음력에 의했다. 중국 하대의 역법인 음력 정월을 설로 삼은 역법을 채택 계승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농가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로 여기고,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였던 우리는 태음력에 의해서 세시풍속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세시풍속은 하루 이들의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생활경험에서 느껴서 필요했고 그래야만 했기에 채택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세시풍속의 공감성과 문화성이 있다. 하나의 세시풍속이 정착하기까지에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린 것도 있을 것이다. 역사가 오래이고 뿌리가 깊은 만큼 확고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세시풍속은 쉽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강인성이 있다.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고 행정력으로 권장하고 법제화하였어도 여전히 음력이 생활문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음력이란 달의 차고 기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역법으로 고대부터 중국, 바빌로니아, 그리스, 유대, 인도, 이슬람 등지에서 사용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양력이 채용되기 이전까지 음력을 기준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으며 요즘도 일진이나 절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평년을 12개월로 하고 동지를 기점으로 황도를 24등분해서 계절을 세분하여 각 등분점을 태양이 통과할 때를 절기(節氣) 또는 중기(中氣)라 하여 모두 24절기로 정했다.

농본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절기를 기준으로 우주와 자연의 섭리를 읽었으며 이것을 변화하는 계절의 지표로 삼아 생활을 운영하여 나갔다. 절기는 각 달에 2개씩 속해 있는데 1월에는 입춘과 우수, 2월에는 경칩과 춘분, 3월에는 청명과 곡우, 4월에는 입하와 소만, 5월에는 망종과 하지, 6월에는 소서와 대서, 7월에는 입추와 처서, 8월에는 백로와 추분, 9월에는 한로와 상강, 10월에는 입동과 소설, 11월에는 대설과 동지, 12월에는 소한과 대한이 있다.

제 6 장 한국교육의 이해

1. 남북한 교육목표 이해

대한민국	북한
<p>1) 교육목표</p> <p>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2) 추구하는 인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능력을 토대로 하여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p>1)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목표</p> <p>북한헌법43조(1998.9.5.개정헌법)</p> <p>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주의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 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p>

2. 우리나라 교육사

1) 삼국 이전의 교육

(1) 고조선의 교육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고조선은 제도적인 교육기구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교화하였다. 또 8가지 법이 있어 국민들이 법을 지키게 하였다.

(2) 부족국가시대

부여, 동예, 옥저, 삼한 등에도 제도적인 교육기구는 전해지는 것이 없으나 철기문화와 함께 한자(漢字)가 보급된 것으로 보아, 어떤 방법이든 교육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삼국시대

(1) 고구려

소수림왕 2년(327)에 국립대학인 태학(太學)을 설립하여 귀족자제에게 경학(經學)과 무예(武藝)를 교육하였다.

또 평양으로 천도한 후 지방에는 경당(屨堂)을 설치하여 지방호족과 평민자제의 기초학문으로 經學과 무술(武術), 궁술(弓術)을 교육하였다.

고구려는 지금 남아 있는 광개토태왕의 비문을 보거나 지금은 없어졌지만 역사책으로 소수림왕 때 편찬했다는 유기(留記) 백권과 영양왕 때 태학박사이문진이 편찬한 신집(新集) 5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한문학이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하였고, 수준 높은 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영양왕 승려 혜자(惠慈)는 일본에 건너가서 쇼토쿠 태자의 개인 스승이 되기도 한다.

(2) 백제

백제도 일찍부터 한자가 전래되어 근초고왕 때(375년) 고 흥 박사가 백제 역사책인 서기(書記)를 편찬하고 이외에도 백제신찬 백제길응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또 근초고왕 때 아직기는 일본의 토도태자(菟道太子)의 스승이 되고, 근구수왕 때 왕 인이 일본에 건너가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전해 주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백제는 많은 학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문화에 큰 영향

을 준다. 그러나 백제에 어떤 학교가 있었는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오경박사(五經博士), 의박사(醫博士), 역박사(曆博士) 등의 박사제도(博士制度)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대학의 교수(教授)였음을 알 수 있다.

(3) 신라

신라는 상고시대부터 청소년교육기관인 화랑제도(花郎制度)가 있었다. 이 화랑제도의 근원(根源)은 여성단체인 원화(源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가 남자단체로 변했다. 별명도 국선도(國仙徒), 풍월도(風月徒) 등을 가지고 있는 사단체(私團體)로 내려오다 진흥왕 27년(536)에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으로 전환시켰다. 무리의 장(長)을 화랑(花郎; 眞骨에 한함)이라 하고 무리 즉 대원을 낭도(郎徒; 귀족자제에 한함)라 하였다.

교육장소는 일정한 곳이 없고 전국(全國)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순회하면서 심신수련을 하였다고 본다.

교과과정은 심신수련으로 무술과 경학을 배웠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목표는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세속오계(世俗五戒)였다. ①사군이충(事君以忠) ②사친이효(事親以孝) ③붕(교)우유신(朋(交)友有信) ④임전무퇴(臨戰無退) ⑤살생유택(殺生有擇)이 5가지를 교육목표로 삼고 생활하였다. 이것은 후 화랑뿐만 아니라 신라청소년 전체가 생활 신조로 삼고 살았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일이후의 신라교육

신무왕 2년(682) 6월에 국학(國學)을 설립하여 제도적인 대학을 설립하였다가 경덕왕 때 태학감(太學監)이라 이름을 바꾸었다가 혜공왕 때 다시 국학(國學)이라 했다.

■ 국학의 구조 ■

공통과목	전 공 과 목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 수
논어(論語) 효경(孝經)	1분과 : 예기(禮記)와 주역(周易) 2분과 : 좌전(左傳)과 모시(毛詩) 3분과 : 문선(文選)과 상서(尙書)	15세-30세 까지의 귀족자제	9년간	박사와 조교를 두고 책임자를 경(卿)이라 함

이 밖에 잡학(雜學)을 두어 산학(算學), 율학(律學), 병학(兵學), 천문학(天文學), 풍수지리학(風水地理學)을 가르쳤다.

또 신라는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라는 과거제도를 두어 관리를 선발하여 학문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신라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많이 보내어 공부하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치원, 김운경, 김가기였다. 이들은 당나라에서 실시하는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여 당에서 관리로 있다 귀국하였다.

3. 고려의 교육제도

태조 왕건(太祖 王建)때 이미 개경(開京)과 서경(西京)에 학교를 세웠다고 한다.

성종11년(992)에 개경에 국립종합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을 설립하고 왕6년(987)에 지방12목에도 경학박사와 의박사를 보내어 지방의 귀족 자제와 평민들에게도 교육하였다.

예종때는 8제를, 인종때는 관학인 국자감을 경사대학(京師大學)을 두고 교육하였다. 또 왕5년(1127)에는 지방에 향학을 세워 교육하였다. 고려는 학교 발전을 위해 각종 장학제도(養賢庫)를 두었다. 도서관도 있었다.(수서원 비서원)

국자감은 한때 정중부의 난으로 1170년(의종) 폐쇄되었다가 1304년(충렬

왕)때 안 향에 의해 부활되었다.

고려는 사립학교도 매우 발달하였다. 문종7년(1053) 해동공자라 불리던 최충에 의해 최초로 문헌공도가 설립되고 이어서 11개의 사립학교가 성립하여 모두 12개가 있었다. 이를 12공도라 한다.

국자감(경사대학)의 구조

구분	학 교	입 학 자 격	학 과	수 업 년 한	교 수
경 사 대 학	국자감	문무관 3품이상 자제	유교경전 및 문예교육	8년6개월, 단 3년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	박사와 조교
	태 학	문무관 5품이상 자제			
	사문학	문무관 7품이상 자제			
	교과 과정	1년간 효경과 논어 2년6개월간 상서 공양전, 2년간 주역, 모시 3년간 예기와 좌전을 공부하였다.			
잡학 (기술 교육)	윤 학	문무 8품 이하 자제 및 서민자제	법 율	6년간	박사
	서 학		팔 서		
	산 학		수 학		

4. 조선의 교육

1) 조선교육의 특징

조선의 교육은 고려시대부터 발전해온 연장선에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 교육의 특징을 말하면,

첫째, 과거준비를 위한 기구이다. 관리를 양성하는 기구로 봐야 한다.

둘째, 양반들의 출세를 위한 독점기구였다.

셋째, 유학교육에 치중하였다. 조선의 승유억불정책의 일환으로 유교교육에 치중하였다.

2) 조선교육의 시대구분

조선시대 교육을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전기라 하고 태조부터 연산군까지로 체제확립기라고 볼 수 있다.

제2기는 중기라 보고 중종에서 경종까지로 교육내용 및 교육사상 발전기라고 본다.

제3기는 후기라 하고 명종에서 고종13년(1876)까지 즉 개방이 되는 시기이며 이 기간동안을 실학사상 대두기로 본다.

제4기는 마지막으로 말기 교육기간이다. 고종13년에서 1910년까지를 근대 교육의 시발점이라고 본다.

3) 교육목표 :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양성 또는 과거준비에 두었다.

4) 교육기관

최고학부인 성균관(成均館)과 중앙의 4부학당(태종 때는 5부학당, 세종27년부터 동·서·남·중 4부로 확립)을 두고 기술관 양성을 위해 잡학을 두었다. 지방에는 향교(鄕校)를 두었고 최 말단기구로 서당(書堂)을 두었다. 서당(書堂)에서는 천자문(千字文)을 이수하고 나면, 성종 때 박세무의 저서 동몽선습(童蒙先習 → 자국사(自國史) : 한국사 교육서)을 가르쳤다. 중종 이후 각지방에 서원(書院)이 설립되기 시작하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장하여 대학 기능을 대신하였다.

5) 발전 : 조선에서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재단을 두었다. 과거제도도 교육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시대 교육기구표

양 반 교육기관	中 央		성균관	국립대학으로 총장을 대제학이라 함. 문묘를 두고 공자 이하 136명을 모시고 제사함. 동, 서 양제를 두고 각 100명의 학생을 둠. 수업년간 9년 수료후 대과에 응시 가능함. 입학자격 15세이상 양반의 자제로 4부학당, 향교, 소과에 합격한 자를 입학시킴.	
			사 학 (사부학당)	동학 서학 남학 중학	- 문묘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강의는 교수 또는 훈도가 교육 - 입학자격은 15세 이상 양반자제로 각 100명이 정원임.
	지 방	향 교	부	90명	- 문묘가 있고 석전에 제사 지냄 . 명륜당과 제가 있음.
			목	70명	
			군	50명	- 교수는 훈도가 하고 입학자격은 15세 이상 양반 또는 향리의 자제가 입학하였음.
현			30명		
서 원	전국 각처에 세워진 사숙으로 유학의 기초와 한문의 기초를 가르쳤음 7-8세에 입학하여 15-16세에 과정을 마침.				
중 인 기술교육	잡 학	1.의학(전의감) 2.산학(호조) 3.율학(형조) 4.화학(도화서) 5. 도학(소격서) 6.역학(사역원) 7.천문지리(관상감)			

5. 조선의 근대교육

1) 근대교육의 시작

서양세력과 일본 제국주의 침투에 날로 국운이 기울어지는 가운데서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고종은 1895년에 교육립국조서를 내림으로써 현대교육이 시작되었다.

2) 관립학교

최초의 관립학교는 육영공원이며 1886년 설립하였다.

이 육영공원은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내리기 전 고종23년 1886년에 미국

인 Hulbert를 초빙하여 고관들의 자제와 영재들을 뽑아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1899년에 폐지하였다.

3) 갑오경장 이후

1898년 서울에 4개의 소학교와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고, 1899년 한성중학교, 한성의학교, 1907년 공업전습소, 수원농림, 수학원(왕족교육기관), 1908년 한성의국어학교가 세워졌다.

4) 사립학교 설립

(1) 서양인이 세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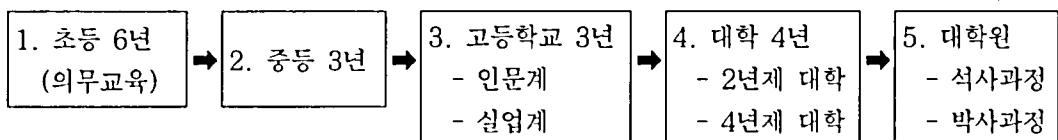
배재학당(북감리교 1885, Appenzeller), 이화학당(북감리교 1886, Scranton) 평양에 숭실학교(북장로교 1897, Bait), 경신학교(북장로교 1886, Underwood) 이외 정신여학교, 배화학당, 평양에 승의여학교가 설립되었다.

(2)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학교

최초로 원산에 원산학사(1883, 정현석), 보성학교(1905, 이용익), 양정의숙(1905, 엄주익), 휘문(1906, 민영휘), 진명과 숙명(1906, 엄귀비), 평양에 대성학원(1907, 안창호), 정주에 오산(1907, 이승훈) 등 3,000여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1909년 학교령에 의해 모두 폐쇄되고 320여개만 남았다.

6. 현재의 우리나라 학제

우리나라의 학제는 6.3.3.4제이다. 그리고 대학원이 있어 석사과정과 박사 과정이 있다.



1) 초등학교 : 7~8세에 입학한다. 이에 앞서 정규제도는 아니나 유치원이 있어 이 과정을 거쳐오기도 한다. 6년의 과정을 마치면 중학교로 진학하는데, 이때는 무시험으로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중학교로 배정받는다.

2) 중등학교 : 이때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나 2002년 입학생부터 학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여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9월부터 다음 2월말까지를 2학기라 한다.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3년간의 성적을 정리해 두었다가 고등학교 진학에 반영한다. 이를 내신성적이라 한다.

고등학교 진학방법은 2가지 있다. 소위 평준화 원칙에 따라 대도시와 수도권주변에는 내신성적과 연합배치고사로(200점+100점) 주변 고등학교로 배정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학교는 시험을 치러서 가는 곳도 있다. 이때도 내신성적의 비중이 크다.

3) 고등학교 :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3가지로 분류한다.

(1)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을 목표로 <표-1>과 같은 과목을 공부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쳐 희망하는 대학으로 진학한다.

(2) 실업계고등학교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공업계고등학교 ②상업계고등학교 ③농업계고등학교 이외에도 전문기술분야에 따른 학교도 있다. 이들 학교는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전제로 입학한다. 인문계와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전공에 따른 이론과 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인문계와 공통된 과목은 수업시수가 인문계의 반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대학진학시 인문계 졸업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3) 특수목적고등학교

이 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국가가 특수목적에 의해 설립하였다.

4) 대학과 대학원

우리나라의 대학도 크게 문과와 이과로 나누며 수많은 전공에 따라 구분된다. 또 수업 연한에 따라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수 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도 개설되어 있다.

5) 대학진학시험제도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여러번 변경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1882~1993까지는 대학입학예비고사라 하였고, 1994년부터 지금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약칭으로 수능이라 함)을 치르고 있다.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은 이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진학한다.

이 시험은 언어영역 수리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영역으로 나누고 언어영역은 인문, 자연이 공통으로 응시하고 수리영역은 인문과 자연으로 구분한다. 인문계는 공통수학과 수학 I 을 자연계는 공통수학, 수학 I 과 수학 II 를 시험친다. 사회탐구도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돼 인문, 자연공통으로 공통사회, 국사, 윤리를 보고 인문계는 선택과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과학탐구도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한다. 인문계는 공통과목만 보고 자연계는 공통과목 외에 물리 II, 화학 II, 지구과학 II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외국어영역은 모두 공통이다. 다만 대학에 따라 제2외국어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어 이를 선택한다. 그러나 총점과는 관계없다.

배 점 표

영역 점수	언어 영역	수 리 영 역			사 회 탐 구			과 학 탐 구			외국어	제2외국어
		인문	자연	예,체	인문	자연	예,체	인문	자연	예,체		
총점	공통	인문	자연	예,체	인문	자연	예,체	인문	자연	예,체	공통	선 택
400점	120점	80점	80점	80점	72점	48점	72점	48점	72점	48점	80점	독, 프, 스, 러, 일, 중 등 6개 국어 중 택일

이외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은 검정고시제도가 있어 개인적으로 독학 내지 학원 등에서 공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실업학교는 공업계열, 농업계열, 상업(정보산업)계열, 기타 특수계열은 필수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수와 각 전공과목과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일반선택 24단위 이상 심화선택 112단위 이하를 이수한다.

제7차 교육 과정 배정표

구분	학교 학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1	8-2	9-3	10-1	11-2
교 과	국어	국 어 1학년210시간		238	204	204	204	1701	136	136	136	국어생활(4) 시민윤리(4) 인간사회환경(4) 실용수학(4) 생활과학(4) 정보사회와컴퓨터(4) 체육과건강(4) 음악과생활(4) 미술과생활(4) 영어(8)(독어,프랑스,중국,스페인,일어,러시아,아랍어 각 6단위) 한문(6) 교련(6) 철학,논리,심리학, 교육학,생활경제, 종교,생태환경,진로와직업 기타 각 4단위 심화선택.....
	도덕	2학년239시간		34	34	34	34	68	68	36	34	
	사회	수 학 1학년120시간		102	102	102	102	102	102	136	136	
	수학	2학년136시간		156	136	136	136	136	136	102	102	
	과학	바른생활 1학년60시간 2학년68시간		102	102	102	102	102	136	136	136	
	실과	슬기로운 생활 1학년90시간 2학년102시간		*	*	68	68	68	102	102	102	
	체육	즐거운생활 1학년180시간		102	102	102	102	102	102	68	68	
	음악	2학년204시간		68	68	68	68	68	34	34	34	
	미술	우리는 1학년 1학년80시간		68	68	68	68	34	34	68	34	
	외국어	*	*	34	34	68	68	102	002	136	136	
재량활동	60시간	68시간	68	68	8	68	136	136	136	204		
특별활동	30시간	34시간	34	68	68	68	68	68	68	68	8단위	
연간수업 시수	830시간	850시간	986	986	1,088	1,088	1,156	1,156	1,156	1,224	144단위	

북한의 인민학교 교육과정(10과목)

교 과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시간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52(4.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52(4.2)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52(4.2)
국 어	8	8	7	7	1,142(31.7)
수 학	5	5	6	6	834(23.1)
력 사				1	37(1.0)
자 연			3	3	222(6.7)
체 육	2	2	2	2	304(8.4)
음 악	2	2	2	2	304(8.4)
도화, 공작	2	2	2	2	304(8.4)

고등학교 교육과정(21과목)

교 과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수시간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2	1	1	2	2	3	323(5.1)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1	1	2	210(3.3)
현 행 당 정 책	*	*	*	1주	1주	1주	77(1.2)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	1	185(2.9)
국 어 문 학	5	5	4	4	3	2	742(11.7)
한 문	2	2	1	1	1	1	257(4.1)
외 국 어	4	3	3	3	3	3	591(9.3)
력 사	1	1	2	2	2	2	298(4.7)
지 리	2	2	2	2	2	*	320(5.0)
수 학	7	7	6	6	6	6	1,182(18.6)
물 리	*	2	3	4	4	5	488(7.7)
화 학	*	*	2	3	3	5	328(5.4)
생 물	*	2	2	2	3	3	343(5.4)
천 문 학							
체 육	2	2	2	1	1	1	283(4.6)
음 악	1	1	1	1	*	*	140(2.2)
미 술	1	1	*	*	*	*	72(1.1)
제 도	*	*	*	1	1	*	52(0.8)
전자공학기초	*	*	*	1	2	*	72(1.1)
여 학생실습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85(2.9)
공 작 실 습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85(2.9)

제 7 장 한국역사의 이해

흔히 남북민족 관계를 말할 때 5천년 동안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 온 민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5천년동안 과거는 함께 했지만 역사를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회발전과 그 변화에 따라 또는 왕조의 변화에 따라 사실적(史實的) 사건을 기록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역사는 모든 역사발전의 단계를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잉여가치설과 계급투쟁과 대립적 관계를 인간사회 내지 사회관계의 기본 요인으로 파악하고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대구분에서도 노예제 봉건사 발전 등으로 서술해 나가고 있다.

이른바 주체사상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김일성 우상화 및 김정일 후계 계승 등 김일성 일가의 족벌제 강화와 연결시켜 날조하면서 유일사상으로 발전된 역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역사학습에 있어서도 김일성의 교시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다.(표-남북역사의 비교참조)

1. 선사문화와 국가형성

1) 선사문화

(1)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흔적은 약 70만년 전부터라고 본다. 대표적인 유적지로 평남 상원의 검은모루, 경기도 전곡리가 전기의 것이고, 중기의 것은 용기 굴포리, 강원도 양구의 유적이다. 후기의 것으로는 충남 공주 석장리, 충북 단양 수양계의 것을 말한다.

(2) 구석기 문화

구석기시대를 다시 세분해서 돌을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남북역사의 비교

한국사신론(이기백저)	조 선 통 사(1977관)
제1장 원시 공동체의 사회	제1편 원시사회 제1장 원시 공동체 사회
제2장 성읍 국가와 연맹 왕국	제2편 노예소유자 사회 제2장 우리나라 노예 소유자 사회
제3장 왕족 중심의 귀족사회	제3편 봉건사회 제3장 우리나라에서 봉건사회의 발생 세 나라의 봉건관계의 발전
제4장 전제 왕권의 성립	제4장 8-9세기 봉건 관계 발전
제5장 호족의 시대 제6장 문벌 귀족의 사회	제5장 10-11세기 봉건제도의 정비와 봉건적 예속의 강화
제7장 무인 정벌권	제6장 12세기 전국적 대 농민폭동 13세기 몽골 침략군을 물리친 인민들의 성립
제8장 사대부의 등장	제7장 고려봉건국가의 멸망과 이조봉건국가의 성립
제9장 양반사회의 성립	제8장 15세기 봉건체제의 재편성 경제와 문화의 발전
제10장 사림세력의 성장	제9장 16세기 대토지 소유의 발전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
제11장 광작 농민과 도고 상인의 성장	제10장 17세기 상품화폐 관계발전 제11장 18세기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과 실 학의 발전
제12장 양반신분체제의 동요와 농민의 반란	제12장 19세기 초, 19세기 중엽 봉건제의 위 기와 농민폭동의 양양

구석기 시대로 규정짓는 것은 사용한 석기가 뎀 석기(타제석기)를 사용한 시기이고, 주거는 주로 자연동굴을 이용하였다. 후기에는 강가나 해변으로 나와 움집을 짓고 살았다. 경제 단계는 채집 단계이며, 사회는 무리사회로 정착

하지 않고 식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살았다.

도구로는 주먹도끼, 찌개, 뼈나 뿔로 만든 도구 등을 사용하였다. 연천군에서 출토된 주먹도끼는 세계 역사를 바꾸어놓은 유명한 것이다.

(3) 신석기문화

신석기 시대의 시작은 약 B.C 6,000년경으로 본다. 신석기시대로 규정짓는 특징은 돌을 갈아서 사용하는 간 석기(마제석기)를 사용하는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릇을 사용한다. 그 대표가 빗살무늬토기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때부터 농경이 시작되어 경제적으로 풍부해졌다. 그 유물로는 봉산 지탑리와 평남 남경 유적지에서 탄화된 좁쌀이 나왔다.

도구로는 돌칼,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이 있었고, 경제단계는 채집에서 벗어나 생산단계에 이르렀다. 토기로는 빗살문토기가 대표적이기는 하나 이보다 앞서 원시무문토기 또는 용기문 토기가 부산 동삼동과 강원도 양양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생활로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집단적 취락을 이루고 살았으며 주로 강가나 해안지방에서 막집(움집)을 짓고 살았다.

사회는 부족을 이루고 살았으며 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씨족을 기본 구성단위로 이루고 살았다. 이 시대부터 자연에 대한 숭배사상인 원시종교도 등장한다. 즉 샤머니즘(Shamanism), 주술 등이 발생하였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지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강변이나 해안쪽에 분포되어 있다.

2. 국가형성

1) 청동기와 철기 보급

(1) 청동기 보급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보급된 것은 B.C 10세기경으로 보고, 또 우리나라 청

동기 문화 전래과정은 중국과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시베리아를 거쳐 만주와 한반도로 전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문적인 말로 스키토시베리안식(scytho-siberian) 계통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청동제품으로는 비파형동검 거친무늬청동거울이 출토되고 문양도 중국과 달리 동물문양을 많이 사용하였다.

분포지역도 중국의 요녕 지방에서 만주와 한반도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이 시기의 주요유물로는 석기로는 반달형 돌칼, 바퀴날, 도끼, 청동제품으로는 비파형동검과 거친무늬거울이 있으며 토기로는 민 무늬 토기가 주류이며 최근 평남의 주 미송리에서 출토된 미송리식 단지도 유명하다.

또 이 시대 고인돌 무덤이 널리 유행했다. 이것도 북방식과 남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이 무덤으로 보아 당시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시대 이미 계급이 발생된 것과 사유재산이 있었고 경제단계도 상당히 발전하였으며 부분적인 분업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초기 철기시대

우리 나라의 철기전래는 B.C 4세기경으로 본다. 철기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다. 춘추전국시대(B.C 770-221)는 중국에서 전쟁문화가 극히 발달하는 시기이다.

중국의 연 나라 화폐인 명도전이나 오수전 등이 우리 나라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도 당시 중국과 교역이 매우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청동제품, 철기제품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붓이 발견되어 이때 이미 한자도 전래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시대 유물로는 청동기도 함께 사용하였으나 대개 장신구나 의기(제사용품)로 사용되었다. 또 이 시대 청동제품은 비파형동검 → 세형동검으로, 거친무늬거울 → 잔무늬거울로 변화되었으며 청동기를 제작해 사용한 흔적으로 전남 영암에서 거푸집(鎔范)이 발견되었다.

철기제품으로는 농기구, 전쟁용품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철제를 사용하

므로 농업생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구조도 크게 변했다. 선진문화인 제철기술을 가진 부족은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힘이 강하여 정복사업이 활발해진다. 주거형태도 점차 지상으로 올라오고 규모도 확대되어 갔다.

3. 고조선의 건국

1) 건국 : B.C 2333년

성립배경 :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사회가 군장이 지배하는 사회로 발전하였다. 이들 중 세력이 강한 군장은 주변의 여러 사회를 통합하면서 점차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때 가장 앞서 국가로 발전한 것이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단군왕검(단군 : 제사장, 왕검 : 정치적 지도자, 즉 군장이란 뜻이다)이 건국하였다.

고조선의 영역은 비파형 청동검이 출토되는 지역 즉 중국의 요녕성 지방을 중심으로 만주와 한반도 중심지까지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조선의 중심에 관한 학설은 대동강 중심설(이병도)과 요동중심으로 확대하는 설(단재와 정인보) 두가지 설이 있다.

● 단군신화 ●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오던 것을 고려시대에 와서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기록하여 왔다. 그 다음 제왕운기, 응제시주,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같은 곳에 실려 있다.

고조선사회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8조법이다. 이 기록은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남아 있다. 불행히도 3가지만 남아 있다.

① 살인자는 사형 ② 남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고 ③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50만 양의 속량전을 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2) 고조선의 멸망과 위만 정권의 정립

중국이 전국시대의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 이 혼란을 피하여 고조선 쪽으로 피란 오는 무리들이 있었다.

1차로 전국시대에 한 무리가 넘어왔고, 2차로 진(秦), 한(漢) 교체기에 넘어 온 무리가 연 나라에 살고 있던 위만이다. 위만은 1,000여명을 끌고와 고조선의 준왕(準) 서쪽 변경에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아 살면서 먼저 온 무리와 세력을 합하여 왕검성을 점령하고 준왕을 쫓아내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B.C 194년이다. 이로서 단군조선은 망하고 위만이 집권하는 위만조선이 성립되었다.

위만은 우세한 무력으로 활발한 정복사업과 대 중국과의 증계무역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에 와서 중국의 한 무제와 대립하면서 한반도의 남부세력과 무역을 방해하다 무제의 침략을 받고 B.C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조선 땅에 한 무제가 4군현(낙랑, 진번, 임둔, 현도)을 설치하여 중국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낙랑을 축출한 것이 고구려 미천왕이다.(서기313년)

이때 한강 이남에는 3한(마한, 진한, 변한)이 서로 경쟁과 협조를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다.

4. 부족국가의 성립

1) 부여

한 무제에게 빼앗긴 옛 고조선 땅에서는 토착민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다.

A.D 1세기경 만주 송화강 유역에서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성립하였다. 북쪽은 선비족 남쪽은 고구려와 접하였고 북쪽의 선비족의 침략을 받고 쇠퇴한 후 A.D 494년에 고구려에 흡수되었다.

정치조직은 중앙에 왕이 있었고 왕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豬加), 구가(狗加)가 있었고 이들 가들은 자기들 출신지방구역

을 다스리는 4출도제를 두었고 왕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과 4출도를 합하여 5부족 연맹체로 형성되었다.

부여의 법은 엄했다.

①살인자는 사형, 그 가족은 노비로 하였다. ②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 물어주는 1책 12법이 있었다. ③간음한 자,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 풍습으로는 순장제, 우제점법, 제천행사로써 영고가 있었다.

2) 고구려

건국 A.D 37년경 부여로부터 남하한 주몽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주몽은 부여내부의 지배계급간에 분열 대립과정에서 박해를 피해 남하하여 독자적으로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 졸본에 도읍하였다가 국내성(통구)으로 옮기면서 5부족(계루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 절노부) 연맹체로 성립하였다.

정치제도는 부여와 비슷하였다. 왕 아래 대가들이 있고 가(加)들은 각기 사자, 조의, 성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독립세력을 유지하고 살았다. 법은 엄하여 중죄인은 가들의 회의에 의하여 사형 등으로 결정하였다.

풍속으로는 데릴사위 제도,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하였다.

3) 옥저와 동예

동해안 함경도 지방에 옥저가, 강원도 북부지방에 동예가 위치했다. 이들은 고구려를 통하지 않고는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 늘 고구려에 압박과 약탈을 당하면서 고구려에 조공을 바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흡수되었다.

정치는 각 읍에 읍군 또는 삼로가 있어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풍속은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도, 동예에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치

렸다. 또 책화(責禍)라는 경계에 관한 법이 있어 영역에 엄한 규율이 있었다.

경제는 옥저에는 어물, 소금이 풍부했고, 함흥평야에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동예도 해산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였다. 특히 누에를 쳐 명주를 짜고 삼베도 짜 방직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 단궁과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다.

4) 삼한

한강 이남에 일찍부터 진(辰)이 성장하고 있었다. B.C 2세기경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 남하하면서 사회의 변화가 생겨 토착세력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보았다. 그리하여 마한, 진한, 변한 즉 삼한이 성립하였고 그 중에 마한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전체 삼한에 맹주로 행사하였다.

이 삼한들은 더 크게 발전은 못하고 마한에서는 백제가, 진한에서는 신라가 성립하였다. 변한은 가야로 변했다가 신라로 흡수된다.

정치는 정치지배자와 종교지배자가 분리된 사회였다. 종교지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소도라 하여 신성시하였다. 제천행사는 10월에 계절제, 5월에 수릿날과 같은 행사가 있었다.

5. 고대사회의 발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로 발전함과 더불어 고대사회가 성장하였다. 고대사회로 성장하면서 족장들은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국왕의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점차 왕권에 복속되어 갔다. 왕권이 확대됨에 따라 율령을 반포하는 등 체제정비 작업이 추진되었다. 또 대외적 정복 사업을 벌여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켰다. 한편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여 중앙 집권화에 사상적 뒷받침을 받는다. 이로서 삼국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출발한다.

1) 고구려

태조왕 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우선 주변지역에 대한 정복과 통합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동해안쪽의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고 만주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다. 남으로 낙랑에 대한 압력을 가하며, 고구려의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어서 고국천왕, 미천왕 등이 나타나 나라를 더욱 확고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2) 백 제

북방에서 내려온 유이민과 한강유역에 있던 토착세력이 결합하면서 성립되었다. 건국전설에 의하면 온조왕이 국가를 열었고, 고이왕 때 고대국가로서 기초를 확립하였다. 가장 활발한 정복사업을 벌였던 왕은 근초고왕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서해안을 무대로 삼아 중국의 산둥반도와 발해만 쪽의 요동성과 일본의 쿠슈지방까지 연결하는 대 해상제국을 건설하였다. 특히 중국의 남조문화를 받아들여 화려한 백제문화를 형성시켰다.

3) 신 라

삼국 중 가장 늦게 출발한 신라는 진한 12개국 중 사로국이 모체가 되어 6개 씨족 촌장이 연합하여 박혁거세를 왕(왕호를 거서간)으로 추대하면서 성립하였다.

17대 내물왕 때 왕호를 마립간이라 하면서 김씨 세습왕조가 되면서 중앙집권국가로 기틀을 마련한다.

4) 가 야

3세기 중엽 변한 12국중 김수로왕이 김해를 중심으로 금관가야를 성립시키면서 지금의 경상도 지역(낙동강 연안)에 6가야(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가 성립하였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틈바구니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대부분 신라에, 일부는 백제에 흡수되고 소멸하였다.

6. 삼국발전과 항쟁기

1) 고구려

4세기말 소수림왕 때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완성시킨다.

372년에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입하고 같은 해에 귀족자제를 위하여 대학인 태학을 설립하고 373년에 국가통치를 위한 율령을 반포한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문자왕 때 까지를 전성기로 보며 특히 광개토대왕은 최대의 정복사업을 벌였으며, 장수왕은 남하정치를 실시하여 수도를 국내성에 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백제와 신라를 위협하고 한강 이남까지 진출하였다.

2) 백 제

고이왕때 국가의 기초를 닦았고 근초고왕때 고대국가로서 체제를 완성시켰다. 백제의 율령반포는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고이왕 대로 보고 있다. 교육에 관한 기록도 알 수 없으나 근초고왕때 일본에 왕인파와 아직기를 파견하여 일본에 문자를 전하였으며, 고 흥 박사가 백제서기라는 역사책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학문도 매우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3) 신 라

신라는 내물왕(마립간)때 고대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하고 눌지왕(마립간)때를 불교를 수입하였으며, 자비, 소지를 거쳐 지증왕 때 한화정책을 써 왕호를 왕이라 하고 행정제도를 군현제로 택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고 법흥왕때 와서 불교를 공식 인정하고 모든 제도를 완성시켜 명실상부한 고대국가로 완성시켰다.

가장 활발하게 정복사업을 치른 왕은 진흥왕이었다. 진흥왕은 화랑제도를

사설단체에서 공식 국가단체로 승인하고 국가의 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이들로 하여금 통일대업을 이루는 중추세력으로 길렀다.

4) 삼국간의 항쟁

삼국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서로 동맹을 맺고 협조하기도 했으나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싸웠다.

4세기까지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패권을 다투며 싸우고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

백제는 해상으로 진출하여 중국 남조 문화를 받아 국력을 축적한 뒤 371년 고구려 수도 평양을 함락하고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삼국항쟁기간은 대략 3기로 나뉜다.

제1기는 5세기경으로 고구려가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행사한 시기이다. 이때가 광개토대왕(391-412)때로 최대의 영토확장을 실시하여 남으로 한강유역까지, 북으로는 만주지방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쳤다는 기록도 기념비에 남아 있다. 장수왕때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면서(427) 소위 남하정책을 단행하여 한강유역의 백제수도를 점령하고 개로왕을 전사(475)시켜, 백제로 하여금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게 하였다.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고(433) 고구려에 저항하게 된다.

제2기는 6세기경으로 신라가 주도권을 잡는 시기이다. 신라는 진흥왕(540-576)때 이르러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유역을 회복하여 신라의 영토로 삼고, 신라는 이 길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신라는 중국의 선진문화를 직접 받으면서 크게 성장한다.

제3기는 7세기경으로 신라가 수·당과 연결하면서 삼국통일을 이루기까지를 말한다.

7.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 삼국통일

1) 백제의 멸망 : 31대 의자왕 660년

멸망원인 - 무왕과 의자왕의 실정

- 무모한 신라공격으로 국력 소모
- 특히 의자왕의 교만과 사치 간신들에 의한 정치로 국정이 혼란해지고 민심이 떠났다.
- 나·당 연합군의 결성으로 백제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2) 고구려의 멸망 28대 보장왕 668년

멸망원인 - 수십년(영양왕(590) → 영류왕(642))을 두고 수·당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으나 엄청난 국력소모와 오랜 전쟁으로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었다.

- 연개소문의 혁명과 독재로 인한 민심 이반과 연개소문 사후에 아들 간에 권력 투쟁으로 국력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 나·당 연합군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3) 신라의 삼국통일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켜 국가 재건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신라는 이를 적절히 회유 또는 무마시켰다. 더 큰 문제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으로 정복지는 물론 심지어 신라 땅에까지 도독부를 설치하였다.

663년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하고, 웅진을 비롯한 구 백제땅에 5곳(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땅에도 평양에 안동도호부(총독 설인귀)를 비롯하여 9곳에 도독부를 설치하여 당의 직할지로

지정하고 직접 지배하려 하였다. 신라는 당의 야심을 알고 려, 제 양국의 유민을 포섭하여 당 축출에 나섰다.

신라의 문무왕은 곧 나·당 전쟁을 선언하고 품일 장군과 죽지로 하여금 당군이 점령하고 있는 백제 사비성을 공격하고 백제땅 회복에 나섰다. 이에 675년에 당은 말갈족과 거란족을 앞세워 신라를 공격하였다. 당의 장군 이근행이 이끈 30만 대군이 지금의 경기도 의정부 지방인 매소성과 마전, 적성으로 침입하여 온 것을 섬멸하고 이때 노획한 말이 3만 필이라고 한다. 또 설인귀가 금강하구 기벌포로 침입한 것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이때가 676년(문무왕16년)이었으며 이렇게 하여 당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를 신성(지금의 무순)으로 옮기고 신라는 대동강과 원산만으로 연결하는 국경을 확정짓게 되었다. 이 해(676년)가 바로 신라의 3국 통일의 해이다.

4) 삼국통일의 의의

- (1) 통일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협조를 받았다는 것과 대동강 이남 땅만 통일하였다는 영토적 손실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다고 본다.
- (2) 그러나 신라가 려, 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군을 축출한 사실은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준 것이다.
- (3) 한편으로는 삼국의 정부가 하나의 정부로 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다.
- (4) 가장 큰 의의로 보는 것은 삼국의 문화로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소위 민족문화를 창조해냈다는 점이다.

5) 신라의 쇠퇴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비록 대동강 이북 땅을 상실하였지만 통일한 이남에는 태평성대를 누렸다. 다행히 만주지방에서는 발해가 성립되어 옛 고구려 땅

을 회복하여 융성하고 있었다.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도 한다.

그러나 신라도 8세기 중엽 이후 즉 혜공왕 이후부터 왕위 쟁탈전이 심해지고 정치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진성여왕의 실정은 심각했다. 이때부터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신라하대 150여년 간에 20여왕이 교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신무왕은 1년을 건디지 못하고 쫓겨났다.

통일신라는 견훤이(892년) 후백제를, 궁예가 901년에 후고구려를 성립시키면서 무너지고 이 땅에는 후삼국 시대가 성립되었다.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성립시키고, 936년에 재통일을 하면서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8. 고려시대

1) 건국 : 918년에 건국하여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태봉)를 계승하여 송악에 수도를 정하고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935년에(신라56대 경순왕) 신라를 합병하고 936년에 후백제를 멸망시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2) 태조 왕건의 통일정책

(1) 민심안정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를 위해

- ① 과도한 수취 금지
- ② 공신과 호족들의 횡포금지
- ③ 전쟁 중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해방
- ④ 불교와 풍수지리설 존중

(2)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추진

- ① 지방호족세력 흡수와 통합

② 흡수한 귀족들을 우대하고 한편 감시 차원에서 사심관제와 기인제도를 실시

(3) 복진정책을 실시하여 고구려의 고토 회복에 힘썼다.

3) 고려사의 특징

고려를 성립시킨 중심 세력은 신라 성골이나 진골 귀족이 아니고 지방호족 중심으로 6두품의 지원을 받고 또 불교의 선종 세력의 보호를 받으며 성립되었다.

신라사회를 지탱해오던 교종이나 귀족문화보다 서민적 문화가 중심이 되었다.

3대 정종 때나 4대 광종 때에 과단성 있는 개혁정치로 나라의 기틀을 잡고 6대 성종 대 최승로의 권유로 유교적 정치이념을 받아들이면서 유학과 한문학이 크게 발달하고 전통적인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공존하는 앞 시대와 다른 새로운 사회 즉 우리문화의 중세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치세력이 문벌중심, 귀족중심이 되면서 귀족간에 권력분쟁이 심화되었다. 중기이후 이자겸의 난(1126), 묘청의 난(1135) 등 귀족과 지방의 반란이 거듭되었다. 특히 단재 신채호는 묘청의 난을 평가하면서 조선역사 중 가장 큰 사건이라며 이때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한 것이 조선 5천년 전통의 맥을 끊어놓았다고 한탄한다. 이로서 더욱 심화된 문신우대와 무신천대 정치분위기가 무신의 난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주면서, 문벌귀족정치는 무너지고 군벌정치 시대가 열리게 되어 또 다른 정치세력이 형성되면서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외침을 받아 오랜 세월 몽고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이로서 또 다른 권력구조인 권문세족이 형성되어 국가는 말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공민왕이 집권하면서 반권 개혁정치를 실시하여 초기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나 왕비가 죽으면서 정치적 실의에 빠지고 모든 권력의 실권은 신돈에게 넘어가고 자신은 향락에 빠져 정치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우왕 때 요동정벌을 단행한 것이 신진 사대부들과 신흥무관들에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9. 조선왕조의 건국

1) 개국과 국가기초확립

1388년(우왕 14년) 최 영 장군 등의 주장에 따라 요동정벌에 나섰던 고려군은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 회군으로 좌절되고 이를 계기로 이성계는 역성혁명을 성공시켜 1392년에 정도전 등 신흥사대부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니 이것이 조선의 개국이다.

고려말에 형성된 신흥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적 관료로서 실력을 갖춘 인물이며 향촌에서도 사회적 영향을 행사하는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이미 고려의 말기적 현상을 파악하고 어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도전, 조준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 혁명을 추진한 파로 역성혁명(易姓革命), 즉 고려왕조 자체를 부정하는 파였고 정몽주, 이색 등은 고려정부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결과는 역성혁명파가 신흥무인세력인 이성계와 협력하여 새 왕조를 개창하는데 성공하였다.

혁명에 성공한 이성계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기본 정책을 발표하였다. ①외교정책은 사대 교린정책을 ②사상문제는 숭유억불정책 ③경제문제는 농본정책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요구되는 것은 민본사상이었고 민족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였다. 특히 권력의 중심인 왕실에서는 개국공신들의 비대해진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문제를 태종(이방원)은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을 치르면서 왕위에 오르고 비대해진 개국공신들의 권력을 누르고 권력의 중앙집권화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기반을 굳힌 후에 왕위를 세종에 넘겨주고 세종은 이 기반 위에 민족문화의 꽃을 피웠다.

세종이 집권하면서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을 적절히 조화시켜 우리역사에 가장 모범적인 권력구조를 이루면서 민족문화 과학기술까지 찬란한 꽃을 피웠다. 국가안보문제도 북으로는 김종서, 최윤덕 등이 여진족을 토벌하고 4군과

6진을 개척하는 데 성공하였다. 남으로는 창궐하던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대마도)에 이종무를 보내어 소탕하고 항복받았다(1419).

그러나 세종 다음으로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면서 문종의 병약함과 어린 단종의 출현으로 왕권이 약화되자 또다시 신권이 강화되어 왕권강화의 구실로 세조는 왕위찬탈 사건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단종 복위 운동이 발생하면서 국정은 다시 어지러워졌다.

15세기 성종때 이르러 조선경국대전을 완성시키는 등 모든 체제를 완성시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주었으나, 성종이 죽은 후 즉 15세기말 16세기 초 연산군 같은 폭군이 등장하면서 국가는 난장판이 되어 버렸다. 중종반정을 거쳐 인조, 명종까지 4대 사화가 발생하면서 권력내부는 극도로 혼란에 빠졌다.

2) 성리학의 극성과 국난

고려말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성리학은 조선시대에 와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급기야는 훈구파(관학파)와 사림파(사학파)라 하여 2대 주류가 형성되어 극성기를 맞았고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논쟁이 시작된 것이 정치적 영향을 주면서 선조 때에는 극심한 당쟁으로 비화되면서 국론 통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국가는 나약할 때로 나약해지면서 급기야는 선조(1592) 때 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의 비극을 맞기도 했다. 피폐해진 국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동북아시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명은 쇠약해지고 만주지방에 있던 여진은 조선과 일본, 명이 7년 동안 전쟁으로 정신이 없을 때 국력을 신장시켜 후금(청)이라는 나라를 세워 강성해지면서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조선정부는 신홍하는 후금(청)과 친선을 할 것인가, 쇠약해져가는 명과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의 사이에서 국론이 대립된 상태에서 결국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이란 치욕적인 국난을 맞았다.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사회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혁을 단

행하기도 하였다. 즉 세제, 군역 등을 정비하고 산업발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호란 이후 청과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소위 서세동점(西勢東占)의 세계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양 문물이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3) 실학의 대두와 문호개방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즉 명, 청을 왕래하던 사신들과 역관들 그리고 무역으로 왕래하던 사람들 사이에 이미 중국에 전래되어있던 서양문물을 접하게 되고, 또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서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눈 뜨기 시작한 것이 실학이다.

18세기 영,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발전하여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으나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으로 실학자들은 큰 타격을 받고 실학의 행진은 멈추고 말았다.

정조의 사후, 11살의 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초기에는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섭정을 했으나,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인 순원왕후가 순조의 비로 책봉되고 순조가 15살이 되면서 정순왕후가 섭정을 거둬오르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고 이어서 현종, 철종까지 세도정치의 극성기를 맞아 또 다시 정쟁이 치열해지면서 사회는 엉망이 되고 소위 삼정(전정, 군정, 환곡) 문란으로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착취는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난중에 아들을 업고 등장한 사람이 대원군이였다. 대원군은 세도정치와 싸우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시도하면서 왕권강화에 전력을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서양세력은 코앞에까지 와 개항할 것을 압력하였고, 대원군은 쇄국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때 젊은 지식인들, 이들은 이미 실학에 영향을 받은 개화파들이 형성되어 개국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이 비등하기 시작하였다.

4) 문호개방

결국은 1875년에 일본 배 운요호 사건후인 1876년 강화도 조약(병자수호조약)을 시작으로 개국하기 시작하고, 1882년에 미국과 1883년에 영국과 구미(歐美) 열국과도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서 정국은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은 깊어지고 개방후의 정국은 신 문화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는 신사유람단 파견(1881년), 청나라로는 영선사를 파견(1881년)하여 신 문물을 배워오게 하여 신 문화에 따라 새롭게 군제도를 개편하여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대우로 인한 갈등으로 임오군란(1882)이 일어나고 1884년에 갑신정변, 1894년에 동학혁명이, 같은 해 청일전쟁이 발생했다.

정부는 1894년에 갑오개혁을 단행하여 홍범 14조(최초의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자체도 순수 조선의 의지보다 일본의 조정에 의존했다는 데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혁을 시도했으나 열강의 각축속에서 허덕이는 조선의 정치인들을 친일, 친러, 친정파로 나뉘어져 힘의 변화에 따라 정권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치졸한 것이라도 서슴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895년 을미사변(명성왕후시해사건), 1896년 아관파천(고종과 세자가 아관(러시아 공관)으로 이어한 사건)이다. 고종은 1897년 2월에 아관에서 경운궁(덕수궁)으로 돌아오면서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고 연호를 광무(光武)라 하면서 세계조류에 맞춘 제국으로 하고 자신도 황제의 칭호를 하게 하였다.

10. 민족의 수난과 독립운동

1) 개화운동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후부터 개국의 열기는 더해지면서 각종 단체들이 성립한다. 1896년 갑신정변으로 미국에 망명하고 있던 서재필 박사가 이완용, 안경수, 이상재, 윤치호, 이승만, 남궁 익 등 지식인이 모여 독립협회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1904년에 보안회, 공진회, 1905년 이 준 등이 중심이 된 헌정연구회, 1906년에 장지연, 윤치호 등이 중심이 된 대한자강회,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이 중심이 된 신민회 등이 발족하여 각세력을 엮고 일본군 통역인이었던 송병준을 중심으로 일진회가 조직되고 동학교도인 이용구는 진보회를 조직했으나 유신회에 흡수되어 일진회로 변하여 애국단체들을 방해하였다.

이때 언론기관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한성순보는 김옥균, 박영효가 중심이 되어 박문국에서 발행한 일종의 관보이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중심이 된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권신장을 위해 투쟁하였다. 이밖에 남궁 역의 황성신문,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 등이 발행되었다. 또 친일적인 신문도 발행되었는데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 대한신문도 초기에는 천도교의 기관지인 만세보이었으나 경영난으로 이완용에게 넘어가 매국적인 친일언론으로 변하였다. 이밖에 근대적인 교육과 학문에서도 국어학, 국사학이 특히 발전하였다. 국어학자로는 주시경, 이봉운, 유길준, 최광옥, 지석영 등이 활약하였고, 국사연구학자로는 현 재(동국사략), 장지여(백두산정계비고), 박은식(한국통사), 신채호(조선상고사), 최남선(조선저신), 환 헌(매천야록), 정인보(오천년 간의 조선의 얼)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 민족의 수난 시작

청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에서 일본의 이토히로부미와 청의 리홍장이 조약을 체결(시모노세키 조약)하면서 대륙진출의 발판을 삼았으며 조선에서 청은 종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은 조선침략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일본은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삼국간섭(러시아, 독일, 프랑스)으로 청으로 부터 빼앗았던 랴오둥반도를 도로 돌려주고 대신 배상금 3천만 냥

을 받았다. 러시아는 이 기회를 기용하여 남하하기 시작하니 자연 일본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수차례 러일협상을 벌여 러시아는 조선에서 38도선이나 39도선이나를 기점으로 양분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협상을 보지 못하고 일어난 사건이 러·일 전쟁이다(1904).

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은 일본이다.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T.Roosevelt)대통령의 중재로 1905년에 포츠머드(Portsmouth)조약으로 조선에서 일본의 독점적 권익을 보장받는다.

조선은 이러한 국제간의 갈등을 피하고자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의 황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일본의 하야시와 조선의 이지용이 한일의정서를 체결한다(전문 6개조가 있음).

다음 표는 일본의 침략과정이다.

일본의 침략과정

조약명	조문	연대	한·일 대표	결과
한일의정서	6조	1904. 2	이지용 ↔ 하야시	내정간섭, 군사기지 확보
한일협정서 제1차한일협약	3조	1904. 8	윤치호 ↔ 하야시	고문정치 실시
을사조약 제2차한일협약	5조	1905.11	박재순 ↔ 하야시	통감부설치 외교권 박탈
한일 신협약 정미7조약	7조	1907. 7	이완용 ↔ 이토오	차관정치 실시(내정장악)
기유각서	4조	1909. 7	이완용 ↔ 소 네	사법권과 감옥사무관장
경찰권이양		1910. 6	이완용 ↔ 데라우치	경찰권 장악
합방조약	8조	1910. 8	이완용 ↔ 데라우치	총독부 설치, 시민정치 시작

일본의 시민정책

구 분	국제정세	정치지배형태	경제수탈형태	민족의 독립활동
제1단계 1910-1918	제국주의	무단정치 헌병경찰제 조선총독부설치	토지조사사업	의병활동
제2단계 1919-1936	민족자결주의	문화정치 헌병경찰 → 일반경찰	산미증식계획 시장독점화	3.1운동
제3단계 1937-1945	전체주의	민족말살정치 창씨개명 등	대륙병참기지화 투자시장화	대한민국 임시정 부 수립

3) 민족저항운동

애국개몽운동, 무장항쟁(독립군 또는 광복군의 활동)

4) 3.1운동

(1) 쉼기일 : 1919년 3월 1일

• 동기

- 1918년 미국의 윌슨(Wilson)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 일인이 고종을 독살했다는 설이 동기가 되기도 했다.

• 발단 : 재일 조선청년 독립회(최팔용, 송계백)의 2.8선언(1919.2.8)

(2) 민족대표 구성

대표 손병희를 중심으로 33인 대표로 구성(천도교 대표 15명, 기독교 대표 이승훈 등 16명, 불교 대표 한용운 등 2명)하여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탑골공원에서 군중대회를 연 것이 전국에 확산되어 거족적인 민족항쟁운동이 되었다. 독립선언문 작성은 육당 최남선이 하였다.

(3) 임시정부의 수립

초기의 임시정부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그 지역에 따라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 예로

- ①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정부 ② 기호의 대한민간정부
- ③ 서울의 조선민국임시정부 ④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 ⑤ 평안도 신한민국정보 ⑥ 서울의 한성임시정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개헌절차를 거쳐 노령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초대총리로 이동휘를 선출하였다.

3.1운동 이후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발표하였다. 당시 각료들은 다음과 같다.

임시의정원의장	이 동 휘	국 무 총 리	이 승 만
내 무 총 장	안 창 호	외 무 총 장	김 규 식
법 무 총 장	이 시 영	재 무 총 장	이 시 영
군 무 총 장	이 동 휘	교 통 총 장	문 창 범

다시 9월 10일에 내각을 개편하고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 등으로 개편하였다.

11. 대한민국의 수립과 한국전쟁

1) 대한민국의 수립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유발시켜 동아시아를 유린하던 일본은 1945년 연합군에 의해 항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은 막을 내리고(1943년 이탈리아 항복, 1945년 8월 독일항복)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체제에서 해방되었다.

국제연합은 1943년11월2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영·중 3국 수뇌가 모여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중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을 협의하

였다(cairo.선언). 1945년 7월26일 독일교외 포츠담에서미·영·중·소가 모여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하였다(potsdam선언). 중요사항은 일본군 무장 해제와 전범자 처리문제 영토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1945년 2월 11일 소련남부 알타(yalta)에서 미·영·소 3거두가 모여 비밀협정을 맺은 것이 국토 분단의 불씨가 되었다. 즉 소련이 대일 전에 참전하여 38선 이북에서 일본군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 이남은 미군이 해제시키기로 한 것이 분단의 불씨가 되었다. 소련은 이로 인해 극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았다.

중전이 임박해지자 국내에서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본이 패망한 후 정권 인수 준비를 위해 1945년 8월에 제일 먼저 여운영을 중심으로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민족 지도자들이 함께 가담했으나 좌,우익의 경쟁이 표면화되자 8.31 안재홍이 사퇴하자 허 현을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조직 개편과 함께 좌익세력의 영향이 커지자 9월6일 이름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이로서 민족지도자들이 탈퇴하자 건준은 발족 20일 만에 깨어지고 송진우를 중심으로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환국시킬 환영준비를 결성하였다(1945. 9). 이 모임은 후에 우익 세력들만으로 결성한 한국민주당이 된다.

38선 이북에서는 1945년 8월에 소련이 들어와 군정을 선포하고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맡기더니 10월에 소련에서 돌아온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임시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산주의를 좇지 아니하는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소련식 독재공산주의정치를 시작하였다.

남한에서는 1945년 미군이 군정을 선포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허락하니 지하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나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여 민족주의자들과 대립하였다. 이때 남한 내에 50여개의 정당이 난립하여 좌우로 갈리어 대 혼란을 빚고 있었다.

이때 10월에 미국에서 이승만이 11월에 김 구 등 임정요원들이 귀국하였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대립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군정이 계속되

는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말할 수 없이 혼란해졌다. 더욱이 38선으로 인한 경제교류의 균형이 깨어지고 북으로부터 오던 전기마저 차단되니 남한의 경제는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열망은 계속되어 연합국도 이를 받아들여 1945년 12월28일 모스크바에서 3상(미·영·소)회의를 열어 한국을 앞으로 5년 동안 신탁통치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민족지도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반탁운동을 벌여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으나 좌익측에서는 소련의 지시를 받고 갑자기 찬탁으로 태도를 돌변하였다. 또다시 국내는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았다. 미·소는 다시 1946년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례나 협의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미국은 이 문제를 U.N에 상정하여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에 U.N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결의하였다.

1948년 1월에 8개국(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필리핀, 인도, 시리아)으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5월10일 총선을 실시하여 총의석 298석을 인구비례에 따라 남한에 198석, 북한에 100석을 배정하고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남한만 198석을 선출하고 북한의 의석 100석을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선거를 마친 남한은 1948년 5월31일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초대국회의장을 이승만으로 하고 7월17일 헌법을 공포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1948년 12월12일에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정부란 것을 UN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한편 북쪽에서는 1946년 3월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 위원회를 성립시키고 1946년 9월28일 북조선 노동당을 결성하고 정식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성립시켰다. 1947년 2월22일 조선인민군 창설, 1948

년 4월29일 헌법채택, 1948년 8월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실시, 1948년 9월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성립시켰다.

2) 한국전쟁

(1) 전쟁발발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이북에 주둔한 소련의 보호를 받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은 3.8선 이남지역을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된 조국건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 설득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응하지 않았다. 1947년 11월18일 북조선 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헌법을 초안하여 “조선민주주의국가”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소속한 각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1948년 2월8일에 조선인민군을 창설한다.

이렇게 남침작업을 진행하면서 1949년 9월부터 중국대륙에서 제2차 대전 때 중공군에 편입되어 항일전 또는 국, 공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대거 입북시켜 인민군에 편입시켜 병력을 증강시켰다. 1950년 3월까지 10개 보병사단(30개 연대), 1개 전차 여단, 1개 비행단 각종 특수부대와 해군 공군으로 편성된 19만 8천 여명의 인민군을 가졌다.

장비면에서도 다음 도표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인민군을 증강시켜 놓고 소련은 1948년 12월 27일을 기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공포하고 따라서 남한에 있는 미군도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남한은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좌익세력의 책동과 사회가 안정되지 않아 아무 준비도 못한 상태였다. 또 1949년 6월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5백명 규모의 미 고문관만 남았다.

또 1950년 1월12일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은 전 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한 반도에서 무력 분규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이것이 북한 공산정권이 남침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때 북한에서는 평화통일호소

남. 북의 병력 및 주요장비 비교

〈인력비교〉

구분 군별	인 민 군	국 군	비 율
육 군	10개사단(30개연대)120.880명 기타특수부대 6.800명 계182.680명	8개사단(22개연대)67.416명 기타지원부대27.558명 계94.974명	2:1
해 군	4.700명	7.715명	1:1.7
공 군	2.000명	1.897명	1.1:1
해병대	9.000명	1.166명	8.8:1
총 계	198.380	105.752	2:1

〈주요장비 비교〉

구분 장비	인 민 군		국 군		비 율
	구 경	수 량	구 경	수 량	
박격포	120m/m	225문	81m/m	384문	
	82m/m	1,142문	60m/m	576문	
	61m/m	360문	**	**	
곡사포	122m/m	172문	105m/m	91문	
	76m/m	380문	**	**	
고사포	85m/m	12문	**	**	
	37m/m	24문	**	**	
대전차포	45m/m	550문	57m/m	140문	
전차	T-34	242대	**	**	
장갑차	**	54대	**	27대	
자주포	su-76	176문	**	**	
항공기	YAK-9	미상	L-4기	8대	
	IL-10	미상	L-5기	4대	
	IL-2	미상	T-6기	10대	
	훈련기	미상			
	정찰기	미상	계	22대	
경찰정	계	211대		28척	
		30척			

월남인 통계

출신도	인 원 수	거주지별	인 원 수	거주지별	인 원 수
황해도	1,364,600	서 울	1,134,000	전 북	231,800
평 남	1,132,900	부 산	600,400	전 남	424,400
평 북	843,200	경 기	636,900	경 북	438,100
함 남	1,205,600	강 원	545,500	경 남	450,400
함 북	596,700	충 북	166,600	제 주	16,700
		충 남	318,200		
계	5,143,000				

문을 발표하고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총책 이주하, 김삼룡과의 교환을 제의하기도 했다.

1950년 6월15일 북한의 민족보위성에서 각 사단에 정찰명령 제1호를 하달하고 1950년 6월22일 소련 군사고문단이 민족보위성에 명령하여 각 사단에 전투명령 1호를 하달하였다.

1950년 6월25일 새벽4시 38선 전역에 일제히 기습공격해 왔다. 이 날이 주일 공휴일이라 이미 주말에 많은 병사들이 외출한 상태였다. 개전 3일만인 6월28일에 수도 서울이 점령당한다.

(2) 전쟁경과

1950년 6월25일 전면남침 개시

6월27일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이때 소련대표 불참) 북한을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16개국으로 UN군을 구성하였다(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태국,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필리핀, 벨지움, 남아연방, 에디오피아, 룩셈부르크) 또 인도, 덴마크 등 40여개국이 경제적 군수품 등을 지원해 주었다.

7월7일 UN군을 창설하여 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임명하였다.

1950년 6월28일 서울이 점령당하고 7월3일 북한군이 한강을 도강하였다.

7월24일 미24사단 스미스 대대가 처음 투입되어 대패를 당하고 8월1일 낙동강까지 후퇴하였다.

9월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고 9월28일 서울을 탈환했다. 10월1일 국군은 3.8선을 돌파하고 10월20일 평양에 입성하고 10월26일 국군 6사단은 초산지 진격하고 미7사단은 해산진까지 진격했다.

UN군이 3.8선을 넘을 때부터 불안을 느낀 중공은 인민지원군조직을 명령하고 30만 명을 한·만 국경에 집결시켰다. 팡덕회(彭德懷)를 북한과 중공군의 통합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참전을 결정하였다. 10월13일 모택동은 출병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UN군이 압록강 이북에 대한 공격을 못하게 하였다.

10월15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을 웨이크섬으로 불러 회담하면서 한·만 국경을 넘어 만주 폭격은 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UN군은 제한된 범위에서 작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12월 15일-24일까지 흥남에서 바다로 철수하고 1951년 1월4일 다시 서울이 중공군에 점령당하고 UN군은 평택 제천까지 후퇴하였다가 다시 반격하여 3월14일 재탈환하고 3월24일 맥아더는 다시 3.8선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미 일부에서는 3.8선을 넘은 부대도 있었다. 6월에는 철원까지 진격하였으나 전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트루먼 대통령과 만주폭격을 해서라도 이 전쟁을 완전 승리로 이끌려는 맥아더와의 갈등으로 맥아더는 해임당하고 전쟁도 소련대표 말리크의 휴전제의를 받아들여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조인하고 3년1개월간의 전쟁은 민족의 엄청난 폐허와 비극만 남긴 채 쌍방의 아무 소득 없이 일단 총성이 멈추어졌다.

인명피해

	남	북	U. N	중 공 군
전투원	전 사:147,000 부 상:709,000 실 종:136,000 합 계:987,000	520.000 406.000	사망:36,074	
민 간	피 살:123,936 사 망:244,663 부 상:229,625 피 납: 84,532 행 불:330,312 강제징용:400,000	2백만		
경 찰	16,614			
계	1,400,000	2,926,000		

(3) 결과

한국전쟁은 결론적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만 남기고 아무 유익 없이 분단만 고착시키고 끝난 전쟁이다.

학자들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UN 참전, 중공참전으로 국제적인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전쟁을 통해 서로의 상처만 남기고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대결구조를 가져와 오히려 반통일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평가를 내린다.
- ③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미화시킬 수는 없다. 엄청난 동족간에 살상을 감행한 전쟁이 해방전쟁일 수는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화를 위한 또 다른 해방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본다.

12. 민주국가의 발전

1)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1)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등 우방국가와의 외교에 힘을 쏟았다. 전쟁기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였으며, 후방에서도 공산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하였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활동까지도 제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국민의 직선으로 재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서 다시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 헌법의 개정을 반대하였던 정치인들은 민주당을 조직해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 견제하였다. 그 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장기집권을 추구하면서 독재정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심화되었다.

(2) 4·19 혁명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4·19 혁명을 일으켰다.

4·19 혁명은 3·15 선거 당일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마산 의거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경찰이 시위군중에 발포함으로써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자유당 정권은 오히려 이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발표하여 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그 뒤 이 사건의 진

상이 밝혀지게 되자, 국민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다.

드디어 4월19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도 가세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시위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였지만,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다. 마침내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으며, 자유당 정권도 무너지게 되었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으로 우리 민족의 민주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3) 장면 내각

4·19 혁명 후의 혼란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허정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과도정부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장면 내각은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 사회의 발전을 통해 국력을 신장하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내의 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자제할 줄 모르는 일부 국민들의 과도한 욕구 분출로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면 내각은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 5·16 군사정변과 유신체제

(1)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세력이 사회적인 무질

서와 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되었다. 4·19 혁명 이후 출범하였던 장면 내각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9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다.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는 즉각 헌정을 중단시켰으며, 군부세력이 중심이 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정부는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국시로 천명하고 경제재건과 사회안정을 내걸었으며,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여 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어서, 군사정부는 새로운 정당으로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여기에 결집시켰다.

군사정부는 헌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령을 개정, 정비하고 민정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1963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군사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주요 과제들을 대부분 그대로 실천하려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의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에 의거하여 국정을 운용하였다.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공업화의 급속한 추진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도입하였다. 또,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에 부딪혀 이른바 6·3 시위를 유발시켰다(1964). 이에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대학생들을 억압하였다. 야당과 대학생들은 박정희 정부의 억압통치에 반대하였으며, 여·야의 대립은 점차 골이 깊어 갔다. 특히, 1969년에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이 강행되자, 여·야 정치세력 사이에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유신체제의 등장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국제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

른바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고 베트남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켰으며, 그 뒤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말았다. 또,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장기집권의 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이른바 10월 유신이었다(1972).

유신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의 헌정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였다. 그것은 곧 국가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해서 사회를 조직화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활동을 제약한 독재체제였다.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신체제는,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의 권위주의적 경직성은 국민들의 정치의식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신체제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역기능적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국내외로부터 격렬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학원, 언론, 종교, 정계 등 각 분야에서 민주헌정의 회복과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위를 막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시위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가에서도 유신체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였으며, 이 때문에 한때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마산 등지에서는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으며,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태가 일어나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1979).

(3) 전두환 정부

10·26 사태로 정치 사회는 한때 심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권위주의 통치가 물고 온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는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1979년 12월12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일부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장악하였으며, 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광주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1980). 이 때 민주 헌정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진압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상되어,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신군부 세력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하였으며, 개헌을 추진해서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민주정의당을 조직하고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1981).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 등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웠으며, 경제안정과 수출증대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인권 문제, 각종 부정과 비리로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압적 통제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마침내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민주주의의 발전

(1) 노태우 정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이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마련하였으며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결과 노태우 정부가 성립되었다(1988).

노태우 정부는 국정지표를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또, 이 시기에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와 소련,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도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등 적극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래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의 후유증과 민주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 김영삼 정부

6월 민주항쟁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대도 커지게 되었다. 또,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서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김영삼 정부가 성립되었다(1993).

김영삼 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건설을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등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또, 사회의 누적된 모순을 제거하면서 민주화와 세계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뒤 국제 경제여건의 악화와 외환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

(3)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러한 외환위기 속에서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결과, 야당 후보의 승리로 김대중 정부가 성립되었다(1998).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 난국의 극복, 국민 화합의 실현, 법과 질서의 수호 등의 국가적 과제를 제시하고,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8 장 정보화 사회의 이해

1. 정보화 사회와 우리와의 관계

1) 목 적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자본이 사회적 부와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주요한 요소이듯이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이 가장 중요한 가치 창출의 요소로 여겨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습득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과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컴퓨터는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관리하며 전달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므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적 생활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들은 정보화 사회의 필수적 도구인 컴퓨터를 익혀서,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 사회에서는 사람의 노동력과 자본이 사회 발전의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었다. 오늘날에는 정보 관리능력이 중시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 정보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정보란, '널려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만을 모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살거나 여행을 하려면 아프리카 대륙의 기후, 언어, 생활습관, 교통편, 동식물 등에 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관한 자료를 모두 모으려면 그 양이 너무 많을 것이며, 그 자료들 중에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자

기에게 필요한 자료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이 섞여 있을 것이다. 또, 관광이 목적인 사람과 사업이 목적인 사람은 각기 필요한 자료들만을 추려 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은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프리카 대륙의 교통편에 관한 자료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3) 정보화 사회

정보화란 사회전체에서 정보의 양과 가치가 점차 증대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말한다. 즉, 대중매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정보가 부와 가치창출의 중심이 된 사회가 정보화 사회이다.

사람들은 일생동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그때 그때 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얻어야만 한다. 과거에 얻은 지식과 정보중에는 현재 더 이상 쓸모 없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꾸준히 획득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독서, 여행, 전화통화, 텔레비전 시청, 신문 구독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수십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농경위주의 사회였다.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만이 주로 필요했다. 은행이라든지 농산물 유통망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생각들이 아직 자리잡지 못했고, 또 은행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매개체가 없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은행에 예금한 돈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하게 되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머리카락 굵기의 통신 회선 한 가닥을 통해 수천 명이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광케이블에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로이 자료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생활에 이용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기술력을 중시하던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가 사회적 가치와 부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의 각종 조직, 개인의 행동과 사고가 정보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가 컴퓨터와 통신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 저장, 유통되는 사회이다.

둘째,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재화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사회이다.

셋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 만들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 구조가 정보를 중심으로 바뀌는 사회이다.

4) 정보기술

정보기술은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정보 기술이라 한다.

정보기술은 오늘날은 물론 과거에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 과거의 역사 기록을 보존하고 현재의 역사를 기술하는 일이라든지, 국방, 경제, 외교 등에

관한 각종 통계와 기록들을 작성하는 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외세를 막는 데 필요한 군사의 수, 군량미 등을 계획하고, 백성들을 좀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를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로 전해지거나 글과 그림으로 작성된 기록 정도가 전부였다. 계산할 수 있는 도구도 수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하였다. 수십, 수백권으로 만들어진 한 시대의 역사 기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대의 컴퓨터에 모두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 저장한 자료를 가공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초기의 컴퓨터는 단지 수치 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컴퓨터는 수치계산은 물론 각종문자, 소리, 동영상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수십 명의 사람이 동원되어 상당기간 동안 작업해야 할 분량의 일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 사람이 불과 몇 시간 정도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양하고 방대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다루는 능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취급하는 정보들을 살펴보면 대개 숫자, 분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의 형태로 되어 있다. 형태가 각기 다른 이러한 정보들을 처리하는 기기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즉, 계산기, 타자기, 카메라, 녹음기, 비디오 카메라 등이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재생 또는 현상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들은 단지 정보를 수집하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다량의 정보를 보관하고 검색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없다. 컴퓨터는 이러한 여러 기기들의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얻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다루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① 한 대의 컴퓨터로 다량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 ② 많은 양의 자료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 ③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입력하고 가공하거나 저장, 재생, 검색할 수 있다.
- ④ 시디 롬(CD-ROM) 등의 기억 매체를 이용하여 소형의 기억 장치에 대량의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⑤ 다른 컴퓨터들과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internet), PC통신 등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분량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얻을 수 있다.

5) 미래사회와 정보

미래사회에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보의 양과 종류가 늘어남과 더불어 정보를 다룬 컴퓨터시스템이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크기는 현재보다 훨씬 작아질 것이며, 처리속도나 기억 장치의 용량은 몇 배나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교과서와 공책, 그리고 백과사전 등을 소형 컴퓨터 한 대에 모두 수록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을 대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가 가능해지며, 전세계의 수많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인종, 지역, 시간의 제한 없이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유리하게 될 것이다. 또, 컴퓨터 사용능력은 개인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정보기와 컴퓨터

정보를 다루는 기기는 전화, 팩시밀리,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컴퓨터 등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에 컴퓨터는 사람들이 취급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단원에서는 정보 기기, 컴퓨터의 뜻과 역사, 그리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 공부하기로 한다.

1) 정보기기

정보기기란 우리생활 주변에서 활용되는 각종 정보들을 처리하거나 관리해주는 각종 기기들을 말한다. 컴퓨터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정보를 관리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타자기, 인쇄기 등은 각종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나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렇게 인쇄된 자료는 도서관 등에 잘 관리, 보존되어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왔다. 개인 간의 정보교환은 편지나 전화를 이용하여 주고 받았으며, 라디오, 텔레비전의 발명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모스 부호를 이용한 무선 통신을 시작으로 발달되기 시작한 전기 통신 분야는 문자 전달 수단인 텔렉스, 음성이나 무선 부호를 전달하는 무선기기, 음성 전달을 위주로 한 유선 전화 등의 대량 보급과 더불어 이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자료의 보관에서도 커다란 부피를 차지하는 문자나 그림 자료들은 조그마한 마이크로필름에 사진으로 담아

보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디지털화하여 디스크나 시디 롬에 담아 보관하게 되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팩시밀리같은 문자나 그림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통신기기가 개발되었고, 복사기, 탁상용 계산기,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등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형태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뛰어난 통신기능을 갖춘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정보 기기들이 해 오던 일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팩시밀리의 경우 스캐너라는 장치와 모뎀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팩시밀리의 기능을 컴퓨터로 대신할 수도 있다.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의 경우,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영상 저장 매체인 비디오 시디(video CD)가 생산됨에 따라 컴퓨터에서도 비디어 카세트 레코더의 기능을 수행할 수있게 되었다. 또, 기존 전화 대신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국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게 되었다.

컴퓨터는 그동안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던 여러 가지 정보 기기들의 기능을 통합하여 한 대의 기계 장치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앞으로 컴퓨터 기술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종합적인 정보 관리 도구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2) 컴퓨터의 뜻

컴퓨터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일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컴퓨터란 명칭은 원래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컴퓨터가 단순히 수치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컴퓨터는 수치 계산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분류하고 비교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처리할 수 있는 자료도 수치를 포함해서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기 위한 대상을 자료라 하며, 자료를 처리한 결과를 정보라 한다. 자료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는 과정은 사람이 일을 하는 과정과 비슷한데, 여기에는 입력, 연산, 제어, 출력 등의 다섯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입력은 자료를 받아들이는 기능이고, 연산, 제어, 기억은 자료를 처리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출력은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표 1>은 컴퓨터와 사람의 기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컴퓨터의 기능	사람의 기능
입력 기능	눈, 귀, 코, 피부 등을 통하여 외부 자극을 수용
연산 기능	두뇌를 통해 계산하고 판단하는 기능
제어 기능	두뇌를 포함해서 전체의 각 부분의 활동을 적절히 제어
기억 기능	두뇌를 통해 입력된 자료와 처리된 결과를 기억
출력 기능	입, 손, 발 등을 통해 외부에 반응

아주 단순한 일에서부터 매우 복잡한 일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로 처리되는 모든 일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컴퓨터의 역사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좀더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으로 기울어 왔다.

기원전 2600년경, 중국에서 계산기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수판을 만들어 동양의 여러나라에서 사용해 왔다. 17세기경에는 파스칼이 톱니바퀴를 이용하여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하였다. 라이프니츠는 이 계산기를 개량하여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의 시초가 되었다.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산의 양도 많아지고 더욱 빠른 계산이 요구되면서, 1946년 미국의 모클리와 에커트가 진공관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ENIAC)을 발명하였다.

그 후 트랜지스터(TR), 집적회로(IC), 고밀도 집적회로(LSI),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의 발달과 각종 기억 매체들의 소형화, 대용량화가 가능해지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 컴퓨터의 크기는 매우 작아지고 성능은 크게 향상된 반면에 값은 싸지게 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마이크로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PC) 등이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업무에 적합한 중형 컴퓨터, 대기업과 은행, 관공서 등의 업무에 이용되는 대형 컴퓨터 등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개인용 컴퓨터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데스크 톱(desk top)형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휴대하고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lap top computer, notebook computer) 사용이 증가 추세이다. 노트북 컴퓨터는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데스크 톱형 컴퓨터와 큰 차이가 없다. 미래에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컴퓨터의 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컴퓨터의 특성과 할 수 있는 일들

컴퓨터는 다른 일 처리 도구에 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에 의해 가능한데, 컴퓨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의 처리결과는 정확하다. 일 처리에 대한 사람의 지시가 정확하고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컴퓨터에 의한 처리결과는 매우 정확하다.

둘째, 컴퓨터는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컴퓨터는 자료를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저장된 처리와 관리가 매우 간편하다. 예를

들면, 한 장의 디스크나 시디 롬(CD ROM)에 저장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은 수천 쪽에 수십만 쪽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또, 이와 같이 저장된 자료는 운반과 관리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쉽고 빠르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다.

셋째,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 컴퓨터의 속도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한 개의 단위 명령을 수행하는 데 백만분의 1초에서 십억분의 1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컴퓨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도 1초에 수천만 번 이상의 단위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컴퓨터는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과거의 컴퓨터가 숫자나 문자 자료만 처리 가능했던 반면, 오늘날의 컴퓨터는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 처리에 이용되는 특성을 범용성이라 하는데,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범용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컴퓨터의 네가지 특성, 즉 처리의 정확성, 자료처리의 대용량성, 신속성, 일처리의 범용성 등으로 인해 컴퓨터는 정보화 사회의 가장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복잡한 수치계산, 통계 등 과학기술 분야의 일
- ② 은행, 관공서에서 대량의 자료를 분류하여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하고 수정하는 일
- ③ 문서작성, 보관 능력이 뛰어나므로 각종 문서나 책을 만들어내는 일
- ④ 그림, 동영상의 입력, 저장,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화상 자료들을 처리하는 일
- ⑤ 음성인식, 음성 합성 등을 통하여 악기 연주, 작곡, 편곡 등이나 입력된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일

⑥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를 주고받는 일

3. 하드웨어

컴퓨터 장치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서, 보통은 줄여서 컴퓨터라 한다. 이러한 컴퓨터 장치와 그에 연결되는 모든 주변 기기들을 합하여 하드웨어(hardware)라 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드웨어는 컴퓨터에 관련된 장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오디오 기기등의 전자 장치들도 하드웨어라 하며, 자동차 등의 기계 장치도 하드웨어라 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컴퓨터의 작동원리와 주요 장치들에 대해 공부하기로 한다.

1) 컴퓨터의 작동 원리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형태는 사람이 사용하는 숫자나 문자와는 달리 전기적 신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문자, 부호 등의 개수만큼 모양이 각기 다른 형태의 전기적 신호를 사용해야만 자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전기적 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만들려면 컴퓨터 회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컴퓨터를 간단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태의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펄스(pulse)라고 하는 2진수형태의 전기적 신호이다. 컴퓨터는 2진수 형태의 전기적 신호에 대응하여 입력 가능한 모든 숫자, 문자, 부호 등 각각에 대해 2진수로 구성된 코드로 부여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코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는 아

스키(ASCII) 코드가 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문자 코드도 아스키 코드이다.

컴퓨터가 모든 자료를 2진수로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고 있는 모든 자료가 이러한 2진수 형태의 전기적 신호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2) 컴퓨터의 주요 장치

컴퓨터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자료들을 이러한 2진수 형태의 신호로 바꾸어 여러 장치들을 통하여 처리한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에는 입력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장치, 제어 장치, 출력 장치가 있다. 이 중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 및 연산에 필요한 작은 용량의 기억 장치는 중앙처리 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 라는 1개의 칩 안에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중앙처리 장치의 처리 속도와 주기억 장치의 용량에 의해 컴퓨터의 성능을 구분하기도 한다.

기억 장치의 용량을 표시하는 단위로는 비트(bit)와 바이트(byte)가 있다. 비트는 2진수 1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의 최소단위이다. 바이트는 영문자나 숫자 1개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용량 단위이다. 한글이나 한자 1개를 저장하는 데에는 2바이트가 필요하다.

☞ 기억용량의 단위

- 1byte = 8bit
- 1KB = 2^{10} byte
- 1MB = 2^{20} byte
- 1GB = 2^{30} byte

(1) 입력 장치

우리는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등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여 입력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입력 장치라 한다. 입력 장치로 들어온 자료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형태의 2진 코드로 변환되어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입력 장치로는 자판기(key board), 마우스(mouse), 조이스틱(joy stick), 트랙볼(track ball), 터치패드(touch pad), 라이트 펜(light pen), 그래픽 판(graphic panel), 카드 판독기(card discriminator), 바코드 판독기, 스캐너(scanner),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 비디오 카메라(vidio camera) 등이 있다.

(2) 기억 장치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공책 등에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이용한다.

이와같이, 컴퓨터도 실행할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주기억 장치에 기억시켜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주기억 장치에 입력시켜 사용한다.

① 주기억 장치

시험문제를 풀 때에는 머릿속에 기억해 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다.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도 우리의 머리 역할을 하며, 실행할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기억시킨 다음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자료를 처리한다. 주기억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로는 반도체인 롬(ROM)과 램(RAM)이 있다. 롬은 기억된 내용을 읽기만 하는 전용 기억소자로, 전원이 끊어져도 그 안의 내용은 지워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담아놓는 데 이용한다. 반면에, 램은 읽거나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자의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기억된다. 그러나 전원이 끊어지면 그 안의 내용도 지워진다.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라고 하면 램을 의미한다.

② 보조기억 장치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리기 쉬운 정보는 수첩 등에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는 기억 용량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기억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지워지므로 별도의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별도의 기억 장치에 보관하는 데, 이를 보조기억 장치라 한다.

보조기억 장치에는 대형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이 있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플로피 디스크와 하드 디스크, 시디 롬 등이 있다. 플로피 디스크는 3.5인치(1.44MB)용과 5.25인치(1.2MB)용이 사용되며 최근 들어서는 3.5인치 디스크가 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또 100MB 용량을 가지고 있는 칩(Zip) 디스크도 사용되고 있다.

(3) 제어 장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곡을 해석하여 지휘봉과 몸짓으로 보내주는 신호에 따라 단원들이 악기를 연주하듯이 컴퓨터도 프로그램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명령을 해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장치에 신호를 보내어 주어진 일을 처리한다.

제어 장치는 입력 장치를 통하여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입력되면, 이들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시킨다. 그리고 나서 기억된 명령을 차례로 해석하여 명령에 맞는 제어신호를 관련 장치에 보내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4) 연산 장치

연산 장치는 실제 프로그램의 명령을 실행하는 장치이며, 중앙처리 장치 안에 있다. 연산 장치에서는 사칙 연산, 논리 연산 등을 수행하며, 이러한 몇 가지 연산 기능을 1초에 수천 만 번씩 수행한다. 이렇게 하여 복잡한 산술계산은 물론, 영상 자료나 소리 자료들을 처리하기도 한다.

(5) 출력 장치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표현할 때에 글이나 말로서 한다. 컴퓨터에서도 내부에 기억된 내용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나타내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를 출력 장치라 한다. 출력 장치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모니터(monitor)와 프린터(printer)이다. 모니터는 주로 컬러 모니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해상도와 화면의 크기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진다. 해상도란 화면의 가로와 세로에 표시될 수 있는 점(pixel)의 수로 표현되는데, 800×600이라든지, 1024×768 이라는 표시로 해상도를 나타낸다.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으면 컴퓨터 본체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도 높은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와 그래픽 카드의 해상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프린터의 종류로는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등이 있고, 그림이나 도면을 그리는 전용 출력 장치로는 플로터가 있다.

4. 소프트웨어(soft ware)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oft ware)가 있어야 한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송신되는 전파에 실려있는 내용이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경우에는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있는 내용이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기로 한다.

1) 소프트웨어의 뜻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나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는 테이프가 있어야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감상할 수가 있다. 컴퓨터도 컴

퓨터를 작동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소프트웨어라 한다.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의 제조 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테이프로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컴퓨터도 모양과 크기가 다르더라도 호환성이 있는 컴퓨터끼리는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같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를 의미하는 하드웨어와 구분하여 사용된다.

2)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특성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일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일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해 본다면 대략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단지 기계 장치에 불과한 컴퓨터가 정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컴퓨터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전원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작동되거나 자판에서 입력된 문자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일들은 컴퓨터 내부의 롬(ROM)속에 들어 있는 바이오스(BIOS) 프로그램에 의해 가능한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한다.

이와같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모든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의 구조나 특성을 몰라도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준다. 이를테면, 세탁기의 구조나 특성을 몰라도 세탁에 필요한 간단한 몇가지 단추를 누르면 빨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로는 운영 체

제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utility program) 등이 있다.

① 운영체제 프로그램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려면 우선 컴퓨터가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컴퓨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을 운영체제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로는 도스(DOS), 윈도우(Windows 95, Windows 98, Windows me, Windows NT) 등이 있다. 이밖에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이나 중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유닉스(UNIX)라는 운영체제가 있다.

② 언어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기계어)로 번역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대표적인 언어프로그램으로는 베이식(BASIC), 코볼(COBOL), 포트란(FORTRAN), 파스칼(PASCAL), 시(C) 등이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음성과 영상 처리가 쉬우며,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연관성을 좋게 해 주는 언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 프로그램에는 비주얼 베이식(visual BASIC), 비주얼 C⁺⁺(visual C⁺⁺) 등이 있다. 또 인터넷(internet)이 일반화되면서 홈페이지(homepage) 작성 등을 위한 언어인 HTML, 자바(JABA) 등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③ 유틸리티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도스용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는 피시 툴(PC TOOL)과 노턴(NORTON), 엠(M) 등이 있는데,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이러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의 기능이 상당 부분을 윈도우안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도 파일 관리 프로그램, 메모리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바이러스 퇴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윈집(WINZIP)과 같은 파일 압축/해제용 프로그램 등 많은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응용 소프트웨어

우리들이 맞춤 센터에서 맞추어 입는 맞춤옷은 우리 몸과 기호에 맞게 디자인하고, 재단해서 만든 것이고, 백화점에서 사는 기성복은 구매자의 기호, 취향, 신체 크기를 조사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웨어라 한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응용 소프트웨어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전자 계산표 프로그램, 자료 관리 프로그램, 소리·영상 처리 프로그램, 각종 업무 처리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① 문서 작성 프로그램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보통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er)라 하며, 문서의 작성, 편집, 인쇄, 저장 등을 할 수 있고, 타자기와 복사기의 기능이 있어 사무실, 학교,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업무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상용되고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은 사진, 그림, 그래프 등의 처리도 가능하여 개인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을 벗어나 책을 만드는 일도 가능할 정도로 그 기능이 뛰어나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 중 활용 빈도가 가장 높다.

② 전자 계산표 프로그램

전자 계산표 프로그램은 흔히 스프레드 시트(spread shee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전출납부, 성적표, 전표, 회계장부 등과 같이 숫자로 되어 있는 형태의 자료들을 쉽게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간단한 조작방법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입력

된 숫자 자료에 대하여 수십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출력시켜 볼 수도 있다.

③ 자료관리 프로그램

자료관리 프로그램은 데이터 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문자, 숫자 자료의 입력, 분류, 저장, 검색, 수정이 쉬워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교생의 주소록을 처리하게 되면, 어떤 학생의 이름 또는 학번만을 가지고 손쉽게 그 학생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관리 업무 등과 같이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④ 소리·영상 처리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리와 영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화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나 컴퓨터의 성능이 크게 좋아지면서 이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누구나 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음악 감상, 영화 감상, TV 시청 등이 컴퓨터로도 가능해졌고,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사진 자료를 읽어들이고 후 합성, 편집하여 전자 앨범을 만들 수도 있게 되었다. 여러 가지 도면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픽 툴(graphic tool)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미술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⑤ 그 밖의 응용 소프트웨어

위에 설명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사용하는 입출금 관리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성적 처리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사용 목적에 맞게 별도로 만들어진 업무용 프로그램들도 모두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이것들은 기업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위한 각종 통신용 프로그램들도 모두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3) 소프트웨어의 사용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해 놓고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그 차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컴퓨터를 구입한 후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그 기능과 가격들이 크게 다르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인지,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인지, 가격은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간혹,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행되지 않아 곤혹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불법 복제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법 복제로 인해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는 개발업체의 개발의욕을 떨어뜨려 더 이상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타인의 지적 창조물인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소프트웨어가 값싸게 공급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다.

2001년 12월 15일 인쇄
2001년 12월 31일 발행

발행 : 통일부 하나원
Tel 031-670-9311~5
인쇄 : 광 신 사
Tel 02-2277-4533
